

2006년 십대 여성 자립지원사업 [테마프로젝트]

모니터링 운영 보고서

2006년 1월

연구기간 : 2006년 4월 - 1월(10개월)

연구기관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사업단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인숙(책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혜경(공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남욱(보조연구원)

머 리 말

서울특별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6년째 십대여성의 자립을 테마로 하여 십대여성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특히, 가출이나 학업중단과
같은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십대여성”으로 포괄함으로써 이들을 보호가 필요한 여
자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인간으로 정의
하고 이미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
회적 낙인과 자의적 낙인을 최소화시켜 “자립”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
다. 그 일환으로 십대여성의 “자립”만이 아니라 이들의 자립이 “성인지적”
(gender-sensitive)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테마 프로젝
트는 지금까지 십대 청소년들에게 적용되어 왔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이들을 주체
적인 여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실무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
우 큰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원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실무자들에게 수퍼비전
을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동시에 추진
한다는 점이다.

2006년도의 테마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이러한 방
향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다. 모니터링 연구팀은 기관의 자립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기관방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기관 실무자와의 소통,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피드백, 다수의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통계교육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립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를 연구함으로써 이후의 자립 프로그램 기획과 대안적 자립 개념을 구성하는 기초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6년에 수행한 모니터링 연구팀의 이러한 전 과정과 각 기관의 사업평가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가장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신 기관 실무자들이다. 실무자들의 협조와 협력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아울러 늘푸른여성센터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모니터링 과정 내내 모니터링 연구팀과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고 연구팀의 의견을 융통성있게 수용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모니터링 연구팀의 장혜경, 김남욱 연구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7년 1월

김인숙(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1
1. 테마프로젝트 소개	1
2. 2006년도 사업 분야 및 대상기관	3
3. 모니터링의 목적 및 방법	5
II. 십대 여성의 성인지적 자립	9
1. 십대여성 : 호칭과 이해의 정치학	9
2. 성인지적 관점 : 원리와 적용	12
3. 자립의 개념 : 개인화된 자립의 과잉	18
4. 십대 여성의 성인지적 자립	22
III. 단위사업 기관 최종보고 및 모니터링 평가	24
1. 구세군서울여자관	24
1) 기관 소개	24
2) 사업실시 개요	24
3) 사업결과 및 평가	26
4) 기관자체 평가	28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30
2. 꿈틀학교	32
1) 기관 소개	32
2) 사업실시 개요	33
3) 사업결과 및 평가	33
4) 기관자체 평가	40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47
3. 노원구청소년쉼터	49
1) 기관소개	49
2) 사업실시 개요	49

3) 사업결과 및 평가	50
4) 기관자체 평가	54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56
4. 대한성공회 행복한 우리집	57
1) 기관소개	57
2) 사업실시 개요	57
3) 사업결과	58
4) 기관자체 평가	66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71
5. 또 하나의 집	73
1) 기관 소개	73
2) 사업 실시 개요	73
3) 사업결과 및 평가	74
4) 기관자체 평가	77
5) 모니터링 내용	80
6. 마자렐로센타	81
1) 기관소개	81
2) 사업실시 개요	81
3) 사업결과 및 평가	82
4) 기관자체 평가	86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88
7. 서울 나자렛집	89
1) 기관소개	89
2) 사업실시 개요	90
3) 사업결과 및 평가	90
4) 기관자체 평가	93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95

8. 서울 YMCA 청소년쉼터	96
1) 기관소개	96
2) 사업실시 개요	97
3) 사업결과 및 평가	97
4) 기관자체 평가	101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06
9. 애란세움터	108
1) 기관소개	108
2) 사업실시 개요	108
3) 사업결과 및 평가	109
4) 기관자체 평가	113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17
10.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119
1) 기관소개	119
2) 사업실시 개요	119
3) 사업결과 및 평가	120
4) 기관자체 평가	124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25
 IV. 확대사업기관 최종보고 및 모니터링 평가	 128
1. 강서정신보건센터	128
1) 기관소개	128
2) 사업실시 개요	128
3) 사업결과 및 평가	129
4) 기관자체 평가	133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34
2. 글로벌케어	135

1) 기관소개	135
2) 사업실시 개요	136
3) 사업결과 및 평가	137
4) 기관자체 평가	140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44
3. 서울 여성의전화	145
1) 기관소개	145
2) 사업실시 개요	145
3) 사업결과 및 평가	146
4) 기관자체 평가	150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52
4. 상담센터 빵과영혼	154
1) 기관소개	154
2) 사업실시 개요	154
3) 사업결과 및 평가	155
4) 기관자체 평가	158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60
5. 언니네	162
1) 기관소개	162
2) 사업실시 개요	162
3) 사업결과 및 평가	163
4) 기관자체 평가	166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67
V. 성과평가	170
1. 실무자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170
1) 조사방법	170

2) 실무자의 성숙인지적 관점 변화분석 결과	171
3) 실무자의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평가	177
2. 십대 여성의 자립 인식과 수준 평가	181
1) 조사방법	182
2) 자립 인식 조사 결과	183
3) 십대 여성 자립 수준 조사 결과	190
 VI. 결론	 194
1. 평가 요약	194
1)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평가	194
2) 사업평가	195
3) 성과 평가	199
2.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204
1) 서울시의 십대여성 자립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	205
2)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테마프로젝트에 대한 제언	207
3) 자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각 개별 기관과 관련된 제언	211
 VII. 참고자료	 213
 부록	 215
1. 기관용 최종보고서	215
2.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	217
3. ACLS Short 척도	223
4. 실무자 포커스 그룹 질문지	227
5. 참여자 포커스 그룹 질문지	229

표 차례

표 1- 1 <2006년 테마프로젝트 지원분야와 내용>	3
표 1- 2 <2006년 테마프로젝트 수행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4
표 1- 3 <프로그램 과정 평가>	7
표 1- 4 <프로그램 과정 평가>	8
표 3- 1 <구세군서울여자관 사업 개요>	24
표 3- 2 <구세군서울여자관 사업진행 일정>	26
표 3- 3 <구세군서울여자관 사업 결과>	27
표 3- 4 <꿈틀학교 사업 개요>	33
표 3- 5 <꿈틀학교 사업진행 일정>	35
표 3- 6 <꿈틀학교 사업 결과>	36
표 3- 7 <꿈틀학교 사업 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서술적 평가>	44
표 3- 8 <꿈틀학교 사업 참여자의 측제에 대한 서술적 평가>	46
표 3- 9 <노원구청소년쉼터 사업 개요>	49
표 3-10 <노원구청소년쉼터 사업진행 일정>	51
표 3-11 <노원구청소년쉼터 사업 결과>	51
표 3-12 <노원구청소년쉼터 과정평가>	53
표 3-13 <노원구청소년쉼터 효과평가>	54
표 3-14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 개요>	58
표 3-15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진행 일정>	59
표 3-16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결과>	63
표 3-17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평가>	65
표 3-18 <또하나의집 사업개요>	73
표 3-19 <또하나의집 사업진행 일정>	75
표 3-20 <또하나의집 사업결과>	76

표 3-21 <마자렐로센타 사업 개요>	82
표 3-22 <마자렐로센타 사업진행 일정>	82
표 3-23 <마자렐로센타 사업결과>	83
표 3-24 <나자렛집 사업 개요>	90
표 3-25 <나자렛집 사업진행 일정>	91
표 3-26 <나자렛집 사업 결과>	91
표 3-27 <서울YMCA청소년쉼터 사업 개요>	96
표 3-28 <서울YMCA청소년쉼터 사업진행 일정>	98
표 3-29 <서울YMCA청소년쉼터 사업결과>	99
표 3-30 <애란세움터 사업 개요>	108
표 3-31 <애란세움터 사업진행 일정>	109
표 3-32 <애란세움터 사업결과>	110
표 3-33 <애란세움터 사업평가>	112
표 3-34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사업 개요>	119
표 3-35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사업진행 일정>	120
표 3-36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사업결과>	122
표 4- 1 <강서정신보건센터 사업 개요>	128
표 4- 2 <강서정신보건센터 사업진행 일정>	129
표 4- 3 <강서정신보건센터 사업결과>	130
표 4- 4 <글로벌케어 사업 개요>	136
표 4- 5 <글로벌케어 사업진행 일정>	137
표 4- 6 <글로벌케어 사업결과>	137
표 4- 7 <서울여성의전화 사업 개요>	145
표 4- 8 <서울여성의전화 사업진행 일정>	146
표 4- 9 <서울여성의전화 사업결과>	147
표 4-10 <상담센터 빵과영혼 사업 개요>	154
표 4-11 <상담센터 빵과영혼 사업진행 일정>	155

표 4-12 <상담센터 빵과영혼 사업결과>	156
표 4-13 <언니네 사업 개요>	162
표 4-14 <언니네 사업진행 일정>	163
표 4-15 <언니네 사업결과>	164
표 5- 1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검사 응답자 일반사항>	178
표 5- 2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사전사후 평균 비교>	179
표 5- 3 <하위영역별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사전사후 평균 비교>	180
표 5- 4 <하위영역별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2006년말/ 2007년말 평균비교>	180
표 5- 5 <자립 생활기술 검사 응답자 일반사항>	190
표 5- 6 <자립 생활기술 영역별 평균 비교>	192

I. 서 론

1. 테마프로젝트 소개

서울특별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테마프로젝트는 가출, 성매매, 성폭력, 임신 등 위기를 경험한 십대여성에게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십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며 민간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테마프로젝트는 3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노충래외, 2004)

첫째, 테마프로젝트가 민·관·학 파트너십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전문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는 민간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실무적 지원, 민간기관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기관실무자 교육지원 및 교육제공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팀에서는 개별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 평가와 모니터링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효율성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십대 가출여성을 대상으로 전문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테마프로젝트는 보호시설/쉼터 십대여성들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 건강, 안전 등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보호시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십대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쉼터 실무자의 전문성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보호시설의 대부분은 열악한 임금과 근무여건, 재교육 기회의 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는 테마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시설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지원과 실무자들의 욕구에 맞는 실무교육 및 수퍼비전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전문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또한 모니터링 팀의 정기적인 기관방문 및 자문을 통해 실무자의 프로그램 운영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넷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각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 및 자문을 통해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프로그램이 당초 의도한대로 진행되고, 의도한 대상 집단에 서비스가 적시에 적절한 형태로 전달되도록 점검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십대여성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무한 형태라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테마프로젝트는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2001년도에 설립되면서 서울시내 가출 및 성매매 십대여성 보호시설을 방문 조사한 결과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내용과 전문성에 있어 발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초기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가출·성매매 관련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문제유형별로 나누어 지원하였고 이때에는 ‘테마여행’이라는 용어로 진행되었다. 2001년도에는 7개 분야의 10개 시설, 2002년도에는 9개 분야의 14개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대상기관을 십대 여성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단위사업 5개 분야의 7개 시설과 확대사업 9개 분야의 9개 시설을 지원하였다. 이후

2004년도에는 문제유형별로 나누던 분야를 주제별로 나누어 정서지원분야에 8개 시설, 자립지원분야에 5개 시설, 의료지원분야 4개 시설을 지원하였다. 이때부터 '테마프로젝트'란 용어가 사용되었고 '테마여행'의 사업에 비해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 양상을 보였다. 2005년도에 와서는 보호시설 십대 여성들의 자립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면서 일상생활, 자기보호 및 건강, 경제관리, 사회적 발달, 문화, 직업과 학업으로 분류하여 11개 시설의 12개 단위사업과 6개 시설의 6개 확대사업에 지원하였다.

2. 2006년도 사업 분야 및 대상기관

테마프로젝트에서는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서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자립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실천을 강조하였고 단위사업 10개, 확대사업 5개 시설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지원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2006년 테마프로젝트 지원분야와 내용

분 류	내 용
일상생활	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담고 있는 의식주 관련 기술 : 영양, 쇼핑, 식사준비, 의식주 관리, 안전 등
자기보호 및 건강	십대 여성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발달·성장하기 위한 관련기술 : 건강, 성, 스트레스 등
경제관리	현재와 미래의 올바른 경제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 : 돈, 저축, 세금, 신용, 예산, 소비 등
사회적 발달	현재와 미래에 다른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 : 개인발달, 의사소통, 인간관계, 셀프 리더십 등

문 화	십대 문화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문화생산자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 및 여가 체험 활동 등
직업과 학업	십대 여성이 학업을 제대로 완수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얻도록 돕는 기술 :검정고시, 직업훈련, 취업준비, 학업기술 등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06년도에 선정된 테마프로젝트 수행기관과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1-2】 2006년 테마프로젝트 수행기관과 주요 프로그램

분 류	기관명	프로그램
확 대 사 업	자기보호 및 건강	1.강서정신보건센터 보호시설 십대 여성 정신건강지원사업
		2.글로벌 케어 보호시설 십대 여성 신체건강지원사업
	경제관리	3.서울 여성의 전화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 : 10대 여성을 위한 경제 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대중사업
	사회적 발달	4.상담센터 빵과 영혼 십대 여성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역경극복능력강화)
	문화	5.언니네 치유와 관계 맺기를 위한 십대 여성 문화 프로그램
단 위 사 업	사회적 발달	6.꿈틀학교 WHY NOT, 꿈틀ING~~(학업중단 청소년의 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7.행복한우리집 청소년문화기행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밖 구경하기'
		8.또하나의집 시설입소 청소년들의 셀프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9.서울나자렛집 서울나자렛집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성장을 위한 명소탐방프로그램
	경제관리	10.서울YMCA 청소년쉼터 십대 가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체험 프로그램 "삶을 경영하라!"
	문화	11.구세군서울여자관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일상생활	12.에란세움터	혼전임신 경험을 한 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직업과 학업	13.노원구청소년쉼터	가출여자청소년 삶의 역량강화를 위한 “디딤돌 학습단”
	14.스스로넷 미디어스쿨	탈학교 청소년들의 세상 門 열기
	15. 마자렐로센터	십대 여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3. 모니터링의 목적 및 방법

십대 여성의 가출과 성매매, 미혼모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과 전문민간기관들이 생겨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가출과 성매매, 미혼모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십대 여성은 심리적·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학업 문제, 가정문제로 인한 지지적인 요소의 결핍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십대 여성의 복합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관들은 이들의 문제 규정에서부터 문제에 대한 개입전략, 실질적인 프로그램 실행 및 효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프로그램 결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적용과 서비스 질과 관련된 기관의 제반 요소들을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그 목적은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에서부터 성과에 이르는 일련의 요소들과 프로그램 과정이 논리적인 기반 하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요소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또 실행 상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한 수정·보완의 과학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의 제공은 자칫 공급자 중심적인 시각에 매몰되기 쉬운 기관 상황에서 실무자 자신들의 실천(practice) 과정이 프로

그럼의 목적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돕고 목적 지향적이고 과학적인 개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보급과 함께 서비스 수혜자의 성과 달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2005년부터 실시한 십대여성보호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십대 여성의 심리사회적, 경제적 자립과 성인지적 관점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련의 프로그램 과정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프로그램의 제반요소들 - 투입, 방법, 결과, 성과 - 이 논리적인 개연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2006년도 프로젝트인 십대여성보호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된 모니터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십대 여성의 심리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월별 통계와 모니터링 지표들을 통해 확인한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와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실행 평가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의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체득하고 이를 서비스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또한 십대 여성의 심리사회적·경제적 자립이라는 궁극적인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요소들을 규명하고 프로그램 표준화와 보급의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이에 따라 십대여성보호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은 크게 과정평가와 성과평가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과정평가는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본 프로젝트에서 표준화해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물과 기관 방문 시 제출된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조사, 기관 행사 및 월별 간담회 참석, 기관 최종보고서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셋째, 과정평가 중에 나타난 통계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실무자들의 욕구에 따라 모니터링 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지원으로 통계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3】 프로그램 과정 평가

목표	실시방법	실시기간	실시대상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상의 차이 모니터링	월별 서비스 통계 조사	2006. 4~2006. 12 기관별 9회	15개 기관
	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 분석	실행단계 기관별 1회	15개 기관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위한 프로그램 강점과 문제점 모니터링	실무자 대상의 프로그램 실행 과정 면접 조사	실행/종결단계 기관별 2회	15개 기관 실무자
	기관행사 방문: 4개 기관 프로그램 참관	종결단계 총 4회	4개 기관행사
	월별 기관 간담회 참석	실행단계 총 5회	15개 기관 (기관간담회는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주관함)
	기관별 최종보고서 검토	2006.12	총 15개 기관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지원	통계교육 실시	2006. 11 .24	총 10개 기관

성과평가는 목적에 따라 척도와 포커스그룹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 십대여성의 심리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성인지적 관점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성과 전문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기관별로 프로그램 특성이 상이한 현실적인 제약점이 있었고, 프로그램 내용과 척도의 적합성이 기관마다 달라 척도만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실무자와 참여자들의 자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테마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정도를 표준화된 척도를 가지고 사전·사후 비교 조사하여 서비스 전문성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자립준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전·후 비교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포커스 그룹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갖는 자립에 대한 개념 및 형태, 지원방안 등을 알아보았고 실무자 대상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면서 발생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 자립에 대한 개념 및 형태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표 1-4】 프로그램 과정 평가

목 표	실시방법	실시기간	실시대상
성인지적 정체성발달 평가	사전사후 유사실험 설계: 실무자 대상 성인지적 관점 척도사용	프로그램 실행/종결단계 기관별 2회	총 15개 기관 실무자
성인지관점 변화 평가	포커스 그룹 운영: 실무자 참여	종결단계	총 7개 기관 실무자 11명
자립수준 평가	사전사후 유사실험설계: 참여자 대상 자립 관련 척도 사용	프로그램 실행/종결단계 기관별 2회	총 15개 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자립에 대한 인식 평가	포커스 그룹 운영: 프로그램 참여 십대 여성	종결단계	총 3개 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6명

II. 십대 여성의 성인지적 자립

1. 십대여성: 호칭과 이해의 정치학

십대여성의 ‘자립’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성할 것이냐의 문제는 자립의 주체인 십대여성(혹은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긴밀히 관련이 있다.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들의 자립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립’을 재개념화 하기 전에 사실상 청소년(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십대여성”은 연령별 범주로 보면 청소년기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을 여자 청소년 혹은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여자 청소년 혹은 청소년으로 부르지 않고 “십대여성”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십대의 청소년들을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인간으로 정의하자는데 있다. 원미혜(2006)는 십대여성을 ‘십대/여성’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표기는 십대 관련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적용이 요구된다는 점과 십대 여성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표기이다. ‘십대’와 ‘여성’ 사이의 ‘/’은 여성이라는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 각각의 정체성의 범주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원미혜(2006)는 ‘십대여성’이 아니라 ‘십대/여성’을 표기함으로써 성평등이 요구되는 여성정책으로서의 십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여자 청소년을 “십대여성”으로 부르는 데는 “호칭”의 정치학이 작동한다. 누구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 힘이 실제로서 형상화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자 청소년을 “십대여성”

으로 호칭함으로써 십대 청소년이 “여성”으로 새롭게 형상화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십대여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등장과 함께 십대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은 청소년에 불과했던 여자 청소년을 “십대여성”으로 범주화하여 새롭게 이미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누군가에 대한 “호칭” 혹은 “이름 붙이기”는 사회적 힘을 발휘하며, 그로 인한 “담론”의 형성은 사회적 실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십대여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십대여성의 자립은 십대여성에 대한 “이해”와 무관할 수 없다. 십대여성을 어떻게 바라 보는가 어떤 존재로 상정하는가 하는 것은 자립의 방향과 실천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십대여성은 발달심리학에서 청소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된다. 이 설명의 틀은 현재까지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현실적 힘으로 존재한다. 즉, 십대여성은 인생의 흐름에 따른 하나의 단계로서 인생의 흐름 중 유일한 “전환기”로 상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십대여성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학교에서 일로의 전환, 의존에서 독립으로 “전환” 하려는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존재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환기적 특성 때문에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질풍노도나 인격의 분열, 정체성 혼란으로 언급되는 이 시기의 특징은 청소년기에 처한 십대여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청소년기의 십대여성을 육성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지배적 이미지를 생산하게 한다. 특히,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십대여성의 전환기적 경험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십대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경험이다.

그러나 십대여성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들이 존재한다. 우선, 같은 발달심리학내에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gender)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 성적 차이를 통해 청소년기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동일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남녀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 설명은 특히 십대여성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또한 같은 전환기를 얘기해도 전환기가 청소년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서 다수의 전환기가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청소년기를 병리와 문제의 시기로 인식하는 경향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연구를 비롯한 사회학내에서 청소년기로서의 십대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¹⁾ 이들 설명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전환기”가 아닌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사회적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개념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 여하에 따라 순환적으로 발견되고 재발견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경제가 호황일 때는 청소년기는 한가하고 탐색하는 시기로 여겨지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전환기”가 되어 많은 문제를 갖는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환기”로서의 청소년기는 시장경제체계²⁾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문제가 반드시 동반되는 문제적 시기라고 보고 있다. 둘째, 심리·생물학적 “전환기”보다는 일의 세계(사회경제적 관계와 이슈)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이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이동은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만이 아닌 직업을 갖는 것과 함께 직업적 세계 혹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십대여성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심리사회적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놀이와 학교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움직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는 기존의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이 심리사회적 전환기에만 초점을 둘 뿐 일의 세계로 옮겨가는 사회경제적 이동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 및 학교를 비난하기가 순환적이고 반복적

1) 이하 설명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인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A case study of a program for Ontario youth in transition 을 참조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기의 “전환기”적 경험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경험은 계급이나 성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하며 그것을 반영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설명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십대 여성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즉, 심리사회적 전환기임을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청소년기를 이해하는 경향을 벗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십대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낮은 자존감과 문제행동은 그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사회구조와 제도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되기도 한다.” 라든가 “청소년들의 불건강한 행동이 실제로는 건강한 것이거나 혹은 적어도 불건강한 사회상황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십대여성은 기존의 체계에 적응하고 기존의 체계를 내면화하면서 전환되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만들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전환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그들에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개념은 적응과 내면화, 사회화, 학습의 개념보다는 타협이나 논쟁, 저항 등의 개념임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2. 성인지적 관점: 원리와 적용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은 여자 청소년을 십대여성으로 재명명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즉, 십대여성이 갖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와 인간내면에 편재하는 성별 차이를 근거로 이들을 진정한 자립과 연관시키는 것이야말로 “성인

지적 자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인지적 관점은 무엇일까?

성인지적 관점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 성별 차별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공통적 부분을 갖는다. 그러나 이 양자를 포함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위상은 다소 다르다. 우선, 성인지적 관점은 성주류화와 남녀 평등 개념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남녀평등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성주류화인데, 성인지적 관점은 성주류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수단이 된다. 굳이 개념의 포함 관계를 표현하자면 ‘성인지적 관점 < 성주류화 < 남녀 평등’ 정도가 된다. 이처럼 성인지적 관점은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김인숙·정재훈·윤홍식, 2004).

성인지적 관점의 전제는 성 중립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는 마치 모든 현상에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에 “성별 차이”가 개입하고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성과 남성은 자신에게 부여된 혹은 자신이 획득한 성역할에 따라 표면적으로 보기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겪는 다른 삶의 상황에 주목하게 된다. 성인지적 관점의 또 다른 전제는 남녀의 삶의 형편과 이해관계는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점이다. 마치 동일할 것 같은 남녀간의 이해관계가 가족 내에서는 물론이고 가족 밖의 사회적 현실 속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지적 접근은 국가정책이나 일상생활 특히,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는 실천적 접근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정책이나 실천의 개입 결과도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성인지적 관점의 핵심은 남녀 사이의 조건과 존재에 “차이”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이 “차이”는 사회적 현실에서 쉽게 차별로 이어진다. 그러면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과 “존재”의 차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차이”를 만들어내는 조건과 존재의 차원을 이해하면 성인지적 관점이 포

괄하는 영역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이해는 곧바로 성인지적 실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혹은 “차이”가 작동하는 조건과 존재의 차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구조적 차원이다. 이는 사회구조 자체가 성별화 되어 있고 그러한 성별화된 구조가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분절화, 빈곤의 여성화, 여성직업의 계도화 등의 구조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 구조적 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성별 원리”가 이에 해당된다. 십대여성도 이러한 삶의 구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십대여성들과 관련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성별원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들이 십대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립 실천의 전략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 차원이다. 이는 사회정책이 남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형성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삶에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에서의 성 격리 현상, 복지국가가 특정 형태의 가족을 강화하는 현상, 복지국가가 보호자 혹은 서비스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십대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 정책적 서비스들이 어떠한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십대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착함으로써 십대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실천전략을 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관계의 차원이다. 이는 남-녀, 여-여의 관계가 가부장적, 통념적 틀 안에서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통념적 틀이 십대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십대여성의 자아인식과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의 틀이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반영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십대여성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적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상생활의 차원이다. 일상생활의 차원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일상적 행동이 특정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십대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은 이러한 평가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심리적 차원이다. 이는 동일한 사안이라도 그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험의 다름이 간과됨으로써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십대여성의 경험이 자칫 기존의 주류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남성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되어질 소지가 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의미(meaning)의 차원이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경험이라도 그 경험이 남, 여에 주는 의미가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의미부여의 차이는 간과되기 쉬운데, 성인지적 관점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그것이 십대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별 차이는 사회와 인간의 양대 스펙트럼 곳곳에서 발견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성별차이의 편재가 의미하는 바는 곧 인간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이러한 성별 차이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성인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원리와 그 방법적 적용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지적 관점의 원리를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구조와 그 작동원리는 성별화되어 있다
- (2) 성별화된 사회적 작동 원리(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경험(삶)을 다르게 구성한다
- (3)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경험은 그 경험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 (4) 여성과 남성의 자기정체성은 다르게 구성된다.
- (5) 여성과 남성의 자원(예: 몸)은 사회에서 다르게(차별적으로) 평가된다
- (6) 여성에게 있어 “권력(power)”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힘의 원천이다(권력을 재개념화함)

- (7) 여성은 특정 환경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8) 여성이 처한 현실의 의미(meaning)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불안정하며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으며, 그러한 현실의 의미는 특정의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 (9)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 (10) 심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 (11) 성차별적 남녀 고정관념을 배격한다
 - (12) 자율성과 독립성은 친밀성과 보살핌에 의한 상호의존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 (13) 여성의 삶을 내러티브와 스토리로 본다
 - (14) “과정”은 어떤 일을 가능하게하고 쉽게 만드는 힘이다
 - (15) 비합리적인 것도 유용하다
- 이상의 원리들의 방법적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 (1) 과정을 결과와 똑같이 중요하게 여긴다
- (2) 비합리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파악한다
- (3) 여성의 삶에서 친밀한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한다
- (4) 여성의 욕구와 견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5)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촉진한다
- (6) 여성친화적 문화를 만들어간다
- (7) 여성의 권리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 (8) 여성에 대한 제한에 상관없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9) 여성의 신체조건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 (10) 여성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한다
- (11)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알게 한다

- (12) 여성 자신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한다
- (13) 제도화된 성차별주의가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검토한다
- (14) 여성의 능력개발에 장애가 되는 물질적, 이념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과 기법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 (15) 무엇이 여성을 희생화시키(victimization)는지를 검토하고,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blaming the victims)하는 것을 중지한다.
- (16) 여성의 삶을 스스로 돌보도록 권장하게 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지향한다
- (17) 여성의 권력이 양도된 과정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지향한다
- (18) 자신과 주변에 대해 현재 사용하는 혹은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재명명한다
- (19) 전통적인 성역할을 의심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양성적인 성역할 레퍼토리를 개발하도록 지지한다)
- (20) 여성의 “문제” 보다는 “강점”을 찾아내어 개발한다 (여성의 경험과 특성 자체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
- (21)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한다
- (22) 여성에게 있어 “일(직업)”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일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잡도록 한다
- (23) 주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잠재력을 끌어내고 극대화한다
- (24) 여성이 가진 자산-양육성, 민감성, 관계의 강조-을 귀히 여기고 여기에다 좀더 공격적이고 좀 더 자기주장적인 특성을 통합시킨다.
- (25) 여성을 그녀의 내러티브와 스토리에 주목하여 이해한다

3. 자립의 개념: 개인화된 자립의 과정

“자립”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그 스펙트럼이 그리 넓지 않다. 학자마다 자립 개념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폭은 비교적 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립의 개념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속의 의미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연계를 가지는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Maluccio, 1990)”이다. 이는 개별적인 독립이라는 의미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

자립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독립성을 말한다. 나아가 자신의 대한 적절한 통제 를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립의 개념은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는 경제적인 자조부터 정서와 심리적인 독립 까지 포함한다. 자립의 핵심은 개인의 자립으로서 ‘일’ 과 사회적 협력을 갖는 ‘의식’이다. 그동안 경제적인 관점과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자립의 원초적 수단으로서 일의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기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에는 개인적인 수준의 요소가 아니라 사회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의식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과 윤리이다. 결국 자립은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일을 처리해 나가며 이로써 만족을 느껴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신인 동시에 실천적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노혁, 2002).

자립의 개념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자립준비” 개념이다. 자립준비는 두가지 차원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사회적 독립을 위한 영역으로 자원의 습득, 이용, 그

리고 자원의 할당을 위한 것으로 교육, 직업, 직업조사, 주택, 그리고 소비자로서 기술영역이 포함되는 주위자원들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유형의 자원관리기술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심리적 독립을 위한 기본적 능력으로서 일상생활기술과 책임감, 계획능력, 대인관계기술을 중심으로 한 무형의 자기관리기술(Cook, 1986; Maluccio, 1990)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자립과 자립준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기술”이다. 즉, 자립준비는 “기술” 특히, 생활기술을 준비시킴으로써 획득될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립 개념 논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립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원관리기술능력, 무형의 자기관리능력이 요구되며, 유능감, 친구와 친족들과 상호작용, 자녀양육능력, 성에 대한 책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 중요한 연계 만들기, 일상생활기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등의 상호의존적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요구된다(Mech, 1994).

이와 같은 자립 개념의 설정은 사실상 몇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자립의 목적과 수단 간의 괴리이다. 독립을 위한 준비로 간주되는 자립의 목적이 경제, 사회, 심리적 독립으로 언급되지만 자립준비의 상당 부분이 기술의 훈련을 통한 준비, 생활기술의 숙련화, 이해(인식)을 통한 성장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자립 측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국의 위탁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인 Casey Family Program을 평가하기 위한 Ansell-Casey Life Skill Assessment (ACLSA)를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6개 영역 총 1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영역은 아래와 같다.

- (1) 일상생활기술
- (2) 주거 및 지역 자원 관리
- (3) 돈관리

- (4) 자기보호
- (5) 사회적 발달
- (6) 일, 공부 습관

이외에 미국의 DHSS(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에서도 자립준비에 필요한 자립기술의 하위영역을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기술, 진로(직장문제)기술, 돈관리 기술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자조집단 및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그리고 자아향상 및 자립심 강화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노충래, 2001 재인용).

- (1)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 (2) 진로탐색, 직업훈련, 직장의 배치 및 직장유지에 관련한 서비스
- (3) 일상생활기술훈련, 가계예산 및 재정관리 기술서비스
- (4) 약물남용 예방관련 서비스
- (5) 예방의학 관련 서비스 (예, 흡연, 영양교육, 임신예방 서비스)
- (6) 교육서비스 (예, 청소년의 출석확인, 성적관리)
- (7) 직업훈련 및 구직서비스
- (8) 고등교육을 위한 준비 및 교육(대학교육)
- (9) mentor 및 성인과의 교류를 위한 서비스
- (10) 재정, 주택, 상담, 구직, 교육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전에 아동시설에 있었던 만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제공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립 개념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상당부분 적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존 십대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나타난

자립은 다소 편차와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십대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비난이 전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출이나 학업중단과 같은 “특수” 십대여성은 암묵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문제 교정에 관심을 갖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십대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사실상 그녀가 가진 여러 측면 중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생활기술 및 사회적 기술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과 자기표현, 대인관계 향상, 진로탐색, 갈등해결능력 함양, 관계능력 키우기 등이 그것이다. 이 점은 앞서 언급했던 자립에 관한 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립과 이들 기술의 함양을 등치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심리적 기능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내면세계에 대한 인식과 조화, 긍정적 자아개념, 자기신뢰감, 자율성과 책임감, 자아발견, 바람직한 가치관과 정체감 형성, 심성수련, 성격변화, 내적 힘을 기르기, 자아성취감 등이 주된 자립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다섯째, “관리” 기술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공부습관의 관리, 돈관리, 각종 자원 관리(식사준비, 청소, 취업면접법, 대화유지방법, 자원습득 방법 등)를 강조하고 있는데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실천가들의 언급에서도 상당부분 드러났다(실천가들과 자립에 관한 포커스 그룹의 결과). 실천가들은 자립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로 “일상생활 기술”, “자기관리”, “생활관리”, “의사소통”,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힘”, “주변인과의 관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단일의 용어로만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았고, 여기에 여러 다양한 줄기들을 결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자립을 단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자립을 고려하는데 있어 시간(time)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실천가들은 자립을 “단계”로 보고 있었다. 즉, “단계로서의 자립”인 셈이다. 자립의 단계는 생활행동에 대한 교육-->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사회적 현실에 맞부딪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적응력 혹은 방어력을 키우는 것으로 얘기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자립의 최고 목표는 “사회인으로서의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집을 마련해 주고 직장을 갖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립은 긴 시간이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십대여성의 자립은 그 개념은 물론 프로그램의 패러다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아직 구축의 초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 패러다임이 갖는 장점과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토대로 십대여성을 위한 새로운 자립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립 개념과 자립의 프로그램의 실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 프로그램 실제의 현실적, 사회적 맥락의 차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의 자립 개념과 틀이 지나치게 개인화된 자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즉, 개인화된 자립의 과잉은 좀더 균형잡힌 개념으로 구축되고 그것이 실천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테마 프로젝트는 이러한 자립 개념과 패러다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십대 여성의 성인지적 자립

“십대여성의 성인지적 자립”이란 십대여성이 자립을 이루어나기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이들 여성에 진정한 자립을 촉진할 수 있고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십대여성의 성인지적 자립에서 “자립”은 목표가 되고 “성인지적”은 자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지적 전략을 자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중립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전제로부터 나온다. 성중립적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십대여성의 자립은 성인지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십대여성의 자립에서 “성인지적” 관점은 단순한 수단 혹은 전략에 그치지 않는다.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은 십대여성의 자립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게 되면 십대여성의 자립 개념이 기존의 자립 개념을 넘어서 다시 재구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성인지적 관점과 자립의 개념이 결합, 접합되면서 기존의 “기술”과 “관리” 중심의 자립 개념을 넘어 좀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자립개념이 구축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과 기존의 자립 개념간의 충돌지점을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지적 자립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진행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막 십대여성의 자립의 틀을 구축하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자립의 개념이 십대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인구층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을 감안하면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성인지적 자립”에 대한 노력은 현장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을 실천에 적용하려는 실천가들에게도 큰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Ⅲ. 단위사업 기관최종보고 및 모니터링 평가

1. 구세군서울여자관

1) 기관소개

구세군서울여자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복지시설로, 1926년 6월 21일 출발하여 1962년 5월 22일에 정부로부터 시설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미혼모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냉대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미혼모 여성들에게 산전후의 안식처와 출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교육, 교양교육, 정서교육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혼모 여성들이 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기관리방법을 터득하여 주체적인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원만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구세군서울여자관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1】 구세군서울여자관 사업 개요

프로 그램명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심성훈련 프로그램)
목적	목표 1 : 자아 발견

및 목표	<p>세부목표 1) 자기의 생각, 느낌, 행동, 능력 등의 특징에 눈뜨게 한다. 2)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3) 잠재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자신을 재발견하여 수용, 개발한다. 4) 자신의 귀한 품성을 발견하여 독자성과 자율성을 성장시킨다. 5) 자신의 경험에서의 개방성을 넓히고 자신의 지각과 경험의 불일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p>목표 2 : 타인 이해</p> <p>세부목표 1) 타인을 신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다. 2)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공감의 폭을 넓힌다. 3)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른 독자적인 존재임을 수용하게 한다.</p> <p>목표 3 : 관계 개선</p> <p>세부목표 1) 자기와 타인의 관계, 의사소통, 집단의 형성과 발전 등에 관심을 갖게 한다. 2)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3) 자기표현의 유연성과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는 태도를 기른다. 4) 서로 신뢰하고 협동하며 상호간의 관계를 좋게 한다. 5) 진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수용적 자세를 갖게 한다.</p> <p>목표 4 : 행동 변화</p> <p>세부목표 1)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게 되므로 자기 성장 의욕이 일어나 자아 실현의 동기가 높아진다. 2) 협동하며, 규범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다. 3) 개방적인 사회성이 발달하여 친숙한 대인관계가 형성된다. 4) 바람직한 가치관과 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5)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p> <p>목표 5 : 공동체 형성</p> <p>세부목표 1) 공동체의 일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진정한 협동을 이루게 한다. 2) 인간은 누구나 생김새, 성격, 가치관, 자라온 환경이나 현재의 환경 조건 등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되 존재 그 자체로서도 이미 존귀하고 그 가치가 있으며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p>
---------	--

	3) 자신의 정체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것도 소중하기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원이 새로운 공동목표에 도전하여 생산적 결과를 성취해낼 수 있고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기간	2006년 3월 1일 ~ 2006년 11월 30일
대상 및 인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출산 전·후의 미혼모 45명
예산 및 결산	8,000,000원/8,00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구세군서울여자관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 구세군서울여자관 사업진행 일정

기수	일 정	참여인원	회기별 진행사항	비 고
1기	3/21-3/30	7명	1회 : 오리엔테이션(자기소개, 별칭짓기) 2-4회 : 공예체험 5-7회 : 심성수련 8회 : 마무리(톨링페이퍼, 에코그림)	공예, 심성수련강사 활용
2기	4/21-5/3	5명		
3기	6/19-6/28	7명		
4기	7/24-8/3	5명		
5기	9/15-9/27	7명		

6기	10/20-10/31	7명	
7기	11/13-11/23	7명	

(2) 사업결과

구세군서울여자관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 구세군서울여자관 사업 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공예체험	1기에 3회(도자기공예, 종이공예, 섬유공예)진행으로 8기 총 24회로 계획.	8기 총 24회 진행에서 1기가 축소되어 7기 총 21회 진행.	대상인원의 미달로 축소됨
심성수련	1기에 3회 진행으로 8기 총 24회로 계획.	8기 총 24회 진행에서 1기가 축소되어 7기 총 21회로 6회 진행.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1기~4기는 불안감 척도를 통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5기~7기는 자아존중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와 t-test를 통해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각각 4점 척도)

결과를 보면 1기~4기는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1기는 0.155 감소하였고, 2기는 0.266 감소하였으며 3기는 0.147 감소하여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안감 평균치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4기는 사전과 사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5기~7기는 자아존중감 척도로 실시하였다. 5기는 0.088 증가하였고 6기는 0.293 증가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아존중감 평균치수가 높아졌다. 7기는 오히려 0.040 감소하였으나 미세한 차이였다.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만족도(5점 척도)에서는 공예체험(전체평균 4.14), 마무리/평가(4.12), 심성훈련(3.93), 오리엔테이션(3.7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만족도는 장소 및 기자재(3.96), 프로그램 진행자(3.86), 프로그램(3.82), 기타(3.64) 순으로 나타났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7기(각 8회기)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공예체험과 심성수련이 기마다 각각 3회기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진행 후 만족도 조사 결과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공예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야 했던 심성수련은 만족도가 점차 낮아졌고 프로그램 진행시 반응도 점점 냉정해졌다.

공예체험 프로그램에서는 도자기공예와 종이공예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평상시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점토를 이용하여 도자기제품(육실용품, 컵, 주전자와 잔, 조형물 등)을 만들면서 공예 강사로부터 개별적인 지도를 받는 분위기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만족도가 높았던 듯 하다.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속도가 유난히 늦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참여자는 공예 강사의 도움을 받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종이공예에서는 초기(1기, 2기, 3기)에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이용한 시계를 만들었으나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여름에 진행되었던 4기 때는 한지를 이용한 부채를 만들어 참여자들이 직접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이었고 5기, 6기에는 생활소품으로 한지 과반을 만들었으며 마지막 7기에는 한지보석함을 만들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섬유공예 시간에는 흰색 티셔츠에 홀치기 나염과 염색물감, 유성 펜, 염색반짝이풀을 이용한 손수건꾸미기로 진행하였으며 후기에 접어들면서 방법을 전환하여 희망하는 참여자에 한해 손수건에 나염을 하거나 물감을 이용하여 티셔츠를 꾸미면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심성수련을 통하여 자아발견, 타인이해, 관계개선, 행동변화, 공동체형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나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기에는 3회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 무리가 있었던 듯 하였고 원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생활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꺼려하는 참여자들이 있었기에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간단한 소감나누기를 하였는데 자신이 참여하였던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였던 참여자들이 많았다.

한 기수에 공예체험 3회와 심성수련 3회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애초에 중점을 두었던 심성수련은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한 반면 오히려 공예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만족도도 높았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표출해야하는 진지한 프로그램인 심성수련보다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소품이지만 작품을 만들며 즐겁게 참여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공예체험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았던 듯 하다.

1기부터 4기까지는 불안감 척도를 통한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팀과의 면담을 통해 5기부터는 자아존중감 척도로 바꾸어 실시하였는데, 단기 프로그램이어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는 별다른 큰 차이가 없었다.

매 기마다 각각 3회기로 공예체험과 심성수련을 진행하여 보다 좋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미혼으로서 계획하지 못하였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상처

받고 닫혀 있는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한 심성수련은 3회기로는 너무 짧았던 듯하며 단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심성수련과 공예체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했던 담당자의 욕심이 컸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2) 향후 계획

심성수련프로그램은 다른 참여자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야함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였던 반면, 공예체험은 프로그램은 자체를 즐기는 분위기였고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매 기마다 각각 3회기로 공예체험과 심성수련을 진행하여 보다 좋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마음을 여는 과정이 필요한 심성수련은 3회로는 너무 짧았던 듯하며, 차후 테마프로젝트 계획시 두 분야의 프로그램을 같은 기에 진행하기보다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공예체험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대상 인원

프로그램 대상 인원(7명)이 채워지지 않아 프로그램 실시가 다소 늦어졌다. 장기 입소생이 많아서 새로운 입소자가 없고, 미혼모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상연령(10대에서 만24세까지의 연령)제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전체 8기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모니터링팀에서는 현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으면서 심성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은 부족하므로 프로그램 축소보다는 기존 구성원에 대한 심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연령의 입소자 인원이 부족하다면 나이 제한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기출산으로 인한 퇴소 등의 문제로 심화과정도 인원충원이 안되어서 결국 원래대로 진행하되 시간을 두고 인원이 차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였다.

② 프로그램 목표

사업의 목표가 자아발견, 타인이해, 관계개선, 행동변화, 공동체 형성 총 5개이고 각각의 세부목표가 3-5개로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 목표가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2-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조언하였다.

③ 평가 척도

평가방법으로 불안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프로그램 효과성을 제시하는데 적합하지 않아 불안감척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인별 면담에서 목표에 대한 2-3가지 질문을 가지고 변화를 체크하는 방법과 관찰일지 작성을 통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척도로 바꿀 경우 척도집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척도를 알아보도록 하였고 자아존중감척도가 불안감 척도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5기부터 자아존중감 척도로 바꾸어 시행하면서 프로그램 평가서에 5가지 목표에 대한 설문내용을 추가하였다.

(2) 총평

① 목적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운영 요청

미혼모들의 자신감 회복과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목적에 비해 실제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과 평가시간을 빼면 심성수련 프로그램이 3회 공예체험이 3회로 되어있어 심성수련 프로그램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또한 심성수련프로그램과 같은 집단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시간이 갈수록 공예프로그램보다 떨어지고 오히려 공예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참여자의 특성과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② 실무자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열의

올해 새로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실무자는 선임 직원이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있어 자원동원을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적극성과 통계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 등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팀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보완하려는 모습과 참여자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2. 꿈틀학교

1) 기관소개

꿈틀학교는 2002년 5월 대학로에 문을 연 도시형, 비기숙형,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17세에서 19세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작은 학교로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담아내기 위하여 일반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다. ‘꿈틀’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청소년들이 자기 안의 꿈틀거림을 발견하는 자기 이해와 잠재력 발견의 단계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꿈틀거리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단계를 거치고, 자신의 꿈의 틀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설계 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트게 하도록 하자는 교육목표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아존중감 회복, 체험과 개별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능의 습득 자체보다는 건강한 직업인들을 모델로 하여 스스로 건강함을 되찾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찾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꿈틀학교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4】 꿈틀학교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WHY NOT, 꿈틀ING~~ (학업중단청소년의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목적 :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 긍정적 사고와 의사소통방법을 배우고,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의욕, 활력, 생명력을 되찾고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여 사회적응력을 향상하도록 한다.

	<p>목표 1 :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욕구를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p> <p>목표 2 : 자유로운 표현(언어영역, 표현예술영역)을 통해 내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며 공동작업을 통해 서로 간에 마음의 교류와 집단역동을 형성한다.</p> <p>목표 3 : 그 동안 배우고 나누었던 것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내면화시킴으로써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한다.</p> <p>목표 4 : 배움의 과정을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내면의 성장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적극성을 회복하도록 하며 축제의장을 통하여 가족과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 맺기를 시작하도록 한다.</p>
기간	2006년 3월 -12월
대상 및 인원	참여인원 : 27명 (꿈틀학교 재학생, 17~20세)
예산 및 결산	8,000,000원/8,00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꿈틀학교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5】 꿈틀학교 사업진행 일정

기간 내용		방학	계절학기		1학기				방학	2학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기 표현	언어 영역	사회 탐구			○ 준비	○	○	○	○	○ 준비	○	○	○	○
		스토리 텔링			○ 준비	○	○	○	○	○ 준비	○	○	○	○
	표현 예술 매체 영역	소리와 몸짓			○ 준비	○	○	○	○	○ 준비	○	○	○	○
		미디어								○ 준비	○	○	○	○
		연극 만들기								○ 준비	○	○	○	○
	축제												○ 준비	○
평가					○	○	○	○	○	○	○	○	○	

(2) 사업 결과

꿈틀학교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꿈틀학교 사업 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 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자기 표현 · 언어 영역 · 사회 탐구	1. 진행방법 - 주1회 90분(총24회) - 강의 및 자료 읽고 토론 및 현장학습으로 진행 - 주제에 따라 힌트제시, 찢어보기, 따져보기, 진실찾기, 뒤집어보기, 토론 등 순서로 진행 - 전문강사가 진행하며 다양한 참고자료 활용 2. 주요내용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란 무엇인가, 전쟁과 평화, 사회란 무엇인가, 우리 속의 타인, 한일 관계사, 탈북청소년과 통일 등	○ 인권수업(1학기) - 회당 90분 / 총 12회 수업 - 강의·토론 수업 9회와 야외수업 3회 진행 - 내용: 인권이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문제와 지구촌 시민. 성적 소수자란 누구인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장애를 보는 시각의 장애 벗기. 서대문형무소 방문. 남영동 인권센터 방문 등. ○ 역사수업(2학기) - 회당 120분 / 총 11회 수업 - 강의·토론 수업 9회와 야외수업 2회 진행 - 내용 : 국가의 탄생과정, 역사를 보는 관점, 서양 그림속의 여성, 유물로 본 역사, 덕수궁 답사 등	* 전체를 토론 수업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기획단계에서 방향을 바꿈. 심도있는 수업을 위해 크게 인권과 역사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누어 실시함.
자기 표현 · 사회	1. 진행방법 - 주1회 90분(총24회) - 프린트자료 읽기, 이야기 나누기, 동영상	○ 1학기 - 회당90분 12회 수업 (1,2학년 분반) - 1학년 내용: 독서준비도 검사, 소중한 가족, 양성평등, 사랑에 대하여, 영화	* 대상자들의 인지능력이 너무 다양하여 읽고 쓰고 이야기하는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기초적인 글 읽고 쓰는

<p>탐구</p> <p>스토리텔</p>	<p>상자료감상, 책읽기 워크샵</p> <p>2. 주요내용</p> <p>이야기란, 문학과 영화, 캐릭터, 은유란 무엇인가</p>	<p>이야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년 내용: 나에게 직업의 의미는?, 나의 30대의 이력서 쓰기, 외모지상주의, 소비의 사회화, 폭력의 다양한 모습 등 <p>o 2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90분 11회 2단위 수업 - 내용(읽고 쓰기): 원고지 사용법 익히기, 수수께끼로 하는 글쓰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의 틀 깨기, 일년 동안 나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글쓰기 등 - 내용(읽고 말하기): 삶을 맞이하는 자세, 창의적 생각, 여성의 주체적 성 인식, 과학의 발전과 우리의 태도 등 	<p>수업을 별도로 진행함.</p> <p>* 1학기는 학년별 분반을 하여 진행을 하였고, 2학기는 비중을 더 두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주일에 두 단위 수업으로 수업시간을 늘려서 진행을 함.</p> <p>* 전체적으로 계획과 다르게 수업 내용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주제를 나, 여성, 가족에 두기로 함에 따라 변경된 것임.</p>
<p>자기표현</p> <p>표현예술창작</p> <p>소리와 몸짓</p>	<p>1. 진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120분(총24회) - 연주 위주로 수업을 하며 개인별 연습, 모듬별 연습, 전체 연습의 과정으로 완성을 해가며 리듬을 배우고 만들고 몸짓을 부여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1) 플스틸 쟁반, 패트병, 대형쓰레기통 등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소품을 이용해 	<p>o 1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120분 총 13회 수업 - 플스틸과 북소리 작품 익히기 - 내용: 우리나라와 서양의 4비트 기본 익히기, 플스틸 가락을 익히기, 북소리 호흡 익히기, 북소리 자진 모리 구음 익히기, 플스틸 악기 만들기 워크샵 등 <p>o 2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120분 총 12회 수업 - 창작판굿 구성하고 익히기 - 내용: 풍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휘모리 장단과 문굿 익히기, 판굿에 쓰 	<p>*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기본 수업은 계획과 같이 진행을 하였고 그 외에 2박3일 워크샵을 추가로 기획하여 심화수업을 함. 또한 공연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도록 섭외하여 축제 전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경험함.</p>

	<p>악기를 만들고 연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2) 복소리 <p>전통북가락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 연주한다.</p>	<p>이는 호흡법을 익히고 악기와 함께 연주하기, 중모리 장단과 함께 노래 굿 연주, 판굿의 명석말이와 짝쇠를 연결해서 연주, 북춤기본연습 등</p>	
<p>자기 표현</p> <p>표현 예술 창작 영역</p> <p>미디어</p>	<p>1. 진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120분(총12회) - 스토리보드의 구성 <p>- 사진, 그림, 플래시 등의 작업을 구성하여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와 관련된 음성을 녹음하여 첨부하여 완성 -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면서 피드백 	<p>o 2학기 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120분 총 12회 수업 - 내용: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정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기법 익히기,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법 이해, 칼라믹스로 캐릭터 제작해보기, 포토샵 배우기, 캐릭터 작업 등 	<p>* 전체 인원이 함께 하기에는 학교의 컴퓨터 상황이 좋지 않아 수업의 기획단계에서 걱정을 하여 플래쉬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방법, 사진을 찍어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고 팀작업을 일부 하도록 함.</p> <p>* 개별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수업이어서 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을 실시함.</p>
<p>자기 표현/</p> <p>표현 예술 창작 영역/</p> <p>연극 만들기</p>	<p>1. 진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회 120분(총12회) - 워밍업->본극->느낌 나누기 단계로 진행하며 개인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상황을 제공하여 갈등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서로의 도움으로 찾아나갈도록 한다. 	<p>o 2학기 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당 120분 총 15회 수업 (수업외 연습은 별도임) - 본격적인 연극만들기 작업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로 구성하고 장면을 짜나가면서 극을 완성하는 연극놀이 기법을 사용 - 내용: 연극주제잡기, 지하철 이미지를 장면으로 만들기, 갈등장면 연습,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들 장면 연습, 대사 정리, 움직임과 시선 연습 등 	<p>* 축제 때 발표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는 것이 12월에 들어와서는 매일 연습을 하고 수업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늘려 실시함.</p>

축 제	<p>1. 행사개요</p> <p>1) 일시 및 장소</p> <p>- 일시: 2006년 12월 14일 저녁 7시</p> <p>- 장소 : 미정</p> <p>2) 대상 및 인원</p> <p>- 가족, 후원자, 자원 교사, 다른 학교 학생들, 교사들, 친구들, 관련기관 담당자 등 150명</p> <p>3) 주요 내용</p> <p>① 자기성장 보고발표</p> <p>② 그동안 배운 것들을 공연형식으로 발표</p> <p>③ 전시 및 다과</p>	<p>1. 행사개요</p> <p>1) 일시 및 장소</p> <p>- 일시: 2006년 12월 18일 저녁 7시</p> <p>- 장소: 사다리 아트센터 동그라미 소극장</p> <p>2) 참석자</p> <p>학부모, 졸업생, 자원교사, 후원자, 이사, 타학교 및 네트워크 기관 등 150여명</p> <p>3) 주요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563 770 956 1055"> <thead> <tr> <th data-bbox="563 770 596 824">구분</th> <th data-bbox="596 770 956 824">주 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63 824 596 913">part1.</td> <td data-bbox="596 824 956 913">공연: 일 년 동안 배운 것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을 한편의 이어지는 공연으로 담아냄</td> </tr> <tr> <td data-bbox="563 913 596 1003">part2.</td> <td data-bbox="596 913 956 1003">성장보고: 영상과 음악, 이야기로 꾸미는 우리들의 성장기 발표와 참여한 사람들과의 나눔</td> </tr> <tr> <td data-bbox="563 1003 596 1055">part3.</td> <td data-bbox="596 1003 956 1055">감사</td> </tr> </tbody> </table> <p>4) 세부내용</p> <p>- 공연: 판굿, 연극, 합창, 플스틸, 북, 밸리댄스, 아카펠라, 노래</p> <p>- 보고: 성장보고서, 수업발표, 인턴쉽</p> <p>- 영상: 일년 전체영상, 여행영상, 동북아영상, 애니메이션 완성작품, 졸업생 인터뷰</p> <p>- 전시: 타임캡슐, 자기성장사진</p> <p>- 자료집: 일년간의 수업클 모음</p>	구분	주 제	part1.	공연: 일 년 동안 배운 것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을 한편의 이어지는 공연으로 담아냄	part2.	성장보고: 영상과 음악, 이야기로 꾸미는 우리들의 성장기 발표와 참여한 사람들과의 나눔	part3.	감사	
구분	주 제										
part1.	공연: 일 년 동안 배운 것을 중심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내용을 한편의 이어지는 공연으로 담아냄										
part2.	성장보고: 영상과 음악, 이야기로 꾸미는 우리들의 성장기 발표와 참여한 사람들과의 나눔										
part3.	감사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설문에 의하면 (1~5중 5가 최고 점수임), 1학기

에 실시한 프로그램은 사회탐구 인권 4.5, 스토리텔링은 3.6으로 평가되었고, 2학기에 실시한 프로그램은 축제 4.8, 소리와 몸짓 4.7, 스토리텔링 4.3, 연극만들기 4.3, 미디어 애니메이션 4.1, 사회탐구 역사 3.8로 전체 프로그램 평균은 4.3이었다. 가장 점수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축제로 4.8점이었는데 이것은 스스로 기획하고 모든 내용을 학생들이 정해 나간 점,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참여했던 점, 무대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보는 경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본다. 또한 소리와 몸짓 프로그램도 단순히 수업에만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의 외부공연과 심화 워크샵을 했던 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스토리텔링은 1학기 3.6보다 2학기 4.3으로 더 높은 평가를 했는데, 이는 단위수를 늘리고 좀 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출석률이 높았다. 그러나 도움이 된 프로그램과 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꼭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개별적 흥미와 함께 하는 즐거움에 더 높은 평가를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높은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전체 사업이 목적과 목표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본다. 기획단계에서 고려된 것과 실행을 하면서 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진행한 것이 어우러져 목표 달성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소리와 몸짓의 판굿 워크샵, 외부 초청공연 참여, 축제의 내용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고 스스로

기획· 준비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세부 프로그램별로 전문적인 강사 섭외와 야외활동의 진행 또한 전체 테마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① 사회탐구

1학기과 2학기과 나누어서 인권과 역사 두가지로 주제를 축소한 것이 그래도 한 주제를 조금 깊이 다룰 수 있도록 하기도 했지만, 역사 수업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제를 축소하여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역사수업을 통하여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에 많이 근접하였다. 현장방문을 기획했던 것보다 적게 간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내부 수업에 충실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학생들의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던 초기의 의도는 조금은 학생들의 인지수준의 차이와 수업 방식의 낯설음으로 의도한 대로 풀려 나가지 않는 듯해 보이기도 했으나, 중반에 들어서면서 집중력과 느낌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의 매체(사진, 음악 등)를 통해 스스로 역사를 외우지 않고 느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인해 나갔다.

인권수업은 다양한 외부 강사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었고 서대문형무소, 인권센터 방문을 통해 인권침해를 몸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였다. 평소에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게 된 것도 커다란 수업의 성과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② 스토리텔링

1학기 스토리텔링 수업은 책과 자료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글과 토론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1, 2학년 분반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보인 것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는데, 자신감 없어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칭찬에 커다란 기

뿔을 표시했다. 가치사전을 만드는 과정도 아이들에게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가치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나하나 개념을 만들고 해석을 하고 책으로 만드는 과정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자연스런 계기가 되어서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양성평등과 사랑법은 1,2학년 합반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구체화된 지표나 다양한 실례를 통해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활성화된 토론을 보여주었고 실생활에 대한 자신의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2학년 수업은 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하여 폭력, 소비, 외모 등의 다양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자신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학기 읽고 쓰기 수업은 짧은 글을 읽거나 자료영상을 보고 하는 수업보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주된 수업이라 활기참은 다소 부족했지만, 자신의 삶과 이웃과 사회를 들여다보는 글쓰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읽고 말하기 수업은 젠더로서의 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내용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를 다루는 등의 소재 선택이 아이들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

③ 소리와 몸짓

기획 당시부터 학생들이 흥미를 많이 보였던 수업이기도 했지만 수업과 더불어 외부 공연을 섭외하여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한 것이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준 것 같고, 그로 인해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2박3일 동안의 집중 워크숍을 통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공연하는 등 수업에 긴장감을 주고 심화하여 진행 한 것이 학생들이 이 수업에 더 빠져들게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음 해에는 가까운 곳 뿐 아니라 지방으로 여행을 다니며 길거리 공연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나 뿔의 맛을 알게 된 것 같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공연하는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 같다.

④ 미디어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개별 작품을 제작해보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전과 달리 페이퍼애니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초반에는 애니메이션이 낯설어서인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아이들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작업한 것이 편집되는 과정을 보면서 창작과 표현의 묘미를 맛보게 되었다. 수업시간 중에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흔히 접할 수 없는 영상을 통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폭넓은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각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게 작품을 완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⑤ 연극

1학기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2학기에는 본격적인 연극 만들기를 하기로 계획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1학기에 사용한 매체는 인형, 사진, 음악이었는데,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보다 편안히 여겨서인지 흥미롭게 즐겁게 참여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장면을 만들고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었다. 2학기에는 직접 우리들의 이야기로 연극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졌다. 연극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담으며 워밍업을 하도록 했지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의 연극으로 연결짓고 의미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연습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가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인물이 되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차츰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서로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힘이 되어주는 분위기가 되었고 계속되는 연습 속에서 우리들의 연극으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⑥ 축제

서로 다른 아이들이 모여서 그 특성과 장점들을 모아 하나가 되어 작품을 발표

하는 축제를 열었다. 자기의 방식으로 발표를 하되 느낌이 있는 발표, 진심이 있는 발표가 되도록 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고 그것이 축제의 자리에서 충분히 잘 보여졌다는 생각이 든다.

각자 역할(홍보, 전시, 공연준비 등)을 맡아서 홍보자료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오신 분들께 드릴 선물을 만들고, 전시 판넬을 준비 등 아이들이 공연 준비와 발표 준비를 모두 하였다. 축제 3일전쯤엔 아이들이 지쳐서 축제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했고 왜 이렇게 바빠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어 일을 하는 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잘난 열 명보다 열심히 하는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 내 이야기를 담아내면 감동이 있다는 것, 배운 것을 발표하면서 다시 배우는 것 등등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녀를 보면서 소통의 벽이 낮아졌을 것이고 그에 힘입어 아이들도 가족과 나아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참여자의 서술적 평가

① 자기표현에 대한 평가

참여자들이 자기표현 영역에 대해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7】 꿈틀학교 사업 참여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서술적 평가

과 목	내 용
사회	·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느낌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다. · 호기심과 흥미가 생겼다. · 옛날의 생활, 느낌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다.
스토리 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평등 미래세계 등에 대해 미리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성에 대해 다시 알았고 아름답다는 것도 알았다. · 글쓰는 법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말로 표현하는 것도 해봤다. · 느낌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소리와 몸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을 통해 자신감과 재미를 얻고 수업외의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았다. · 한 박자씩 늦긴 하지만 자신감이 생겼다. · 다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았다. · 여러 악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책임감, 협동심, 내 안의 끼를 발견하였다. · 내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두가 안 났었는데 어떻게든 완성이 되었다. · 직접 내가 만드는 이런 기회가 오다니 신기했다. · 직접 만들어 보니 매일 보던 애니메이션이 새로워 보인다. · 그림을 그리고 스토리도 짜보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 관심은 별로였는데 그려보고 하면서 즐거웠다.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을 제대로 맛본 느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내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서 너무 좋았다. · 놀이 방식의 수업이 좋았고 나 자신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

· 재밌게 연극을 배워 보았고 상상력을 키워주었다.

② 축제에 대한 평가

참여자들이 축제에 대해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8】 꿈틀학교 사업 참여자의 축제에 대한 서술적 평가

항 목	내 용
가장 즐거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리고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큰 실수 없이 잘 해낸 점 · 연극할 때 많은 사람이 즐겁게 봐준 것 · 내 발표에 반응을 해 주었을 때 · 축제 직전 모두 모여 파이팅을 외친 것
준비과정 중 기억에 남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망간다던 아이들도 한번도 튀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어서 고맙다. · 의견조율, 함께한 노력 이런 것들 잊지 못할 순간들이다. · 판국이 한번에 너무 잘 맞았을 때. · 개사하던 날.
가장 힘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끊임없는 연습에 따르지 못하는 몸. · 갈등의 심리상태. · 생각을 해야 하고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 · 의견충돌, 마음이 맞지 않아 짜증 부릴 때. · 준비가 덜 되었다는 불안함, 리허설을 못했다는 불안함. · 해도 해도 할 일이 많았던 것. · 여러 사람이 되어 느낌을 살리는 것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의 행복한 마무리. 자신감을 얻었다. · 많은 사람 앞에 서 봐서 부끄러움, 창피함이 많이 없어졌다. · 의지와 끈기, 작은 역할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서로 안 되는 건 채워주고 잘하는 건 응원해주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에게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틀은 역시 멋있다. 자신감, 기쁨, 즐거움. 내가 1년 동안 배운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

는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우리끼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일 년의 마무리와 함께 무엇인가 준비해서 보여주기. · 우리의 생활, 꿈을 알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리. 용기.
------	---

(3) 향후 계획

단위 수업에서는 스토리텔링은 지속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가면서 개별적인 학생의 기록을 모아서 성장이 보이는 자료집 만들도록 하고, 탐구는 과학탐구로 생명과 환경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어 볼 예정이다. 연극만들기는 마임형태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소리와 몸짓은 일상적인 수업 외에 워크샵 비중을 늘려 집중수업으로, 미디어 수업은 영화나 사진 등의 다른 미디어 매체를 접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 했던 길거리 공연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나아가 공연여행을 기획해 보고자하며, 흥미 분야와 개별 진로 분야와 접목되는 부분을 찾아서 개인프로젝트와 팀프로젝트를 특화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평가 척도

사후검사로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하나 학생들의 성의없는 응답(모든 항목의 응답을 다 좋은 쪽으로 체크하는 것)때문에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다. 모니터링 팀에서는 이러한 측정오류는 양적연구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사전·사후검사의 보완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만족도 검사로도 효

과성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과 너무 많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당자의 관찰과 교사의 일지 그리고 참가자의 기록물 등을 통해 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② 혼성집단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수업시간에 성인지적 관점을 어떻게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특히 혼성 집단에서 남학생이 역차별을 호소하는 것)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전제나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성인지적 관점을 인권의 차원에서부터 설명하는 것, 즉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보편적인 여성의 차별을 얘기하는 것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 총평

① 프로그램의 체계화

학교 고유의 관점과 접근방법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테마프로젝트 프로그램도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으면서 이러한 관점과 접근방법이 잘 접합되었다. 특히 소비자 중심의 접근태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립에 대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찾는 것을 돕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 프로그램에 잘 들어가 있고, 자연스럽게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여 공감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조 특성 때문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과 변화를 함께 지향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② 자원활용의 극대화

몇 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수업과 관련하여 자체 내에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전문성이 높은 자원교사나 자원봉사자 연결, 외부 자원에 대한 풍부한 정보

등을 통해 외부자원 활용 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 확보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③ 실무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

실무자를 포함한 학교 전 직원이 열성적인 태도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성인지적 관점을 수업에 적용할 때 필요한 매뉴얼 개발, 평가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노원구청소년쉼터

1) 기관소개

노원구청소년쉼터는 중·단기 일시보호시설로서 입소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의료·법률적 지원, 학업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역 내 여러 사회적 지원과의 연결 및 조정 등의 통합지원을 통해 상처입고 소외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보호하에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준비하도록 하는 공공체 생활공간이다.

2) 사업실시 개요

노원구청소년쉼터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9】 노원구청소년쉼터 사업 개요

프로그램	가출청소년 삶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업지속프로젝트
------	----------------------------

램명	‘디딤돌 학습단’
목적 및 목표	<p>목표 1 :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업지속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1)참여 청소년의 30% 이상 검정고시 합격률을 달성한다(부분합격 고려). 2)학원수강 및 학습지도 참여율 50% 달성으로 학업지속성을 높인다.</p> <p>목표 2 : 개별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 1)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학습방법 이해로 기초 학습능력 향상 2)학업지속을 위한 자격검정 참여 청소년의 30% 이상 합격률을 달성</p> <p>목표 3 : 자원활동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1)학습지도 자원활동가 팀을 구성한다.(4인 이내) 2)학습지도 자원활동가 관리 및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유도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하여 향후의 활동으로 연계한다.</p>
기간	2006년 2월~2006년 12월
대상 및 인원	본 시설 입소 여자청소년 8명
예산/결산	7,561,680원 / 3,467,13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일정

노원구청청소년쉼터의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0】 노원구청소년쉼터 사업 일정

내용 \ 기간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상자 선정			○	○	○	○	○	○				
검정고시학원수강								○	○	○	○	○
개별 학습지도				○	○	○	○	○	○	○	○	
자격검정 실시								○	○		○	
활동가 모집·교육 및 관리		○	○	○	○	○	○	○	○			
평가회							○			○		○

(2) 사업결과

노원구청소년쉼터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1】 노원구청소년쉼터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1. 검정고시지원			
고입 (국어/영어/수학 /과학/사회)	4월~12월 매주 오전 9:30~오후 1:10, 월 요 일 ~	○ 2006년 8월부터 실시. - 시간은 변동사항 없으며, 학원만 노원점에서 미아점으로 변경.	* 계획은 4월 중에 등록하는 것으로 되 었으나 대상자가 없 어 보류 하던 중 8월 입소자대상으로 실시

/과학/사회)	금요일 주5회		되었음.
2. 개별학습능력			
학습지도 (국어/수학/ 과학/사회/ 국사/영어/ 일본어)	4월~12월 - 4월~6월 주2회 2시 간 실시	o 4월 21일~11월 25일 - 4월~6월 주2회 화.금(20:00-22:00) - 7월~11월 주1회 일(10:00~12:00) 총 45회	
컴퓨터	- 7월~12월 주1회 2시 간 실시	o 4월 26일~11월 8일 - 주1회 매주 수요일(20:00~22:00) 총 28회	
미술	(본 시설 내부학습 지도실)	o 5월 13일~11월 18일 - 5월~8월까지 주1회 토(15:00~17:00) - 9월~11월까지 주1회 금(18:30~21:30) 총 16회	
3. 기타 자격 검정지원			
컴퓨터ITQ (워드 파워포인트)	1회 응시	총 3회 (8월 13일)	
일본어	1회 응시	1회	
4. 지원활동가 인프라 구축			
모집 교육 관리	4인 이상	13명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① 과정평가

노원구청소년쉼터의 과정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2】 노원구청소년쉼터 과정평가

진행과업	과업평가		
	목표량	달성량	평가
대상자 선정	4명	8명	case 증가로 달성량 초과
검정고시 학원등록	1명: 50%이상출석	2명	- 대입 검정고시 준비생 1인은 약 5회 참가 후 종결되었으며, 고입 검정고시 준비생 1인은 100% 출석률을 보임 - 과목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적이 낮음. -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
검정고시 시험응시	2회		- 입소 대상자가 8월 달부터 등록 실시하여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었음.
개별학습 지도 (자격검정 응시포함)	240회	총 92회	- 중도에 포기한 자원봉사자들과 입소대상자의 퇴소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컴퓨터 자격 검정 3회와 일본어 능력 1회 실시.
자원활동가 관리	240회	총93회	- 중도에 포기한 자원봉사자들과 입소대상자의 퇴소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평가회	3회	3회	- 자원 활동가 평가회 일지와 최종 평가 설문지 실시.

② 효과평가

노원구청소년쉼터의 프로그램 효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3】 노원구청소년쉼터 효과평가

프로그램 목표	평가척도	평 가
검정고시 지원	검정고시 합격률 학원출석률	- 입소대상자가 8월달부터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 할 기회가 없었음. - 학원출석 100%. 능력모의고사 평균 45점.
개별학습 능력향상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설문지 자격검정 합격률, 개별 학습능력 점검표	-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분석결과 72%가 만족, 매우 만족에 체크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 컴퓨터 자격검정을 총3회와 일본어 능력시험검정 을 실시한 결과 75% 합격률을 보임.
자원활동가 인프라구축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회 설문지, 4인 이상 자원활동가 모임	- 최종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64%가 만족한다고 평가함. 분기별 - 평가회 3회 실시.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① 노원구 청소년쉼터는 단·중기 쉼터로서 3개월~6개월 동안 입소자들이 쉼터에 머물고 있다. 이런 기관의 특성 때문에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시 프로그램의 종결되기 전에 퇴소하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대상의 입소 청소년이 발생하여 프로그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② 프로그램 담당교사와 슈퍼바이저가 여러 번 교체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도를 평가할 수 없어졌다. 따라서 진행도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③ 프로그램 진행 강사를 섭외할 당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활동가로만 섭외되어 책임감이 부족하여 중간에 다른 강사로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최종일까지 진행되었고, 입소자 아이들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았으며, 그에 따른 성과도 높았다.

(2) 향후 계획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노원구 청소년쉼터에서는 단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립지원사업에 교육의 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단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원구 청소년쉼터에 테마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도에도 진행한다면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성장 프로그램으로 입소청소년들에게 지식이 될 수 있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전국의 유적지 탐방을 테마프로젝트사업으로 기획할 것이다. 먼저 교과서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유적지나 역사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그 곳에 대한 지식인을 자원활동가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탐방할 곳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그곳을 탐방하여 입소 청소년들에게 좀 더 우리문화에 대해 다가갈 수 있고,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역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타의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프로그램실시 지연

단기보호시설의 특성상 입소기간이 짧아 입·퇴소가 잦고, 현재 있는 인원도 학교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주 프로그램인 검정고시지원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직원들(담당자, 기관장)의 퇴사로, 현재 담당자는 처음 계획서를 작성했던 직원이 아니고 기관장도 새로 왔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아 테마프로젝트에 투여할 에너지가 적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모니터링 팀에서는 초기 프로그램 계획 시 타당성 검토 및 사전조사 작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며, 기관이나 실무자의 관점에서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개별학습지도에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책임성을 갖고 집중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총평

① 기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실시 요망

단기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검정고시 지원사업을 계획한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 계획 당시에는 대상자가 있어서 기획을 하였겠지만 단기 쉼터의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잦은 입·퇴소로 인해 주 프로그램인 검정고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검정고시 지원은 긴급하게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향후 프로그램 계획시에는 좀 더 면밀한 사전조사 작업이 필요하겠다.

② 직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기관장을 포함한 직원의 잦은 교체로 기관 전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담당자도 두 번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지연되고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황이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4.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1) 기관소개

본 기관은 1995년 가정 내 빈곤, 결손, 학대 등으로 인해 가출과 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적 보호센터로 설립되었다. 1999년까지 단기보호시스템으로 운영되다가, 2000년부터는 장기보호를 목적을 하는 그룹홈(공동가정생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본 기관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보호 및 양육활동, 상담 및 치료활동, 교육 및 문화활동, 가족복지지원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의 사업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14】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개요

프로그램명	청소년 해외문화기행 “우물안 개구리 세상 밖 구경하기”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p>목적: 그룹홈 청소년들의 해외방문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의식과 세계관을 확장시켜 자립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향상시킨다.</p> <p>목표1 그룹홈 청소년들의 과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1) 참가자들이 워크샷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기획, 준비한다. 2)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량과 관심에 맞는 역할을 개별 수행한다.</p> <p>목표2 그룹홈 청소년들이 일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시킨다. 1) 방문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 문화, 역사적 집단체험활동을 한다. 2) 개별탐사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기획, 실행, 완수한다.</p> <p>목표3 그룹홈 청소년들의 대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의 내용과 깊이를 심화시킨다. 1)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사회문화적 이슈를 1가지 이상 탐색한다. 2)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갖는다. 3) 방문활동 중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 발표하며 상호 피드백을 교류한다.</p>
프로그램 기간	2006년 1월 ~ 11월
프로그램 대상 및 인원	청소년 그룹 홈 ‘행복한 우리집’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명
예산 및 결산	8,000,000원/8,000,000원

3) 사업결과

(1) 사업진행 일정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5】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진행 일정

월	프로그램명	회수	진행내용
1월	프로그램 워크숍	1	- 기획회의: 참여자 각자가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일을 조사, 정리하여 실무자가 신청서 작성에 반영함.
	자원네트워킹	3	- 현지코디네이터 및 관련프로그램 연결 - 자원봉사자연결: 일본어학습 자원교사 연결
2월	일본어학습	4	- 매주 1회(목요일) 1시간씩 진행
3월	프로그램 워크숍	1	- 오리엔테이션: 일본여행에 대한 각자의 기대감, 하고 싶은 활동, 준비할 것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여행준비거리를 모아냄
	국제교류 체험활동	1	- 국제교류박람회: 미지센터에서 주체하는 행사로 국제교류단체 전시회, 일본문화체험(기모노, 노래) 등에 참여.
	일본어학습	1	- 기초회화: 강사의 일본귀국으로 잠시 중단
	자원네트워킹	2	- 청소년해외여행정보수집: 미지센터 국제교류담당자를 통해 일본여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관련 단체 및 실무자를 소개받음 - 자원봉사자연결: 대한성공회 장애인센터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을 강사로 연결
4월	프로그램 워크숍	1	- 오리엔테이션: ①프로그램워크숍(일본의 역사, 문화, 현안에 대한 이해, 지역조사, 개별프로젝트 등) ②문화교류(오사카 사회 체험활동시 우리 문화 알리기 교류) ③여성주의교육(여성에 대한 자각을 갖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준비) ④여행결과물(영상, 기행문 등) 등으로 영역화하여 준비할 것을 결정 - 역할분담 논의
	일본어학습	4	- 기초회화

	개별상담	3	- 여행에 대한 개별적 동기화를 목적으로 여행에 대한 각자의 기대감, 목표, 하고 싶은 것, 지금 자신의 성장단계에서 여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나눔
	자원 네트워킹	5	- 오사카, 교토, 도쿄 현지 코디네이터 및 관련기관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 후 협력관계 체결 및 의견 교환
	프로그램 워크샵	4	- 일본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와 발표, 토론 - 문화교류거리 결정: 사물놀이 선택
5월	일본어학습	1	- 기초회화
	자원 네트워킹	2	- 현지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각 지역별 숙소 확정, 일본현지 활동거리안내, 여행일정조정 결정 - 자원봉사자연결: 일본어 강사와 풍물강사 연결
	프로그램 워크샵	4	- 활동지역(교토, 동경, 오사카)조사 및 발표 - 개별프로젝트 탐색
6월	일본어학습	1	- 기초회화
	문화교류 활동	4	- 사물놀이배우기
	개별상담	2	- 여행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지, 자신이 맡은 역할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발달부분을 연결시키도록 지도, 개별프로젝트거리에 대한 슈퍼 비전
	자원 네트워킹	2	- 도쿄 통역자 새로 연결, 교토숙소예약(유스호스텔), 의식주 환경확인, 사물놀이 공연 가능성 확인(악기조달여부), 지역별 활동거리 리스트 작성 제안
7월	프로그램 워크샵	5	- 개별프로젝트 한 주제별 기획안을 발표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일정 및 활동거리정하기: 일정을 1일 더 늘리기도 결정 - 여행준비 최종점검 - 여행오리엔테이션
일본어학습	3회	- 기초회화
문화교류 활동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배우기 - 방문기관 선물 만들기
여성주의 교육	4회	- 여성과 관련된 4가지 주제(평화, 억압, 결혼, 도전)에 대한 강의, 현장방문, 영상관람 등이 이루어짐
미디어교육	2회	- 인터넷 블로그 만들 것을 결정
개별상담	4회	
자원네트워킹	4회	- 최종준비상황 점검
8월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2일: 인천공항출발-일본 오사카 도착/ 오사카성라운딩/ 자원봉사1:지적장애인미술교실
“우물 안 개구리 세상 밖 구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3일: 자원봉사2:재일한국인 노인사랑방/ 사회활동1: 동대관 중급학교(민족학교)/ 재일한국인가수 이정미 콘서트/ 도톰보리 야경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4일: 자원봉사3:천사보육원(장애인통합유치원)/ 사회활동2: 인권박물관 체험/지적장애인 미술교실의 재일한국인 자모의 스시파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5일: 교토도착/ 문화유적체험1: 금각사/ 테라마치 시장쇼핑/강변청소년 문화축제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6일: 문화유적체험2: 나라국립박물관, 동대사/ 나만의 자

			유여행/유스호스텔에서 국제문화 익히기
			- 8월7일: 문화유적체험3: 청수사/ 도쿄도착/ 사회활동3: 야스쿠니 신사견학/ 도시문화체험1: 하라주쿠, 긴자, 시부야 패션거리탐험
			- 8월8일: 문화산업체험1: 디즈니랜드
			- 8월9일: 문화산업체험2: 지브리 미술관/ 도시문화체험2:인공 도시 오다이바
			- 8월10일: 나리따 공항출발-한국 인천공항 도착
	프로그램 워크숍	2	- 평가회 - 여행뒷마무리: 영상과 보고서에 대한 시사회와 발간기념식 갖기로 함. 멤버쉽 트레이닝을(MT) 9월 9-10일 1박 2일 강화도로 가기로 함.
	미디어교육	2	- 참가자들이 개별적인 여행결과물로 만들기로 한 블로그의 제작과정 강습 후, 각자 만들고, 시연하고 오픈
9월	프로그램 워크숍	2	- 기행문 제작회의 - 영상제작 및 시사회 준비
10월	프로그램 워크숍	2	- 기행문 및 시사회 준비회의
11월	프로그램 워크숍	1	- 기행문 및 시사회 준비 - 시사회 평가 종결

(2) 사업결과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6】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프로그램 워크샵	10회	24회	* 여행준비과정을 논의, 결정하는 그룹 워크샵으로, 여행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이어서 예상보다 실행회수가 많아짐.
국제교류 선행체험	2회	1회	* 여행에 국제 교류적 차원의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국제교류 박람회, 베틀시장, 글로벌 리더쉽 등에 참여하려 했으나 첫 프로그램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준비과정에서 늘어난 프로그램을 일정을 소화하기에 참여자들이 벅차해서 1회로 축소함.
여성주의 교육	3회	4회	* 당초계획은 여성주의 전반에 대한 강의를 계획했으나 참여자들이 동기화가 낮아 지루해질 것 같아 자신의 미래 혹은 현재 준비 중인 여행과 관련된 주제들(여성 평화, 억압, 결혼, 도전) 택해 다양한 진행방법(강의, 영상, 견학)을 이용해 실행.
일본문화 기행강좌	3회	워크샵에 포함(7회)	* 작년 국토순례 때에는 시도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조사, 발표, 토론하여 기획보다 횟수를 늘려 진행.
일본어 학습	23회	14회	* 참여자들의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원어민 강사를 섭외하여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자원봉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 계획에는 다소 못 미치게 실행됨.
개별상담	20회	9회	* 전체 준비 일정에 밀려 횟수가 축소됨. 준비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지하는 정도로 그침.
개별 프로젝트	2회/교토 4시간 (2회)	워크샵에 포함 3회/전지역 2회	*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프로젝트 소재를 찾지 못해 준비횟수가 늘어남. * 실행방법은 교토에서 제한적으로 하려 했으나 교토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소재가 있었음. * 현지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자들이 각 지역에서 틈틈이 재량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일본여행 체험활동	7박 8일 집단활동	8박9일 집단활동 17회	* 프로그램 워크샵을 통해 활동거리와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 스스로 도쿄에서의 일정을 1일 더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열띤 토론을 거쳐 전체일정을 하루 더 추가하게 됨.

	13회		* 기획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재일한인가수 콘서트, 재일한국인 어머니의 식사 초대, 데라마찌 강변 청소년문화축제 등)로 여행의 의의성, 도전성을 체험하는데 큰 역할을 함
평가회	4회	2회	* 공식적인 평가회 외에 프로그램 워크샵 때 평가 작업이 수시로 있었음
자문회의	4회	-	* 당초 기획했던 자문위원과의 회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의 실무자들로부터 기획에 대한 피드백, 정보제공을 받음
운영사례집 발간	1종	기행문1종	
문화교류 활동	-	사물놀이 배우기 8회/ 공연3회	* 기획단계에 전혀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준비과정에서 수동적인 체험, 관광여행이 될 것을 우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우리 것을 보여주고,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하자고 만들어짐. * 사물놀이를 선택하여, 오사카에서 3회에 걸쳐 공연함.
미디어교육	-	4회/개별 블로그4종	* 작년에 습득한 영상기술로 동영상을 공동제작하려 했으나 참여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영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신 참여자들은 새로운 매체'블로그'를 이용하여 자기만의 여행을 표현을 하기로 함.
시사회	-	1회	* 시사회는 당초계획에 없었으나 여행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 자신과 그룹홈의 정체성, 멤버쉽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룹홈과 자신을 오픈하는 개념의 시사회가 제시됨.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의 사업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3-17】 대한성공회 행복한우리집 사업평가

평가	목표1: 과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킨다.	목표2: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시킨다.	목표3: 대사회적 인식 및 가치관의 내용과 깊이를 심화시킨다.
평가 지표	* 프로그램 참여도 * 프로그램 과정 목표 달성정도 * 개인별 역할 수행정도	* 활동의 다양성과 체험정도 * 프로그램 참여도	* 성인지적 사고정도 * 사회적 관심의 다양성
평가 기준	* 프로그램 참여도 80% * 과정목표 80%달성 * 개인별 역할분담 80%수행	* 지역-테마'별 체험 * 개별프로젝트 80%달성	* 여성주의 정체성의 향상 * 사회적 관심이슈 1개 이상 발견
평가	- 프로그램 참여도- 1명이 중도 탈락했지만 나머지 4명은 90%이상 참여	- 활동의 다양성과 체험정도- '오사카-사회활동 체험관, '교토-역사문화체험관, '도쿄-문화산업체험관 등 권역별 테마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체험거리 배치, 참여자 전체적으로 고른 참여를 했음, 그 중 가장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오사카의 사회활동체험이었으며, 교토의 역사문화체험도 당초 기대치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참여함.	- 여성주의 정체성의 향상- '여성주의 정체성발달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음. 그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경우가 2명의 참여자가 평가 항목 중 '빠짐과 '헌신 영역에서 총점기준 6~10점이 높아졌고, 1명이 '수용'면에서 6점 낮아진 변화를 보임.
	- 과정목표 - 프로그램 총86회/총89회, 결과물 3중/8중으로 109%의 목표달성		
	- 개별 역할수행-	-개별프로젝트수행-	-사회적 관심이슈 발견-
	참여자 각각이 전체여행단	모든 참여자가 100% 실행	준비과정에서는 외교문제가

<p>장, 일본어반장, 사물놀이반장, 기행문제작, 시사회준비 및 진행 등의 역할을 2가지 이상씩 골고루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였고, 일정이 가끔 지연된 경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진행됨.</p>	<p>하기는 했지만, 소재 선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았음. 참여자의 만족도면에선 보통수준.</p>	<p>면서 여성문제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관심이 나눔의 집을 방문하면서 더욱 커졌고, 여행 중에는 재일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생각, 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에 관심이 커짐</p>
---	--	---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의 평가

① 프로그램 워크샵

이번 프로그램에 본 기관의 2005년도 국토순례프로그램 유경험자가 참여해서인지 프로그램 워크샵 운영이 매우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따라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프로그램 워크샵(총 24회, 평균 주 1회)을 잘 소화해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문화기행강좌를 프로그램 워크샵에 포함시켜 진행했는데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재미있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적 이슈 대한 이해, 지역조사 등 다소 딱딱한 지적 활동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키워진 의식과 정보를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인 10대 여자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대(對) 사회적 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여성주의

여행이라는 다소 설레이는 체험활동에 여성주의는 다소 낯설고, 재미없는 주제로 여겨졌고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참여자들의 욕구보다는 실무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서인지 프로그램, 참여도가 떨어졌다. 그래도 '일본문화기행' 강좌 시간에 한일 외교현안으로 다루었던 '중군 위안부'문제는 '퇴촌 나눔의 집' 현장방문을 통해 생생한 볼거리와 증언으로 시각화시켜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다.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청소년에게 성 인지주의를 인식시킬 접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③ 일본어학습

일본문화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아 이 프로그램에 큰 호응과 집중도를 보였다. 특히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섭외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새로움이 참여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여기에 기존의 교과목에서는 낮은 성취도로 인해 학습이라는 것에 흥미가 없었던 참여자들이 실무자들보다 더 빨리, 잘 일본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 촉진 요인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일본 여행중에는 언어적 친숙함 때문에 참여자들의 현지 적응력이 빨랐고, 낯선 사람들에게 갈 곳과, 시간, 장소 등을 물어 보고, 거리의 간판을 읽고,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재미를 느끼면서 여행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지고, 점점 주체화되어 갔다. 참여자들에게 성공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잘 드러낸 프로그램이었다.

④ 문화교류활동

기획당시에는 없었으나 워크숍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사물놀이를 배우고 이것을 재일한국인들과 만나는 곳에서 주로 공연했다. 일본공연에서는 연주 실력은 많이 부족했지만 가는 곳 마다 환영을 받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해서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빨리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런 기대치 않은 반응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은 준비과정에 대한 충분한 보

상이 되었고, 참여자 모두 성취감을 느꼈다. 또한 비언어적 행위로 서로의 마음을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간의 친밀도와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올해 본 기관에 입소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부족했던 참여자가 사물놀이 배우고 연습반장을 맡으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개별프로젝트

이번 여행의 전체적으로 높은 성취도와 만족도에 비해 개별프로젝트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워낙 많은 준비과정에 다소 지친 참여자들이 개별과제를 관심있게 준비할 정신적, 시간적 여력이 부족했고, 원하는 주제를 깊게 체험(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미용실 체험, 애니메이션센터 방문 등)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고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현지에서는 각자의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려고 참여자 모두 노력했고, 여행 내내 일관된 관심을 갖고 가는 곳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일본을 이해하려는 탐구성을 보여주었다.

⑥ 일본여행체험활동

첫째, 테마별 체험활동이 예정대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로 잘 진행되었다. ‘오사카:사회체험활동’, ‘교토:역사문화체험활동’, ‘도쿄:도시문화산업체험’의 도시별 테마선정이 잘 이루어졌고, 테마별 체험거리도 적절했다. 특히 오사카는 여행준비과정에서는 참여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이 가서 봉사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현지에서 만난 재일한국인들의 환대와 사물놀이공연으로 인해 그들과 공감하면서 가장 즐거워했고, 여행 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교토는 더위 때문에 그리고 지루할 수 있는 테마적 특성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었지만, 한국과의 역사, 문화적 연관성이 있는 유적에 대한 예기치 못한 관심을 나타냈다. 도쿄는 워낙에 참여자 모두 환호하면 기대했던 곳이었고, 그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었다. 그러나 도쿄에 대해 참여자들이 갖는 다소 오버된 환상

적 이미지 때문에 도시 문화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회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다.

둘째, 현지 코디네이터와 가이드들의 훌륭한 역할이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도,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이번 현지 수행인력들은 모두 현지 재일한국인들로서 그 지역과 테마를 잘 알고 있어 전문적인 안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참여자들의 첫 해외여행을 위해 잠자리에서부터 먹는 것, 이동 하는것, 사소한 불편을 배려하고, 작은 요구도 들어주는 코디네이터들과 통역자들의 수고로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수행의 절차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성실히 안내하고, 대접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깊은 감사를 느낌과 동시에 평소와는 달리 그들의 설명과 안내를 하나라도 더 듣고, 묻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참여자들 사이의 공동체관계를 개선하고, 자립을 위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여행의 빠빠한 일정과 낯선 환경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매일 사소한 갈등을 겪었다. 여행 후 이어진 MT에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공동체 성원에게 얘기하고, 공감받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본 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수동적으로 맺고, 위축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여행영상 시사회를 열어 주변사람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는 첫 시도으로써, 자립을 앞두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고, 결정이 되었다.

⑦ 기행문 및 시사회

형식적인 보고서와 영상물을 피하고, 참여자들의 개성을 보여주고, 참여자들의 자기오픈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고, 이를 충분히 살리고, 목표한 성과를 그 이상으로 얻은 프로그램이었다. 기행문은 참여자들이 골고루 역할을 맡아 기획하고, 글쓰고, 모으는 작업은 물론 인쇄된 책자를 다시 수제본 하면서 자료에 대한 애착

이 높아졌다. 또한 기행문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내용적인 면은 물론 외형적인 면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성취감이 높아졌다. 시사회의 경우도 초대장발송, 무대장식, 행사진행, 음식 등 참여자 모두가 준비하고, 자신의 존재를 오픈하기 위한 소중한 친구들과 주변사람들을 초대하는 파티가 되고 함께 웃고, 즐기고, 손님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참여자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신감이 생겼다.

⑧ 전체평가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효과성이 전 프로그램에 골고루 드러났다.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며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각 단위별 참여도는 물론 만족도를 높였다. 작년에 본 기관에서 실시한 유사프로그램(국토순례)에서 보다 좋아진 공동체 의사결정력으로 진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본 기관 프로그램에서 이번 사업과 같은 진행방식을 경험한 참여자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수월했다. 작년보다 실무자들이 프로그램진행을 리드하는 역할이 줄어들었고, 일정에 맞춰 참여자 자신이 맡은 역할들을 해내는 능력도 향상되었고, 과제와 역할을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원하거나 즐기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는 10대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훈련의 가능성과 매번 그 능력이 심화됨을 확인해 주었다.

또한 청소년 해외체험프로그램의 자원네트워킹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욕구에 맞는 체험소재와 기관, 장소를 섭외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는 전문성을 갖춘 현지 자원과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인 수준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 향후 계획

본 기관 청소년들의 테마프로그램(집단) 통해서 향상된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적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한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여행준비

일본어 공부, 품물연습 등 프로그램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담당자는 일본에서의 여행 도우미들 연결로 경비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모니터링 팀에서는 여행시 실시할 개별 프로젝트는 여행 준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여행 준비로 바쁜 상황에서 강좌진행이 실무자나 청소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여행 전에 실시하려는 강좌를 여행 후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퇴소 후 대책

자립과 관련해서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고 시설운영에 따른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모니터링팀의 의견과 재원마련의 방법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총평

① 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의 체계화

2005년도 국토순례프로그램에 이어 해외여행을 기획하여 실시하였는데 2005년도의 경험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 해외 자원연결, 사전 준비작업

등의 모습을 통해 프로그램기획과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되었다고 본다. 단순히 일본여행을 여행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았다고 보며 다른 기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한다.

여행 참가자가 적은 점이 다소 실무자에게 부담이 되었으나 여행을 통해 자기 성장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어서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실무자들의 경험과 열정이 잘 융합되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② 참여자의 욕구반영 및 주도적인 역할 수행

참여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등 클라이언트 중심의 사업 진행이 돋보였다.

③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기획 시에는 계획되지 않았지만 진행하면서 평가와 더불어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변경한 것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담당자의 많은 실무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절하였다고 본다.

④ 성인지적 관점의 접목

여성주의 교육은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과 흥미로운 주제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먼저 요청하거나 욕구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참여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성주의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기보다 다른 프로그램의 소주제로 넣어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본문화기행강좌 시간에 일본문화와 성인지적 관점과 공통되는 주제를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성인지적 관점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다.

⑤ 과도한 여행준비 프로그램

결과적으로는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여행 전 준비작업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는 여행 경험을 극대화하려는 담당자의 의도가 좋기는 하나 잘못하면 참여자를 소진시키고 여행에 대한 즐거움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 또하나의집

1) 기관소개

사회복지법인 전국교역자연합회 복지재단 또 하나의 집은 가출, 비행, 약물사용, 도박, 가정폭력, 가정해체, 학교부적응 등으로 거리에 노출, 방치되어 있는 십대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환경과 신체적 · 심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육체적 · 정신적 ·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과 비행예방, 집단프로그램 등의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실시 개요

또하나의집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18】 또하나의집 사업개요

프로그램명	시설입소 청소년의 셀프리더십 향상프로그램
-------	------------------------

<p>목적 및 목표</p>	<p>목적 1. 시설입소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2. 시설입소 청소년들이 셀프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 시설입소 청소년들이 삶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p> <p>목표 1.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1)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2)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3) 단계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p> <p>2. 셀프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1) 신체적 셀프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다. 2) 감정적 셀프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다. 3) 지적 셀프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다.</p> <p>3. 삶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1) 갈등해결과정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다. 2) 인간관계 기술향상과정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다. 3) 문화체험을 통해 건강한 문화관을 형성할 수 있다.</p>
<p>기간</p>	<p>2006년 2월 ~12월</p>
<p>대상 및 인원</p>	<p>또 하나의 집 입소 청소년 9명</p>
<p>예산 및 결산</p>	<p>8,000,000원/8,000,000원</p>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또하나의집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9】 또하나의집 사업진행 일정

기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준비	■	■	■	■								
개인적 발달 계획 수립		■	■									
개인적 발달 사업 진행			■	■	■							
갈등해결능력 키우기 준비				■	■							
갈등해결능력 키우기 진행						■	■					
문화인식향상 사업준비					■	■	■					
문화인식향상 사업진행			■		■	■	■	■			■	
관계능력 향상 사업준비							■	■				
관계능력 향상 사업진행										■	■	
평 가 회												■

(2) 사업결과

또하나의집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0】 또하나의집 사업결과

프로 그램명	계 획	실 행 결 과	계획과 실행 비교
멋진 나 만나기	1회: 에니어그램 검사하기 2-8회:집단활동	o1회: 에니어그램 성격검사 및 워크샷 o 2회: 마음열기 o 3-4회: 목표세우기 o 5-7회: 셀프리더십 실천근거 마련하기 o 8회: 셀프리더십 실천하기	
갈등해결 능력 키우기	- 총 8회 집단활동	o 8회 집단활동 실시 : 갈등 드러내기, 갈등대처 유형 테스트, 함께 문제해 결해보기, 차이/다름 이해하기, 의사 소통, 분노다루기 등으로 이루어짐	
문화인식 양상 프로그램	- 눈으로 만나는 문화 - 몸으로 만나는 문화 - 즐거운 문화	o 눈으로 만나는 문화: 관람1회, 방문3회 o 몸으로 만나는 문화: 각종 직업체험 유기농공동체 방문 o 즐거운 문화: 1박2일 여행체험 1회 o 경험하는 문화: 영상제작 워크샷 전통문화 체험	* 기존 계획에서 경험하는 문화 부분이 첨가됨
관계능력 키우기	총 6회 집단활동	o 커플댄스 배우기로 6회 집단활동 실시 o 무도회장 방문	* 기존 계획에서 무도회장 방문이 첨가됨
평 가 회	사업평가(선물증정) 사후평가 및 만 족도조사소감나 누기/ 종결파티	o 사업평가(선물증정) o 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 o 소감나누기 o 사업종결파티	

(3) 평가 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자존감 척도 검사 결과를 보면 6명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에서 4명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에서는 6명중 2명만이 사전보다 사후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갈등해결 유형 테스트에서는 6명 중 4명은 사전사후 검사에 차이가 없었고 2명(타협형에서 협력형으로, 양보순응형에서 협력형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검사(5점 척도)에서는 장소, 진행자, 강사, 긍정적 변화, 프로그램 분위기 항목에서 88%가 만족, 매우 만족을 선택하였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77%가 만족, 매우 만족을 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목표에 따른 효과성 정도에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7.8점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보면 관계능력 키우기에서는 100%가 만족, 매우 만족하다고 표시하였고 갈등해결 능력 키우기에서는 95.3%, 문화인식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94.8%, 그리고 멋진 나 만나기에서는 93.6%가 만족, 매우 만족을 나타냈다.

4) 기관자체 평가

(1)사업담당자 평가

① 멋진 나 만나기

참여자들은 매우 열심히 진지하게 참여하였고 전체적인 흐름은 계획대로 잘 진

행되었다.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참여자들은 많은 생각과 실천과 계획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조금 어려워했고 힘들어 하였으나 낙오자 없이 끝까지 잘 견뎠다. 참여자들은 자신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지만 많이 성장했고,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의 이론적 작업들이 다른 프로그램의 방향을 잡은 것으로 여겨지며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셀프리더가 될 수 있는 힘이 많이 개발되고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시 개인의 참여도, 역할이나 집단의 응집력은 좋았으나 스스로 세운 계획에 대해 실천력은 약했다.

② 문화인식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했으며 문화인식이 향상되었다. 여행을 위해 토론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가운데, 책임감이 생기고 스스로의 일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고유의 전통을 체험함으로써 조상들의 지혜를 깨닫고 친근하게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상 제작을 위해 참여자들이 촬영을 해서 매우 열심히 편집을 하였으나 대여한 컴퓨터에 자료를 넣고 반납하는 실수를 저질러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

③ 갈등해결능력 키우기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갈등개념이나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으나 게임과 그룹토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진행자의 지도에 따라 점차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고 내용도 잘 따라갔다. 참여자들과 진행자와 라포가 잘 형성되었고, 진행자가 여러 사례로 참여자들에게 토론을 하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상황에서 갈등의 요인과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해결능력이 향상되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④ 관계 능력 키우기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했고, 즐겁게 열심히 춤을 추었다. 프로그램 내내 리더와 팔로워의 입장과 파트너에 대한 배려, 예의에 대한 부분을 계

속 다루었지만 참여자들은 춤동작을 익히느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실천은 많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행자는 리더는 리더의 입장으로 팔로워는 팔로워의 입장으로만 보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시각을, 둘이 힘을 합해 아름다운 동작을 만들고 동작에 따라 상대방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참여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배려를 실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관계기술 능력이 향상되었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2) 참여자의 서술적 평가

참여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토요일에 진행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남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해 좋았다.

② 처음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었는데, 하고 나니 유익했다.

③ 친구들보다 더 사고가 깊고, 폭이 넓어진 것을 깨달았다. 프로그램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헤아리게 되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④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산만했다고 생각되었다. 나 자신에게 대한 변화가 많았고 남에게 대한 배려가 생겼다.

⑤ 사고의 범위가 넓어져서 좋았다. 체험적인 활동들이 더 기억에 남고 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 속에서 소화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⑥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어 좋았다.

⑦ 스윙댄스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고칠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⑧ 스윙댄스나, 스트레칭에 대해 부끄러워 잘못했는데, 열심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을 찾았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 필요

성인지적 관점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나 생활에서 실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다. 담당자는 입소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문제해결이나 갈등해결을 잘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테마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또 다른 실무자를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해 실제 프로그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하였다. 테마프로젝트 신청계획서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내용이 안 나와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멋진 나 만나기' 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총평

① 프로그램의 초점화 필요

셀프리더십 향상을 목적으로 4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이 비중이 높은 것들이었고,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자가 수행하기에는 너무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본다. 관계능력 키우기 프로그

램은 커플댄스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댄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본다.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초점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부계획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못했는데 기획 당시에 좀 더 면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다.

② 단계별 자립준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참여자들이 다른 쉼터에 비해 성숙하고 프로그램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등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상자들의 강점과 장기쉼터의 특성상 입·퇴소가 안정적인 점 그리고 실무자의 오랜 경험과 프로그램 수행 능력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프로그램 구상이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실제적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 개발을 기대해 본다.

6. 마자렐로센타

1) 기관소개

직업훈련시설인 마자렐로센타는 빈곤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과 보호가 필요한 십대 여성들에게 인성교육을 포함한 전문상담 및 기술교육을 통해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업실시 개요

마자렐로센타의 사업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21】 마자렐로센타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소외된 십대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p>목표1.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부터 소외된 십대 여성의 욕구에 맞는 기본적인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학력을 취득하도록 한다.</p> <p>2. 학력취득을 통하여 주위의 선입견으로 인한 불평등 처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한다.</p> <p>3. 학력취득과 자아성취감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사회성 향상을 도모한다.</p> <p>4. 학력취득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모색하고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p>
기간	2006년 1월 - 12월
대상 및 인원	마자렐로센타 내 십대여성 17명
예산 및 결산	7,920,000원/7,92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마자렐로센타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2】 마자렐로센타 사업진행 일정

내용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계획	●											
1차 검정고시 대상자 선정/강사모집 및 교육/원서접수/사전 설문조사/ 개별목표 수립		●										
검정고시반 운영 -실전모의고사 실시 -단합모임 1회			●									
고검, 대검시험 사후 설문조사				●								
1차 검정고시 합격 확인 개별목표 검증					●							
2차 검정고시 (1차와 일정 동일)						←————→						
평가 및 종결										●		
사업정산 및 보고서 제출												●

(2) 사업결과

마자렐로센타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3】 마자렐로센타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계획 단계	직원회의:학습지원프로그램 논의	- 주 1회 이상 직원회의 실시	
	대상자 선정	- 고검·대검 대상자 선정 이루어짐	* 중검 응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중검 대상자 선정은 이루어지지 못함
실행 단계	개인화일 작성: 개별목표수립, 노력사항 작성하기	- 개인화일의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여 대상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함.	* 추가된 사항 : 공통/ 수업 일일평가 : 아동/ 목표달성표 : 개별 주말계획표 : 사전/사후 설문조사
	실전모의고사: 각 3회 실시	- 1차 검정고시(3회) - 2차 검정고시(2회)	* 1차 검정고시에 시작-중간-종결 단계에 3회에 걸쳐 실전모의고사를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에 많은 횟수의 평가가 있다고 판단되어 2차 검정고시에는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2회만 실시함.
		- 단합모임실시: 담당 선생님과 점심식사와 에버랜드 놀이공원 놀러가기	* 계획에 없었으나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해 실시함
평가 단계	자체 중간보고	- 1차 검정고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자체적으로 직원회의를 통해 중간보고 함.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①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조사에는 고검3명, 대검 6명으로 총6명(사전, 사후조사 동일)이 참여하

였으며, 2차 설문조사에는 고검7명, 대검5명으로 총12명이(사전조사/13명, 사후조사/12명 참여-가출, 퇴소로 인해 2명의 결과가 제외됨) 참여하였다.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취의 중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사전/사후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수치 또한 사전(78) 사후(80)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신이 판단한 학습수준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답변은 사전 39, 사후 48로 검정고시 준비반을 통한 공부를 마친 후에 조금 더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사전조사에서는 매우 낮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명이 있었던 반면 사후조사에서 매우 낮음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

자신의 학습목표의 정확성을 묻는 사전조사에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응답자가 1명, '매우 애매함'으로 답한 응답자가 5명을 포함하여 50의 수치가 나타났다. 학습목표의 달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거의 되지 않음'이라고 1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는 '보통' 이상의 결과로 달성되었다고 응답하여 66으로 수치가 향상되었다.

검정고시 준비반의 참여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사후조사에서 '보통-22.2%, 다소 도움-44.4%, 매우 도움-33.3%'로 전원이 보통 이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검정고시 준비반을 추천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원이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검정고시 준비와 자립의 상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명이었으며 나머지 12명은 '다소' 혹은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답하였다.

(수치는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1~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수치이므로 90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치임. 최소 18점~최대 90점으로 나타남.)

② 검정고시 합격률

1차 시험에서는 고검 응시자 3명이 전원 합격하였고 대검에서도 3명(과목 합격 1명 포함)이 전원 합격하여 100% 합격률을 보였다. 과목합격을 제외한 전체합격

률은 83%이다.

2차 시험에서는 고검에 7명이 응시하여 5명(과목합격 2명 포함)이 합격하여 71%의 합격률을 보였고, 대검에서는 6명이 응시하여 5명(과목합격 3명 포함)이 합격하여 83%의 합격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77%의 합격률을 얻었다. 과목합격을 제외한 전체합격률의 경우에는 38%이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① 계획

- 2006년 1월 본 기관의 인사이동으로 '테마프로젝트-검정고시'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가 변경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방침이 결정된 후에 본인이 업무를 맡게 되어 프로그램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자료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 2002년~2005년의 4년간의 검정고시 운영 자료는 검정고시의 정확한 일정을 계획할 수 있었으며, 주1회 있는 직원회의는 실무자와 직업훈련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상호 긴밀한 나눔은 친구들이 검정고시 준비반 이후에 직업훈련반으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적응의 어려움을 최소화하였다.

② 대상자의 선정과 참여확대 방안

-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중입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아동의 검정고시 응시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계획함에 따라 중도에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입소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와 더불어 미취학 아동을 고려한 중검반 운영과 학습지원은 물론 검정고시 응시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 기존에 없었거나 혹은 미비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보완하여 아동의 학습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쉽도록 개인화일(수업일지, 목표달성 점검표, 설문조사, 수업시간 표 외)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물론 교사, 실무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③ 지도자 시스템 (전문교사, 자원교사, 실무자와의 연계성)

- 본 기관의 여건상 검정고시 담당 교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1개월만 채용하는 형식이 되다 보니 전문교사를 모집하는 일이 어려웠고 결국 대학생을 채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들과 비슷한 연령,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대학생 교사와 아동 간의 마찰이 잦았다. 아동지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전문교사 모집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단기간의 학습지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학습 진도에 맞춰나가기 위해 자원교사에 의한 소그룹 지도 혹은 개별지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일상생활 프로그램 중에 월1회 이상의 개별상담과 주1회의 집단 상담이 있어서 아동이 검정고시 준비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담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진로와 학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검정고시 4~5주 기간 중 2주에 접어들 무렵부터 아동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 시기에 교사들과 아동들의 모임시간을 마련하여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아동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교사들에게도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을 파악하고 지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④ 검정고시 유형별 수업 진행과 선택과목 지도의 필요성

- 2006년도 검정고시 준비반 대상자 중에서 검정고시에 처음으로 응시한 아동이 1,2차 검정고시에 총 10명으로 전체의 55%에 해당하며, 과목합격자는 1차에서 2명, 2차에서는 4명이었다. 검정고시 준비반의 전체 방향이 필수과목을 지도하고 선택과목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합격을 한 친구들의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가 있었다.

⑤ 예산 및 집행

- 예산의 대부분을 교사 인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직접투자에는 예산이 부족했다. 선택과목은 교사의 도움보다 자율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관한 총정리 교재를 마련한다면 아동이 스스로 학습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그 이외의 평가

참여자들의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단기간의 학습 진행에 따른 개인적인 학습 시간의 부족과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였고 ② 개별 지도의 필요성, 과목합격자를 위한 시간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3) 향후 계획

단기간에 검정고시를 준비함으로 인해 폭넓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인식하여 2007년부터는 학습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준비를 계획함으로써 십대 여성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주5회 수업을 실시하며 주말에는 희망자에 한해 자원교사를 통한 개별과외시간과 자율학습시간을 마련하여 학습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 중에는 담당 교사와 합의 하에 독서지도반, 기초학습반 등과 같은 특별반을 만들어 가정방문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프로그램 형태

2005년도에는 학원에 등록하여 검정고시 준비를 했으나 올해에는 강사를 연결하여 센터 내에서 과외 식으로 전환하였다. 학원에서 공부할 때에는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개인변 수준이 달라서 진도를 맞추기가 어려웠으며, 흡연이나 외부의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유혹을 많이 받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요구로 과외방식으로 진행하면서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어려운 점으로 짧은 공부기간(1달)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 때문에 참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모니터링팀에서는 학습기간을 늘리면서 강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하였다.

(2) 총평

① 프로그램의 효과성

종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많은 참여인원과 적절한 자원 연결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어찌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기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의 시험준비로 합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자체 내에서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할 것이 필요하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참여자들이 대학진학에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7. 서울 나자렛집

1) 기관소개

본 시설은 가정해체로 인한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가정공동체(장기보호 시설)로서, 가톨릭 정신에 따라 정직한 시민, 착한 크리스찬, 올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며 숙식제공, 의료서비스, 상담, 교육,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실시 개요

서울 나자렛집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4】 나자렛집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서울 나자렛집 청소년들의 성인지적 자아정체성 회복을 향한 발걸음
목적 및 목표	<p>목표 1. 성인지적 관점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안다.</p> <p>1) 생물학적, 사회학적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p> <p>2)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다.</p> <p>목표 2. 우리사회의 모순된 가부장적 유산물을 발견한다.</p> <p>1) 성인지적 관점으로 전통사회의 여성들의 희생을 알게 된다.</p> <p>2) 성인지적 관점으로 오늘날의 여성들의 현실을 알게 된다.</p> <p>목표 3. 새로운 시선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성의 주체로 살아간다.</p> <p>1)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p> <p>2)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책임진다.</p>
기간	2006년 3 월 1 일 ~ 9 월 30 일
대상 및 인원	서울 나자렛집 입소 청소년 10명
예산 및 결산	2,838,200원/2,838,2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서울 나자렛집의 사업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5】 나자렛집 사업진행 일정

구분	세부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무자교육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발걸음1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발걸음2	성에 푸른날개를 달자							
발걸음3	어제와 오늘의 십대여성							
발걸음4	내가 나답다는 것?							
발걸음5	대상자와 지도자평가 및 나눔							
발걸음6	지도자 평가 및 나눔							

(2) 사업결과

서울 나자렛집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6】 나자렛집 사업 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비교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 성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테마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3월 25일: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기관소개 및 사업의 필요성 o 프로그램소개를 전반적으로 함 	* 대상자와 지도자와 함께 교육함
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성인식에 대한 사전설문조사 - 테마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		
성에 푸른 날개를 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1박 2일) - 성인식 체험프로그램 실시 (1박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성인식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은 5월 21일 도입 프로그램으로 실시 o 성교육프로그램은 6월10일부터 7월 15일 까지 6회에 걸쳐 실시 	*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식 위주가 아니라 체험위주로 변경함
어제와 오늘의 십대여성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대부 가문의 여성을 찾아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2. 우리시대에 젠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공여성을 찾아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8월 20일 이귀화 할머니 인터뷰 o 8월 27일 강희숙 어머니 인터뷰 	* 5월-7월 사이 계획되었으나 아이들의 학교사정으로 8월 방학중에 실시
내가 나 답다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 속에 있는 나를 느낀다. (수목원체험) 2.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젠더정체성을 새롭게 한다. : 조선시대 젠더를 살았던 여성 3. 참소리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오늘의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이 성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다짐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의 만남은 8월 7일 실시 o 수목원 체험은 9월 9일 실시 o.참소리 박물관은 8월 5일 실시(참소리 박물관은 정보와 답사의 미흡으로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실시) 	* 수목원 체험이 9월 9일로 변경
평가 및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식에 대한 사후설문조사 - 테마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오죽헌과 참소리 박물관은 실시 후 바로 평가와 나눔을 실시 	* 성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9월로 변경
지도자 평가 및 나눔	- 프로그램 전반적인 진행과정 평가 및 나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실시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성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6개 문항으로 사전 사후 조사한 결과, 성인지적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6개의 항목에서는 4개 항목이 사후에 더 점수가 높았다.(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적 정체성이 낮음)

그외 성인지 관련 개념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한 인식,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성 평등이나 젠더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 담당자의 평가

성인지적관점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용어자체를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인지적이라는 표현도 본인은 늘푸른 실무자 교육을 1년 이상 참여하면서 조금 인식을 할 정도의 수준이고 내안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일도 한걸음부터 해야 한다는 용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걸음씩 걸음을 걸어보았다.

그러나 프로그램동안 거의 주입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다. 자신의 정체성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작한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다보니 당연히 모든 상황 안에서도 의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부분도 어려움 중의 하나였지만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상황적으로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신사임당을 도입하게 되었던 부분도 옛 여성들과 현대 여성들 간에 차별을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즘에 방영되는 황진회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 아마도 성인지적관점에 대한 교육을 그동안 한 보람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인터뷰 프로그램은 인사를 선택하는데 아쉬움이 많았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침고요 수목원프로그램에서 자연과 여성을 접목시켜 성인지적 관점의 자아정체성을 연구할 한다면 좋은 소재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생명을 성장시키는 자연과 생명을 낳고 키우는 여성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다.

결국 성인지적 관점의 자아정체성 회복을 통하여 십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는 목표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새롭게 자신의 성을 바라보는 발판을 내 주었다고 본다.

(2) 향후 계획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특히 인지적 능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진행하는 지도자의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선은 인지적 능력을 함께 올리면서 우리의 사업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본 시설의 아동은 자립준비를 위해서 학습의 향상에 주력해야겠다는 평가를 했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

성직자가 기관의 실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어려운 삶의 경로를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변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긍정적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담당자가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입소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모니터링 팀에서는 쉽터에서 벗어나 휴가를 가거나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권하였다.

(2) 총평

① 실무자의 성인지적 자아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전임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프로그램이 성인지적 자아정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평소에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성직자인 실무자가 담당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자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한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많이 변화되고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때, 실무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인지적 관점을 주입식으로 교육시키고 의도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소 딱딱하게

진행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프로그램운영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실무자 자신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참여자들과 생활하면서 참여자들에게 모델링이 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 숙식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쉼터의 특성상 실무자들의 언행이 참여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자아정체성 확립이 중요하겠다.

8. 서울 YMCA 청소년쉼터

1) 기관소개

서울 YMCA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 최초의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기관으로, 가출청소년 일시보호활동, 가출 예방활동, 자립지원활동, 전문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사업 실시 개요

서울 YMCA 청소년쉼터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27】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십대 가출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체험 프로그램 “나의 삶을 경영하라”
목적 및 목표	목적: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p>주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힘(power)을 가진 자립적인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십대 가출청소년의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한다.</p> <p>목표 1 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즉시 활용하여 습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동적 경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 체험중심의 경제활동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소비자'에서 자립적인 '생산자'로서의 경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3. 자기 주도형 경제교육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립적인 경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p>
기간	2006년 3월 ~ 2006년 12월
대상 및 인원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44명
예산 및 결산	8,000,000원/7,958,68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서울 YMCA 청소년쉼터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8】 서울 YMCA 청소년쉼터 사업진행 일정

내용	기간	진행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전 준비	지역사회연계망 확보		●	●									
	지도자 모집 및 확보		●	●				●		●			
	사용양식 및 평가도구 개발		●	●						●			
	교육자료 개발			●				●	●		●		
사업 실시	지도자교육			●	●		●	●			●		●
	Home 알바				●	●	●	●	●	●	●	●	●
	틴즈비즈니스				●	●	●		●	●		●	
	틴틴아카데미				●	●	●	●		●		●	●
	팜스테이				●	●	●	●	●	●	●	●	
평가 및 홍보	전체평가회의						●						●
	프로그램 평가회의				●	●	●	●	●	●	●	●	●
	온라인 클럽운영	●	●	●	●	●	●	●	●	●	●	●	●
	관련홈페이지					●	●			●	●	●	●
	보고서작성						●						●

(2) 사업결과

서울 YMCA청소년쉼터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9】 서울 YMCA청소년쉼터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연인원)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지도자교육: 가출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	내부교육	1회 6명	1회 9명	
	외부교육	1차 6명	1회 13명	
	평가회의	4회 총 24명	2회 12명	
소 계		36명	34명	
전체 오리엔테이션		-	7회 총 1명	필요성 있어 추가
소 계		-	31명	
홈알바: 돈이 일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게 하고 스스로 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경험의 기회 제공함.	사업계획서	5명×6차×4회 기=120명	37명	참여자들이 홈알바를 계속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계획보다 인원 증가
	근로계약		30명	
	홈알바실시		133명	
	평가회		25명	
소 계		120명	225명	
틴틴아카데미: SOST 용돈 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제관리 방법을 배우고, 수입을 얻게 하여 소비욕구를 적절히 해소하게 함.	개별교육	5명×6차×2회 기=60명	22명	참가자수 감소
	평가활동		22명	
소 계		60명	44명	
틴즈비즈니스: 벼룩시장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경제관리	기획활동	6차 총 120명	36명	참가자 수 증가
	준비활동		37명	

방법들을 익히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판매활동		37명	
	평가활동		37명	
소 계		120명	147명	
팜스테이: 주말농장체험을 통하여 노동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며 땀 흘려 일한 대가의 소중함을 알게 함.	준비활동	9차 총 135명	65명	차수 3차 증가
	일체험		62명	
	평가활동		62명	
소 계		135명	189명	
합 계		471명	670명	+199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참가자 참석률을 보면, 471명 목표에서 실제 참여자는 670명(연인원)으로 142%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133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지 조사결과를 보면, 프로그램의 질을 묻는 질문에 '좋았다'가 77명(57.9%), '매우 좋았다'가 42명(31.6%)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대답을 해 이번 프로젝트의 질이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78.2%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켰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며, 도움의 양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부분 만족'이 84명(63.2%), '매우 만족'이 42명(31.6%)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를 더 잘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받은 도움에 만족하느냐의 질문에 '대부분 만족'이 84명(63.2%), '매우 만족'이 43명(32.3%)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별 만족도 평균을 보면, 틴틴아카데미 3.43, 홈알바 3.41, 틴즈비즈니스 3.13,

팜스테이 3.07으로, 틴틴아카데미가 가장 높게, 다음은 홈알바 순으로 나타났다. 틴틴아카데미, 홈알바 프로그램은 나머지 프로그램과 달리 참가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라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다.

2006년 테마프로젝트 참가자 전체 만족도 평균은 3.20으로 작년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강제성을 띤 집단프로그램에서 자발성이 강조된 자기주도적인 체험식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서비스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듯 하다. 따라서 십대 가출 청소년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전체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기획 되어야 그 만족도가 높아지며,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틴즈비즈니스와 팜스테이 활동 또한 선택의 기회를 주어 자발성을 두었다면 그 만족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두 프로그램의 특성은 단체활동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두 가지 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십대 가출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① 지도자 교육

워크숍을 통해 외부 쉼터 실무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점 그리고 쉼터 내 실무자와 외부 실무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네트워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가출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들이 투입되어서 참가자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1회의 교육으로 내재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으로 교육의 내용과 기회들을 강화하고 가출과 경제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들을 양성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북이나 활동가 워크북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② Home 알바

일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하여서 뿌듯해 하였고, 적절히 소비욕구를 풀 수 있어서 쉬터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무단퇴소도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까지 제공되어 기대하지 못했던 직업교육의 효과가 있었으며, 참여자들이 이력서를 쓰면서 자신의 학력이 초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러나 용돈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 자발성 보다는 의무를 강조하여, 자발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

개선점으로 저축, 기부, 세금에 대한 이해의 부분을 확장하고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동기부여 할 필요성 있다. 또한 스스로 기획해서 실시하는 알바와 구인을 해서 모집하는 알바를 병행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③ 틴틴아카데미

대상자에게 일대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지만, 딱딱하고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한 교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자에 한해 실시 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담당자 한명이 실시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를 교육하여 투입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성 있겠다. 또한 외부강사나 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④ 틴즈비즈니스

벼룩시장의 유경험자가 많이 생기면서 실무자의 큰 개입이 없어도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잘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경제관리 훈련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야외활동을 통해 끼와 에너지를 발산하여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비해 활동 범위가 광화문벼룩시장으로만 국한되어 다양한 지역 사회 사람들과 소통하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였다.

⑤ 팜스테이

씨를 뿌려, 가꾸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고 수확물을 솥터 밥상에 올려 나누는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작업이라 홈알바나 아카데미에 비해 자발성은 떨어지지만,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농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농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담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⑥ 인력투입

작년에 이어서 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 경력을 가진 실무자들의 노하우들이 좀 더 많이 프로젝트에 녹아들 수 있었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슈퍼비전을 평가회 시간에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실무자의 투입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참가자 주도적 진행과 대체인력의 투입을 통해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실무자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개입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해야 할지 등 좀 더 세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역할의 중복이나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⑦ 예산

작년과 비교해서 외부강사의 인건비가 줄고 예산의 많은 부분이 참가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서비스로 전달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외부강사의 역할이 솥터 내 실무자들의 투입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업무의 양이

과중되면서 부담이 늘어났다. 또한 유급자원봉사자의 인건비, 활동시 식대와 간식비 등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적절한 선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해야 하겠다.

(2) 그 이외의 평가 (참여자의 평가, 서술적 평가 등)

① 지도자교육

- 컴퓨터의 기간을 떠나서 통합적인 경제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 실제와 접목시키기 조금 어려웠다. 실제적인 사례 위주 및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면 좋겠다.
 - 단기컴퓨터, 중장기컴퓨터, 각각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좋았다.
 - 전반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었다. 분위기도 좋았다.
 - 경제교육의 방법과 실제 진행되어진 사례와 내용을 공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컴퓨터 자체로 경제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② Home 알바

- 조금은 힘들었지만, 나에게서 경제교육이란 것을 느끼게 했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지만 쉽게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느꼈고 돈을 더욱 절약하고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중에 또 하게 된다면 또 참여 할 것이고, 내가 몇 시간 동안 힘들어하고 땀을 흘리며 노력 한 탓에 멋진 작품이 나와서 좋았다.
 - 하는 동안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 끝내고 나니 기분 좋고 뿌듯하다.
-

③ 토티아카데미

-
- 처음엔 심심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고 나니깐, 재미있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 내 성격이 어떤지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 성격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다. 나중에 또 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다.
 - 용돈기입장을 할 땐 아무것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깐 조금 괜찮았다. 은행체험도 재미있었다. 신분증이 없어서 하기 힘들고 그래서 하기 짜증났는데 끝나니깐 기분이 좋았다.
 - 이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다음에 알바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④ 틴즈비즈니스

-
- 베틀시장을 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손님이 많이 와서 좋았고 보람을 느꼈다.
 - 요번에는 많이 팔리고 고생해서 돈을 벌고 나니 기분이 좋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팔도록 노력하겠다.
 - 다리도 아파서 불편도 하고 혼자서 홍보하고 떠드니깐 목도 아팠다. 그래도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어 다음에 또 하고 싶다.
 - 처음에 판매를 어떻게 해야 잘 팔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팔고 느낀 것은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내가 노력한 점에서 부족한 것 같다.
-

⑤ 팜스테이

-
- 이번에 가서 비도 오고 그래서 우울하고, 밭에 들어가니깐 발이 푹푹 빠져서 하기 싫어서 놀았는데, 나중에는 나만 놀 수 없어서 열심히 참여했어요.
 - 비도 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 더욱더 열심히 해서 꼭 마음 편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 내가 직접 밭에서 일을 해보니깐 음식의 소중함과 농부의 정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과일도 먹고 컴퓨터에 돌아와서는 포인트도 받으니깐 더 좋다.
 - 배추가 진드기가 좀 많이 있어서 버리는게 많이 있어서 좀 속상했다. 그렇지만 좋았고 재미있었다.
-

(3) 향후 계획

앞으로 가출경제교육을 컴퓨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화하고 전문가 개발 및 양성, 활동가 워크북 제작 및 매뉴얼 개발, 경제교육 평가도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확대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전반적인 진행상황

프로그램명이 독특하고 청소년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으로 또 체험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특히 작년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채택하여 틴즈비즈니스, 팜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은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담당자가 사례관리에 관한 조언을 요청하여, 사례회의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나 다루기 어려운 사례에 대한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고 담당자가 보지 못했던 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설명하고, 특히 여러명의 선생님들이 주야간을 번갈아 근무하는 형태에서는 선생님들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 평가시 사용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척도를 필요로 해 모니터링팀에서는 관련 척도를 알아보고 알려 주기로 하고 이후 ACLSA척도 중 관련영역(돈관리) 척도를 보내주어 참고하도록 하였다.

(2) 총평

① 참여자의 욕구가 반영된 체계적인 프로그램

자립지원영역으로 경제관리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는데 실제적이고 체험 중심의 경제교육과 활동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점이 돋보이며, 작년에 이어 프로그램이 확대·심화되어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이 구조화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성인지적 관점 접목과 프로그램의 보급의 필요성

가출 청소년들이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 프로그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여 십대여성들에게 맞는 성인지적·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정보 그리고 운영 노하우를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프로그램 보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직원들의 경험과 자원 활용, 운영 노하우 축적 그리고 구조화되고 탄탄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단순한 프로그램 복사는 위험하다고 본다. 특히 단기쉽터인 경우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본 기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단기 쉽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잦은 입·퇴소, 구성원들의 이질적인 성향과 욕구, 초기 관계 맺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세심한 준비작업과 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된다.

③ 실무자의 적극적인 태도

테마프로젝트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면서 모니터링 팀에게도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해 프로그램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꼼꼼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점이 드러나고 클라이언트들과도 개방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다. 5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것이 청소년들에게 맞는 것인지를 알

아보고 단기쉼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9. 애란세움터

1) 기관소개

미혼모를 위한 중장기 그룹홈으로 미혼모시설 퇴소 후 거처가 불안정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안정된 거처 제공, 기술교육과 학업증진,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재가출, 재임신, 약물, 성매매 등을 방지하며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돕는다.

2) 사업 실시 개요

애란세움터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30】 애란세움터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혼전 임신 경험을 한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p>목적: 애란세움터 청소년이 가정폭력 및 방임, 가출, 학업중퇴, 혼전 임신 및 자녀상실, 사회적 착취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자립에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받아 자신을 돌보며 그들의 삶에 주인이 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자립생활을 한다.</p> <p>목표 1.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며 자기관리를 할 수 있다. 2.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립을 한다. 3. 건강한 가족과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사회적 자립을 한다.</p>

기간	2006년 2월 ~ 12월
대상 및 인원	애란세움터 입소 청소년 6명
예산 및 결산	8,000,000원/5,778,5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애란세움터의 사업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31】 애란세움터 사업진행 일정

내용		기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강한 자기관리	Self care	→	→	→	→	→	→	→	→	→	→	→	→	→
	또래교육자되기			→		→	→	→	→				→	
건강한 관계맺기	건강가족 만들기 집단			→	→									
	애란 세움터 가족 나들이	→	→		→				→	→	→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교육 및 회의		→					→					
		멘티/멘토 모임				→								
기술 및 학력성취	자립 준비 교육 (기술교육, 검정고시)	→	→	→	→	→	→	→	→	→	→	→		
	직업 멘토링										→	→		

(2) 사업결과

애란세움터의 사업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2】 애란세움터 사업 결과

프로그램명	계 획	실행결과	계 획과 실행 비교
1. 건강한 자기관리 1) self-care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돌봄 워크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이완 - 건강한 식단 꾸미기 - 외모 가꾸기 등 ○ 대상자에 대한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제 논의 ○ 5명/연간 5회(워크샵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샵 주제: 건강한 식단, 스킨케어, 건강한 겨울나기, 건강한 성관리 등 ○ 워크샵을 통한 월 진행 P/G: 스트레스 관리하기, 식단 꾸미기, 운동, 외모가꾸기 등 ○ 6명/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 일부 변경 (건강한 겨울나기 추가) ○ 워크샵을 개별활동으로 변경.
2) 또래교육 자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란원 입소자 교육 시강사로 참여 ○ 강사로서 필요한 기술습득 ○ 11명/월1회(총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란원-아기장래집단 P/G: 강사 4회 참여 (4명) ○ open house 강사 참여 및 애란 세움터 소식지 기고 (2명) ○ 6명/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들의 직장 및 학업관계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획된 회기를 달성하지 못함.
2. 기술 및 학력성취 1) 직업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가족이 만난 직업인(영상물 또는 스토리 보드 제작) ○ 직업인과의 만남 ○ 직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의 희망 진로와 관련한 전문직업인 인터뷰 및 탐방 ○ 대안학교에 의뢰한 ct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계획에서는 영상물 제작을 통한 직업탐방을 계획 하였으나 학업 및 직장생활로 활동시간을

	○5명/연간 11회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4명/연간 11회	맞추기 어려워 대안학교를 통한 직업 탐방 프로 그램으로 변경.
2)개별 교육지원	○선택한 진로에 맞는 교육지원(기술교육& 고등학력 취득 교육) ○자신이 선택한 직업 훈련 지원 ○5명	○대입검정고시 합격 2명 ○내알아트 초고급수료 2명 ○미용사 자격 1명 ○한·양식조리사자격 1명 ○대안학교 입학 2명 ○전체 6명(중복지원)	
3. 건강 한 관계맺기 1)건강가족 만들기	○가족과 건강한 의사소통 ○건강가족과 폭력가 족에 대한 이해 ○5명/주1회(4~6월)	○건강한 가족 만들기 &의 사소통(폭력가족 포함) ○건강한 이성교제와 성생활 ○5명/5회	○외부지원금 연계프 로그램으로 사업 도중 인력공급이 중단되어 축소됨 ○계획했던 것 외 에 건강하고 평 등한 성/이성교 제 프로그램 부 가 실시
2)애란세움 터 가족 나들이	○여행 및 문화체험 실시 ○대상자의 욕구를 반 영하여 변경 가능 ○ 7명/월1회(11회)	○찜질방, 문화시설 관람, 놀이시설나들이, 외식 등 문화체험 6회 실시 ○9명/연간10회	○대상자와 워커의 변동으로 목표량 보다 미흡
3) 멘토링 프로그램	○ 멘티/멘토 1:1 결연 15명 ○멘토 정기모임 5회 ○멘티/멘토 전체모임 2회	○멘티/멘토 1:1 결연 15명 ○멘토 정기모임 2회 ○멘티/멘토 전체모임 1회	
4.개발 P/G 자조모임		○11월 1회실시 ○퇴소생 5명, 입소생 2명	○계획에 없었으나 입·퇴소생들의 욕 구에 따라 실시함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애란세움터의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 평가는 다음과 같다.

【표 3-33】 애란세움터 사업평가

프로그램		참여자	평가방법	평가결과
건강한 자기 관리	Self care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의 의식주의 기본 생활습관의 변화 (인스턴트식 줄어 듦, 몸청결을 고려하려 실천률 증가, 거울에 속옷 챙겨입기, 습도 및 온도조절에 관심 증가) ○ 세움터의 식단 및 생활이 규칙적으로 됨
	또래 교육자되기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경험에 대한 내면 정리하고 정서적 안정 ○ 선행 경험에 대해 강사로 후배들에게 오픈하여 아기장래 결정과 입양 후 경험과 자립생활에 대해 유익한 정보제공
건강한 관계 맺기	건강가족 만들기 집단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 및 평등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기술 습득 ○ 배운 기술을 반복 연습함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하게 됨
	애란세움터 가족나들이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움터 가족 활동을 통한 친밀감 증진 ○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즐거운 가족놀이
	멘토링 프로그램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관계에 대한 정서적 욕구 충족 ○ 자신의 문제나 과제 생기면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생김

기술 및 학력 성취	직업 멘토링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직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습득 ○ 직업 멘토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세부 계획 수립 ○ 자신의 직업선택 범주의 확장
	개별교육 지원 :기술교육, 검정고시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료증 ○ 자격증 ○ 3개월 이상 안정된 취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치료 식구 1인 제외한 전원 자격증 취득 및 수료 ○ 안정된 취업 3명(전원 현재 교육과 동일직종에 취업 후 직장 변동 없이 지속 중)
개발 P/G	자조모임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평가 ○ 워커 관찰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전출산 경험과 세움터 자립경험에 대한 선배간의 정보공유 및 정서적 유대감 증진 ○ 퇴소자의 자발적인 지원망 형성 ○ 향후 멘토/멘티 관계 형성 욕구 확인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 담당자의 평가

① Self-care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자기돌봄 워크샵을 통해 자기돌봄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워크샵의 강사로는 선정주제를 이미 유능하게 실천하고 있는 퇴소생과 식구들, 멘토를 강사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워크샵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해 주었고, 강사의 선택에서 유능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실생활의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운동 등을 하게 함으로써 ct들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었고,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안정되게 가꾸는 방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였다.

② 또래교육자 되기

ct들이 애란원의 아기장래결정 집단교육시 강사로 참여하고, 기관의 행사 및 소식지에 자신의 경험을 기고하도록 하여 혼전 임신/ 출산/ 입양경험을 ct들의 자립과정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입양경험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ct는 강사로 참여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강사로 준비된 인원이 많지 않아 매월 강사가 세워지진 않았으나 향후 자신의 입양경험을 나눌 수 있는 ct가 더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지속하여 더 많은 ct에게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양을 보낸 경험과 아기에 대해 드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ct에게 주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입양경험이 정리되어 스스로 자기 경험을 오픈할 준비가 된 사람을 강사로 세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직업멘토링

대상자의 변동과 인력의 변동으로 주변의 멘토와 가족들의 직업세계를 탐방하고자 하는 처음의 계획과 달리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1명은 대안학교에서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다양한 직업멘토와의 인터뷰와 자신의 희망직종에서의 인턴쉽을 경험하였고, 1명은 희망 대학의 선배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개별적인 직업멘토와의 인터뷰로 ct자신의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목표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 또한 그에 따른 직업멘토의 확보가 필요하다.

④ 교육지원

세움터의 식구들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프로그램이었다. 직업훈련 교육비가 지원되어 취업 후 자립이 이루어졌으며, 학비지원이 된 경우 성실하게 학업을 진행하며 대안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교육비 지원부분이 가장 큰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으나 개별 진로와 욕구에 맞게 지원되기에는 부족하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비 지원은 ct들에게 자립을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더 빠른 자립을 도울 수 있다. 앞으로 교육비 지원금액의 상향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⑤ 건강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외부지원금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사업도중 사업인력의 공급이 끊어졌고, 이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효과성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작년에 진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올해에 검증할 수 있었다. 말하기, 듣기, 협상하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듣기만 하였던 ct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 말하라”라는 교육을 통해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였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향후 지속되면 좋은 프로그램이다.

⑥ 세움터 가족나들이

영화관람과 외식 등 문화체험이 주를 이루었으며, 친밀감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집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10대 친구들과 20대 친구들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웠다.

⑦ 멘토링 프로그램

현재의 멘토와 멘티는 관계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멘토, 멘티의 1:1만남은 월 1회~4회 정도로 개별 상황에 맞게 진행되었으며 멘토는 일상생활 및 다양한 영역에서 멘티에게 도움을 주었다.

멘토와 멘티 전체모임은 서로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1회만 진행되었으나 개별적인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신뢰를 갖고 이루어졌다. 현재 세움터(퇴·재소생) 모든 ct가 멘토가 있는 것은 아니다. ct의 욕구는 거의 100%이나 장기간(1~2년 이상)동안 꾸준히 멘토를 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멘토들에게 멘티와의 만남에 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하여 멘토 정기모임을 활성화하고 동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⑧ 기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대상자들의 변화와 담당자의 이동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 일정이 변동되었다. 특히 대상자들이 취업하고 자립을 준비하여 퇴소함에 따라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였던 인원 중 과반수이상의 인원이 변동되었고 대상자들의 자립계획에 따른 스케줄이 상이하여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워크샵 일정이 집중되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면도 있었으나, 워크샵 내용이 주제는 다르지만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어 ct 스스로 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실천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이번 프로그램이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프로그램 중에 선택하여 특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향후 계획

2006년도 늘푸른 테마기획사업은 참여자들로부터 만족도와 변화가 좋았으며 2007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Self-care 프로그램은 향후 참여자들의 욕구를 더 구체적이고 민감하게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또한 또래 교육자 되기 프로그램은 상실 과정을 자조모임을 통해 더 구체화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현재 세움터의 직업 멘토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참여자들의 결연 욕구도 높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운영 자급에 대한 보완과 멘토와 멘티의 결연 후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교육지원은 1인 1기의 자립기술과 고졸이상의 학력성취를 위한 지원, 교육 받은 기술과 동일 직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의 안정된 취업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07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은 2007년 중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세움터 가족나들이는 문화체험활동과 더불어 월 1회 지속할 예정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직업 멘토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자조모임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담당자의 소진 가능성

한 명의 담당자가 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소진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자 직원 1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모니터링팀은 동료들간의 지지체계 및 상급자로부터의 수퍼비전, 실무자들간의 워크샷 등을 통해 업무 및 정서적 도움을 받도록 권하였다.

② 사례에 관한 토의

담당자는 참여자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동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모니터링팀에서는 바로 직면

하게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멘토와의 관계를 통해서 치유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결중심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해결중심치료 전문가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연락해 보도록 하였다.

③ 프로그램 개발

퇴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퇴소자들을 초청하여 홈커밍데이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퇴소자들만의 모임을 구성하여 서로 간에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조모임을 설명하면서 인원이 확충되고 필요하다면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조언하였다.

④ 평가 척도

평가척도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여 기존의 자립관련 척도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관련된 척도를 모니터링 팀에서 알아보고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ACLSA 척도 중 관련 영역(돈관리, 자기보호, 사회적 관계)의 척도를 보내주어 참고하도록 하였다.

(2) 총평

① 과도한 프로그램

자립영역에서 자기보호,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목표에 맞게 잘 짜여져 있으나 실무자가 담당하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다양했다. 개입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중간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담당직원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 하반기에 인력이 보충되었으나 프로그램의 심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조정(프로그램 우선순위를 명확화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또는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멘토들의 역할과 활동이 눈에 띈다. 또한 멘토 연결에 대한 욕구가 100%라는 점은 기관들이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만하다.

일상생활 영역이나 직업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욱 특성화시켜 프로그램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겠다.

③ 실무자의 적극성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애정을 갖고 신뢰하는 자세가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습적 가출이나 우울 등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겠다.

10.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1) 기관소개

21세기를 살고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언론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과 미디어 시대의 일꾼을 양육하기 위한 갖가지 열린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교 밖 배움을 이어가는 탈학교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사업실시 개요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의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3-34】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사업개요

프로그램명	탈학교 청소년들의 세상 門열기
목적 및 목표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탈학교 십대 여성 청소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익혀야 하는 다양한 학습과 절차를 통해 향후 사회에 나아가 겪게 될 직업/창업에 대한 선행 경험을 하게 한다. 2. 창업 과정을 통해 탈학교 십대 여성 청소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인지한다. 3.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 종속되지 않고 대인 기술과 생활 기술 및 자기주장과 설득력 등을 배워 궁극적으로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역할을 경험하게 한다.
기간	2006년 4월 ~ 11월
대상 및 인원	십대 여성 탈학교 청소년 10명
예산 및 결산	8,000,000원/8,00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35】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사업진행 일정

추진사항	일정	목표	사업진행내용
인력구성 및 준비	4월~5월	참여인원 선발 및 확정	- 참여인원 선발 및 확정

기초학습	5월~7월	활용능력배양	-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기술
			-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 활용
			- 디지털 카메라 활용
시장조사	5월	기존 시장 현황 파악	- 인도/네팔 상품 소개 및 상품
			- 특성 교육판매 물품 선정 - 인터넷 쇼핑몰 현황 조사
창업관련 절차 학습	3월~5월	창업 메커니즘 파악	- 창업 관련 법령 익히기 - 세무 관련 절차 익히기
사업자 등록하기	5월~6월	사업 공식화	- 정식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의 정식 운영을 공표함. 참가학생 4명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함
회사 로고제작	6월	회사의 상징인 로고 제작	-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회사 로고 결정
사업진행 일시중단	7월~8월		- 구성원간 개인적인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어 1달 반 넘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구성원 중 일부 학생은 창업 프로젝트 중단함.
신규인력구성	9월	신규 참여인원 모집 / 구성	- 신규 참여인원 확보
사업 아이템변경	9월	아이템 변경 후 사업 내실화	- 상품 판매 쇼핑몰에서 홍보영상제작 사업으로 아이템 전환
홈페이지 기획/제작의뢰	10월	홈페이지 기획 제작	- www.dd4u.com 도메인 등록 및 홈페이지 제작
명함제작 및 새로운 로고 제작	10월	공식화 홍보 극대화	- 명함 제작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 준비
영상 제작 기본 교육	10월~11월	영상 제작 기본/심화 교육	- 영상 제작, Mac 기반의 영상 편집 기술 교육
사업 시작	10월 ~	영업활동 시작	

(2) 사업결과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6】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비교
인터넷 장돌뱅이 디디.net	<p>* 인도, 네팔 여성 악세서리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p> <p>→ 인도/네팔 현지인을 통해 들여오는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쇼핑몰 중심 진행(온라인 유통 중심)에서 영상물 제작(제작 서비스)로 업종 변환 o 청소년 참여에서 교육의 비중을 강화하고 교육 후에도 인턴 활동을 통해 창업 프로젝트에 최종참가하는 학생을 선발함. → 참가학생에게 직업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감 부여 o 총 8명의 여성 청소년이 창업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받았으며 이중 4명의 청소년이 [DiDi Pelicula]라는 이름의 홍보 영상 제작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o 현재까지 ①중랑청소년수련관 [통일청소년위원회] 홍보영상 ②중랑청소년수련관 [21세기 청소년위원회] 홍보영상 ③인하대 노래패 A.S.A 30주년 기념 홍보 영상 ④올림픽아드 학원 홍보 영상 ⑤서대문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함. 총 5곳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도출하였으며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제작 프로그램교육[Final cut pro] 및 디자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p>* 영상 편집 전문인력인 자원봉사자의 연결로 영상제작 기술의 질을 높임.</p>	<p>* 기존에 계획했던 인도 네팔악세서리, 여성의류 등이 이미 시장에 많이 판매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하고, 물품공급을 받기로 했던 인도네팔 현지인의 물품공급 기간이 너무 더더 경쟁력이 떨어짐. 이에 따라 영상 미디어 특성화 학교인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인 홍보영상 제작사업으로 창업 아이템 변경함.</p>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초기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팀은 초기 세팅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참여 학생들간의 갈등)이 있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탓에 편이 갈리기도 하였고 여학생들로만 구성하려다 보니 동기가 불명확한 학생이 함께 한 탓도 있었다.

초기 4~5회 가량 회의 및 교육이 진행되었을 때는 시작한 학생들 모두 열의를 보였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열의가 떨어지고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 장밋빛 희망만을 가지고 참여했던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했었다. 이후 업무일지/교육평가서 작성이 소홀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었으나 참여 학생들의 갈등이 생기면서 더욱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8월 이후 새로운 아이টে으로 새롭게 꾸려진 팀에서는 미디어스쿨 졸업생 중 리더 역할을 해 줄 학생 1명과 실제적으로 영상 제작 경험이 풍부한 학생 1명 그리고 기존의 창업 활동에 열의를 보였던 2명이 팀을 꾸려 진행하였다.

팀의 언니로서 리더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학생을 중심으로 매주 업무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 일지를 꾸준히 기록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홍보동영상 사업이 진행되며 의뢰받은 제작물들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등의 활동 등을 보면서 참여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출근과 동시에 업무 전달을 받고 퇴근 전 업무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문건으로 공식적인 활동들을 기록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꼼꼼히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무 후 문제점, 개선점 등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앞으로의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 담당자의 평가

2006년 테마프로젝트로 시작한 [인터넷 장돌뱅이 디디.net]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프로젝트였다. 사업 중간에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로서 [인터넷 장돌뱅이 디디.net]을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사전 조사가 좀 더 면밀했어야 했다.

[인터넷 장돌뱅이 디디.net]의 초기 기획은 인도/네팔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외로 인도/네팔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오프라인 상점이 많아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고 상품 수급의 속도도 굉장히 늦었다. 사전에 이러한 면들을 좀 더 파악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정했어야 했다.

② 참가 청소년들의 동기 유발/갈등 조절에 민감했어야 했다.

참가 청소년들에게 참가 신청서와 자기 소개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 선발하였지만 선발 당시 창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창업을 통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고 그로 인한 준비와 실패까지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많은 신경을 썼어야 했다. 서로간의 사소한 감정 대립이 결국에는 사업을 중단하게까지 이르게 하였다.

③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전개했어야 했다.

초기에 계획했던 쇼핑몰 운영은 청소년/지도교사가 모두 처음 해보는 시도였

다. 초기 기획시 새로운 사업보다는 그동안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분야의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전개했다면 시행착오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 아이템 선정을 하는 시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④ 경험 많은 조력자가 필요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창업 프로젝트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2006년 첫 걸음을 내딛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그 준비를 밑바탕으로 2007년 또는 그 이후 지속적인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 향후 계획

홍보 / 마케팅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단지용돈벌이로 참여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영상제작/편집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사업을 전개하겠다. 또한 단순한 홍보 동영상 제작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있는 영상 제작 (소규모 다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프로그램 지연

6월에 쇼핑몰 오픈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7, 8월로 연기되었다. 이는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판매할 물품을 고르는데에도 시간이 필요했

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여자 5명(한명은 졸업생)이 확보되었으나 이는 목표대비 50% 수준이었다.

복잡한 절차와 쇼핑몰 오픈이 늦어진 점 그리고 저조한 참여인원이 청소년들의 의욕을 저하시켰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태였다. 담당자는 사업준비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쇼핑몰에 일부 악세서리나 옷 등을 판매해 봄으로써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인터넷 판매 경험을 쌓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목표에 비해 참여인원이 적으므로 더 많은 인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였다. 인원모집이 어려우면 인터넷 사업이 안정되었을 때 후배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연결하여 판매노하우를 알려주고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 총평

①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필요

초기 사업계획은 참신하고 청소년들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실무자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작업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되다보니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점들이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바꾸어야만 했다. 이후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험있는 학생의 도움으로 영상제작 및 편집이라는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아이টে으로 변경하면서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는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담당자는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리라 보며, 이후 프로그램 개발시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외부 전문가나 경험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② 성인지적 관점이 접목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대안학교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준비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며,
성인지적 관점이 접목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IV. 확대사업기관 최종보고 및 모니터링 평가

1. 강서정신보건센터

1) 기관소개

강서정신보건센터는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신장애인을 돕고 지역 내 정신건강을 지키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기관의 전문성을 서로 협력하면서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재활, 홍보, 사례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온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강서정신보건센터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1】 강서정신보건센터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보호시설 십대여성 정신건강 지원사업
목적 및 목표	목적: 본 사업은 보호시설 십대여성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가출 유형별 사례관리 서비스 및 전문 치료기관 연계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예방사업과 서울시 보호시설내의 십대여성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기초자료 확립 및 Network 강화로 십대여성들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p>목표 1. 보호시설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가출 유형별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의 실제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목표 2. 보호시설의 십대여성 및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하여 정신건강증진을 돕는다.</p> <p>목표 3. 보호시설 십대여성의 정신건강 상태조사 및 연구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 보호시설 십대여성의 정신건강 기초자료를 확립하고, 센터와 정신건강 전문기관간의 지속적인 Network확대 및 강화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p>
기간	2006년 1월 ~ 12월
대상 및 인원	서울시내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10대~20대 여성 305명
예산 및 결산	26,000,000원 / 26,00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강서정신보건센터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2】 강서정신보건센터 사업 진행 일정

내용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출 유형별 정신건강 사례관리	가출 유형별 정신건강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회의												

예방사업	활용교육	일차적인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및 기타 정신건강 선별검사 활용 교육	
	실무자 정신건강 교육		○ 실무자 정신건강 교육 실시	*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태조사발표 및 토론회와 통합하여 진행함.
	보호시설 입대여성 정신건강 교육	- 다양한 정신건강 이슈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시설 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함.	○ 11/29, 12/13 2개 기관 7명 대상으로 교육 실시/우울증 예방을 위한 낙관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기관의 욕구를 파악하느라 일정보다 늦게 시작하였고, 실시 당시에는 기관의 프로그램이 포화상태였고 기관과의 일정조정의 어려움으로 축소됨.
정신건강지원 Network 확대 및 강화	정신건강 상태조사	- 서울시 보호시설 내 입대여성의 정신건강 상태조사를 통하여 정신건강 문제발견 및 적절한 치료 및 연계를 돕고자 함.	○ 4월부터 준비작업 시작하여 9월에 서울시 내 입대여성 보호시설 정신건강 상태조사 실시: 23개 기관 211명 ○ 각 센터별 상태조사 결과 보고	
	정신건강 상태조사 위상	- 정신건강 치료기관, 기관 실무자, 사례관리자등과 파악된 보호시설 입대여성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입대여성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함. (시기: 11월)	○ 12월 7일 정신건강 상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실시: 보호시설의 실무자, 정부기관, 정신과전문의 등이 보호시설 입대여성의 서비스에 대한 제언의 자리를 마련함.	
	정신건강 상태조사 보고서 발간	- 파악된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서울시 보호시설 내 입대여성의 정신건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기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네트워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함. (시기 : 11월)	• 2월에 정신건강상태조사 보고서 발간 • 입대여성 정신건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 및 유관기관 배포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본 사업 중 정신 건강 스크리닝, 정신건강면담, 심리검사나 병원연계 중 한 개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보호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진행의 만족도와 본 서비스를 받은 이후의 대상자의 문제 행동감소, 자립영향정도에 대해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2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54%가 본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는 '보통', 14%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본 사업의 서비스(정신건강면담, 심리검사, 병원연계 등)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행동의 감소여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 '변화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감소는 나타나지 않으나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단기 보호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 치료 등의 어려움이 있어 문제행동 감소의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사업이 대상자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0%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1%는 '보통이다', 9%는 본 사업의 서비스와 대상자의 자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우, 직접적으로 상담이나 심리검사 치료 등이 자립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특수학교 연계나 기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거시적으로 대상자의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의 평가

①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입소자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② 서울시내 입소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가 조사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개별 파일을 기관 측에 발송함으로써 입소자의 상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하여 보호시설에 입대여성의 정신건강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③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월별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지출이 절감되었으며 절감된 비용으로 입대여성 정신건강 교육비에 활용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상태조사에서 도구 구입비를 자부담으로 하여 절감된 예산으로 설문조사 답례품을 제작하여 설문 회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

(2) 그 이외의 평가 (참여자의 평가, 서술적 평가 등)

참여자들의 서술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주 1회와 같은 지속적인 방문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타 기관연계 시 대상자의 서비스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 정신건강이나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 정신건강 스크리닝과 심리검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3) 향후계획

추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실무자 정신건강 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이며, 본 센터를 통한 지원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치료기관으로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하여 접근성이 높고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 발굴을 할 계획이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설문지 작성

모니터링팀에서는 상태조사결과가 보고서로 발간되고 정신건강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설문지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당부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조언으로 문항들이(집을 나온 시기, 계기, 쉼터관련 문항 등) 전체적으로 순서에 맞게 연결되도록 배열을 다시 하도록 하였고, 묻고자 하는 질문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주제에 따른 문항들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 없는 문항은 빼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응답이 번호를 체크하는 것보다 숫자를 직접 기입하는 방법이 분석시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척도는 문항이 너무 많고 3점 척도여서 중간에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성인지적 관점 척도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빼도록 하였다. 그러나 설문지 보완작업이후 센터 측에서 정신건강 실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설문지를 활용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졌다.

(2) 총평

① 프로그램 확대 및 심화 필요

실무자들이 테마프로젝트 실행에 적극적이고 몇 년간 확대사업을 실시해 온 기관이므로 테마프로젝트를 위한 자원 연결이나 동원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프로그램 개발보다도 이제는 본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확대나 심화가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이나 청소년자립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현재의 테마프로젝트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정신건강 실태조사 활용

십대 여성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보호시설 실무자들은 십대 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조사대상자들 중에 정신지체가 많았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실무자들이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2. 글로벌케어

1) 기관소개

글로벌케어는 의료인, 전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의료와 복지를 함께 실시하여 국내외의 가난하고 병든 이웃에게 사랑과 치료를 나누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구이다. 국내사업으로 소외계층 이동진료, 무의탁노인 의치사업, 외국인 노동자 진료사업, 긴급 구호 등을 실시하며 국외사업으로는 베트남, 몽골, 라오스,

예멘, 나이지리아, 이라크, 인도 등을 대상으로 진료, 식수개발·보건위생·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글로벌케어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4】 글로벌케어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보호시설 십대여성 신체건강지원사업
목적 및 목표	목적: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중 특히 가출 청소년들의 건강을 돌봄으로 잠재적 인적자원 보존과 개발을 도울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는 소외된 가출 청소년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목표 1. 개별적인 건강실태 파악 및 체계적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2. 필요시 기초검진을 통해 소외된 청소년들의 의료욕구를 해소함. 3. 한방치료를 도입하여 의료만족도를 높임. 4. 시설 청소년들의 향후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가짐 5. 병원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함.
기간	2006년 4월 3일 ~ 12월 17일
대상 및 인원	서울시 관내 십대여성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를 이용, 입소하고 있는 십대여성 / 120명
예산 및 결산	30,000,000원/30,00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글로벌케어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5】 글로벌케어 사업진행 일정

세부사업	일 정	내 용
의료자문위원회 선정/ 전문Team구성	1월	의료자문위원 회원병원 선정/ 진료Team구성
정서적 지지	2월 ~ 11월	rapport 형성/ 정서적지지
기초건강실태 파악(시설)	2월 ~ 11월	기초건강실태 파악(시설)
의료비 지원	5월 ~ 12월	의료비 지원
건강교육	10월	건강관리/ 건강교육/ 성교육
사후관리	12월	사후 건강관리

(2) 사업결과

글로벌케어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6】 글로벌케어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비교
의료자문 위원회 / 진료 Team구성	- 진료과목별 의료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료 및 검진팀 구성	o 글로벌케어 실행위원(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한방)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검진팀 구성함.	* 계획대로 실시함.
정서적지지	- 진료 전 개인을 통한 정	o 진료와 교육을 통해 직접	*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

	서적 지지를 제공함 / 인원: 월40명 이상	만난 11명에 대해 정서적 지지 제공.	고 시설의 실무자를 통한 실태 파악으로 대상인원이 축소됨.
기초건강 실태파악	- 시설에 있는 십대여성의 기초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필요시 적절한 검사기회 제공/ 인원: 월 20명 이상	o 테마프로젝트 참여기관 중 쉼터, 그룹홈 등 8개소에 대해 전화상담 및 욕구조사를 통해 파악함.	
양방진료 (필요시)	- 양방 진료를 통한 진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진료 (치과, 산부인과)실시/ 인원: 월60명이상		* 기관들이 기존에 연계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고 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십대여성이 의료 보호를 통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어 기관 자체적으로 진료를 실시하지는 않았음.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기초검사 및 진료 후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인 건강관리를 해줌/ 인원: 10명 이상		* 개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없었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정밀건강 검진	- 기초검사 및 진료 후 정밀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밀검진실시		* 필요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밀검진까지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없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서 실시하지 않았음.
의료비 지원	- 병원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o 쉼터, 그룹홈을 대상으로 총 62명에게 진료비, 의약품비, 수술비, 입원비를 제공하였음.	* 40여개소의 기관에 의료비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신청한 기관의 대상자 6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음.
건강교육	- 질병, 임신, 성병 등에 대한 교육을 연3회 이상 또는 필요시 실시	o 대안학교 1개소 방문하여 교육 실시함.	
사후관리	- 사업종결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에게 회원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 치료를 필요로 한 대상자들이 대부분 짧은 기간의 치료로 종결되어 사후관리를 실시할 대상자가 없었음.

(3) 평가 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① 팀 구성

테마프로젝트 담당자와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을 구성하였으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1개팀만 구성이 되었다.

② 정서적 지지

진료팀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였고 회원병원으로 연계를 위해 직접 만난 십대여성 11명에 대해서만 정서적 지지를 한시적으로 제공하였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것에 대해 안 좋은 느낌을 가지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③ 기초건강실태 파악

기관방문을 통해 개별적인 건강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대신 욕구조사를 통해서 8개소의 쉼터, 그룹홈, 대안학교를 이용, 입소하고 있는 십대여성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였다.

④ 건강교육

욕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각 시설에 맞는 건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팀이 시설에 방문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은 관계로 보호시설을 방문하지 못하였다. 대신 대안학교 1곳을 방문하여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⑤ 의료비지원

쉼터, 그룹홈 등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보호시설 예산의 구조상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규모도 적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은 의료보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제외한 수술과 치과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한 십대여성의 경우 치과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치과는 고액을 요하는 치료가 많아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테마프로젝트를 통해 쉼터와 그룹홈에

있는 62명의 십대여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관자체 평가

(1)사업담당자 평가

① 프로그램

처음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사업과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십대 여성을 만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하려면 저녁시간을 이용해야 하는데 실무자와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진행이 늦어졌다.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였는데 의료비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처음 의료비 신청이 적었다. 이후 테마프로젝트 참여 기관외의 기관으로 확대하여 40여개소의 의료비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보호시설을 이용, 입소하고 있는 십대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자립을 준비하는 십대여성의 경우 의료비 지출은 자립준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테마프로젝트를 통한 의료비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은 일부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되는 경향이 있어 좀 더 많은 십대여성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금액의 조정과 지원방법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재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진료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어도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기관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대부분 의료보호 1종으로 전환되어 의료혜택을 받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중 건강검진 보다는 의료비지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기관방문을 통해 하기로 계획했던 건강교육이 실행되지 못한 문제점이 생겼다. 보호시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더라고 일부 기관에 대한 건강교육이나 강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인 기관방문을 통해 진료와 함께 건강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관방문을 하지 못하는 기관의 실무자와 십대여성을 위해 연 2회 정도 실무자 및 십대여성을 위한 건강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사업 기간내에 보호시설의 십대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통한 의료비 지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② 인력

본 기관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와 행정지원이 가능하다. 초기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가 팀으로 구성이 되었으나 의료비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된 관계로 적절한 인력의 활용이 부족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기관의 회원병원들과 보호시설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시설에서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병원을 이용하기를 원해 치과를 제외하고는 회원병원과 보호시설간의 연계가 부족하였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과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사업에서는 연계 정도가 적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병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그 이외의 평가(참여자의 평가, 서술적 평가 등)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기관(또하나의집, 상록자립생활관, 서울 나자렛집, 서울 YMCA청소년쉼터, 어울림청소년쉼터, 청운자립생활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받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비 신청은 신청서와 같이 입소확인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하도록 하였는데 신청하는데 신청방법은 적당하였다. 그러나 소액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액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데 가급적 신청자의 편리를 위해 팩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② 기관에서 지출할 의료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비 지원금액은 적절하였다. 그러나 고액의 초과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치료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치아교정, 사시교정, 암내, 코골이, 여드름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③ 의료비 예산이 부족한 기관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입소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외부자원으로 연계를 할 수 있었고 우선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④ 자립을 준비하는 십대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 의료비 지출에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자립준비에 대한 목표의 수정없이 자립준비를 지속하도록 하였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립에 대한 의욕을 높일 수 있었다.

⑤ 의료비 지원 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여성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뇌염·독감 예방주사, 건강교육, 입소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을 위한 기구나 시설이용료 지원, 영양제, 비타민, 철분제 등의

약품지원이 필요하다.

(2) 향후 계획

①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건강관리

50여개소가 넘는 서울시의 모든 보호시설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지만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분기 1회 방문진료를 통해 십대여성의 건강관리를 할 것이다.

② 의료비 지원

의료비지원은 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건강관리와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되어져야한다. 그러나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은 결정되어야 한다.

③ 건강교육 및 강좌

십대여성에게 필요한 주제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가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건강강좌를 통해 십대여성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연계체계 준비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들을 연결하여 각 기관들이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기관 회원병원을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프로그램 지연

의료자문위원회 선정을 통해 의료비 지원심사와 병원연계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계획상의 기초건강 실태파악이나 진료,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핵심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보호시설이나 대안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욕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자체 평가에 따라, 의료비 지원 쪽으로 사업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 있었다.

모니터링팀에서는 초기 프로그램 계획시 타당성 검토 및 사전조사 작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료나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없다면 사후 질병발생에 초점을 두기보다 관리측면에 초점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초건강실태 파악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였다.

(2) 총평

① 전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및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검토 작업의 필요성

담당의사가 그만 두면서 시간제 의사가 고용됨에 따라 중요한 인적자원의 변화가 있었고 핵심프로그램인 진료,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기관의 욕구가 없어 실시하지 못하였고, 기초건강 실태파악이 축소되는 등 여러 난관을 겪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전담직원이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지연과 참여자 미확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 없이 계획이 이루어진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② 전문의료팀의 자원활용

본 기관은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3. 서울여성의전화

1) 기관소개

여성 인권단체로서 폭력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문을 연 이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서울여성의전화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7】 서울여성의전화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 - 10대 여성을 위한 경제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대중사업 -
목적 및 목표	목표1: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기획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된 기획팀을 중

	<p>심으로 그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다.</p> <p>목표2: 쉼터 거주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고 경제적 주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직접 대상층과 진행해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점검한다.</p> <p>목표3: 10대 여성 보호시설 기관 종사자 및 학교 교사에게 성인지적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이후 이들을 통해 10대 여성들에게 여성주의적 경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p> <p>목표4: 인터뷰 공모전을 통해 소외되어 있는 여성의 노동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 일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인터뷰를 전시함으로써 이후 쉼터 여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여성 역할모델을 개발한다.</p>
기간	2006년 3월 1일 ~ 11월 31일
대상 및 인원	10대 여성 보호시설 기관종사자 및 교사, 쉼터 거주 청소년 21명, 작품 25편
예산 및 결산	17,840,000원/17,738,61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서울여성의전화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8】 서울여성의전화 사업진행 일정

일정	사업내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팀 구성 - 교육 대상층 선정(쉼터 10대 청소년)

5월-8월 초	- 청소년 컴퓨터 연계 (어울림, 안젤라의 집, 성산사랑의집) - 10대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회의(총 9차) - 경제캠프 준비
8월 중순	- 소녀, 마술경제 캠프에 가다(8월 14일-16일) - 교사 및 스텝 평가회의
9월	- 10대 경제교육 프로그램 보급(각 컴퓨터 공문발송) - <움직이는 경제학교> 실시(9/28)
10월	- 인터뷰 공모전 <그녀의 25시,366일> 기획 - 공모전 홍보 및 공모 진행(10/1- 11/17)
11월	- 인터뷰 공모전 <그녀의 25시, 366일> 전시회(11/23-11/28) - 인터뷰 공모전 평가회의
12월	- 정산 및 사업보고서

(2) 사업결과

서울여성의전화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9】 서울여성의전화 사업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 비교
10대 여성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포함 개발팀 구성 - 2005년 워크북 <소녀,마술경제학교에가다> 내용을 심화, 발전.	o 개발팀 구성 기획단 8명 전문가(관련기관 3인), 대상컴퓨터 실무자(2인) o 교사워크숍 실시 o 컴퓨터 청소년을 중심으로 경제교육 워크북 개발	* 개발팀 구성의 경우, 경제 전문가보다는 대상층에 경험이 있는 실무자 위주로 구성함.
소녀, 마술경제 캠프에	- 성별 고정관념 및 돈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각 팀별 토론 및 마인드 맵핑을 통해 자연스럽게	o 경제, 직업에 얽힌 성별고정관념 점검의 계기 마련 o 자기알기 및 미래설계를 통해 자	* 컴퓨터 및 대안학교로 설정된 대상층이 컴퓨터로 집중됨.

가다	<p>점검할 수 있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체험, 명함만들기 등 놀이 형식으로 신나고 재미있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캠프 기간 중 자기 이력서 및 계획이 담긴 워크북이라는 결과물을 완성함으로써 캠프 이후에도 삶의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함 	<p>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부스체험, 참여형 워크샵으로 진행. o 실물 경제교육보다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한 가치관 교육 및 미래 설계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움직이는 경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총 2회) 강좌1. 여자, 경제와 만나다.: 여성경제세력화란? 강좌 2. 소녀와 함께 경제학교에 가다: 10대 여성을 위한 여성주의 경제교육 - 워크샵(총 2회)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 워크북 및 프로그램 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총 2회) 강좌1. 여자와 경제? 여자, 경제와 만나다! 강좌2. 실무자도 배워야 할 경제 이야기 - 워크샵(총 1회) 1. 경제캠프 프로그램 소개 2. 프로그램 시연 * 대상: 쉼터 기관 실무자(10기관) 	<p>* 2일로 기획되었으나 여건상 1일로 축소됨. 사업시기 변경됨.</p>
여자와 경제 인터뷰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공모: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과 관련된 몇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사진과 그에 맞는 설명을 포함하여 연령별. 대상별 공모 - 전시회: 공모한 사진을 지하철역 등에 전시(전시소개 및 사업소개 리플렛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인터뷰 공모전 <그녀의 25시, 366일> - 일하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그에 대한 가치평가를 재조명하고,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을 담아내기자 하였다. - 일하는 주변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십대 여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역할모델 발굴의 계기로 삼았다. - 사진의 영상물, 캐리커처등 다양한 표현물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공모전보다는 십대에게 역할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터뷰 공모전을 진행함. * 형식 역시 사진+영상물+캐리커처로 다양화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함. * 계획은 캠프 참가 10대 * 청소년들의 공모전 참가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효과를 보고자 하였으나 큰 성

		- 공모전(10/1-11/17) - 공모전시회(11/23-27)	과를 얻지는 못하였음 이후 사진집이나 팸플릿 등을 연계컴퓨터에 배포할 예정임
--	--	--	---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① 10대 여성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할 쉽터 3기관이 연계되었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15세-19세까지의 여성 21명과 함께 캠프가 진행되었다.

만족도와 관련된 평가 질문에 대한 참가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우선 캠프가 자신의 인생설계에 도움이 되었냐는 답변에 반 정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였고, 참가자 모두 적어도 고민해 볼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경제캠프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는 부스별 체험형식의 프로그램인 마법의 이력서가 가장 높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면접을 통해 꿈을 이뤄보는 성취감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자립생활체험기 역시 보드게임 형식을 도입하여 '자립의 욕구' 가 높은 쉽터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 기관이 연계되었던 점, 청소년들이 본회 교사팀보다는 함께 온 기관 실무자들과의 유대감이 깊었던 점 등은 참가자들이 초반에 프로그램에 집중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참가자들의 답변을 살펴볼 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조금이나마 발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경제 생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곧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전달되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② 경제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기관 실무자 워크숍 <움직이는 경제학교>청소녀 쉽터 총 10기관에서 실무자 14명이 참석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사업에서 설정한 대상층이 적절히 참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여성' 과 '경제'를 연결한 의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어 앞으로의 성과가 예상된다. 또한 전국 각 쉽터에 홍보 공문 및 안내지를 발송하여 비록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많은 기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③ 여성 경제세력화를 위한 대중사업 <그녀의 25시, 366일>

10대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랬으나 전체 응모자(25명) 중 10대 청소년은 총 2명으로 그다지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임구성 및 지속적인 연계 등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여성으로서 자신의 일, 혹은 주변 여성들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 라는 단어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점은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인터뷰를 통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보여줌으로서 보이되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을 조명하고 그 일상 속에 숨겨진 성차별에 대해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례들은 이후 10대 청소년 경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생활 속 역할모델 제시'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관자체평가

(1) 사업 담당자의 평가

서울여성의 전화에서 진행하는 경제교육은 기존의 경제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실물경제교육에서 벗어난 가치관 교육이며 '삶을 설계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돈을 잘 버는 비법이나 직접적인 돈 관리 방법을 전달하기 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돈'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올해 진행되었던 경제캠프는 기존의 맥락을 바탕으로 진행하되, 대상층을 구체화하고 소외된 계층에 초점을 맞춰 컴퓨터에서 거주하는 10대 청소년들과 함께하도록 기획, 진행하였다. 컴퓨터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서 지난 해 경제캠프와의 차이점은 우선 참가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존감 향상'의 내용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자립'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 자신의 자립생활을 상상해보고, 이를 디자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게임 형식을 통해 진행하였다는 것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청소년들과 이번 캠프를 진행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다. 진행팀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한 아이들, 그 소녀들이 가진 상처와 그들 앞에 우뚝 서있는 현실적인 '벽'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다. 캠프를 마치고 진행 팀에서는 '다른 듯, 다르지 않은' 소녀들에게 오히려 많이 배웠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이 캠프가 여성이 사회에 나가면서(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겪게 될 차별적인 현실에 어찌면 가장 많이 노출될, 그래서 좌절도 많겠지만 그만큼 더 강해질 소녀들에게 자립의 에너지를 듬뿍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2) 향후계획

2007년도 테마 프로젝트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이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 시도로서 우선 올해 연계된 쉼터 3곳의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 현재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상층의 욕구를 적극 반영할 것이다. 둘째, 새롭게 연계될 기관 청소년들과의 사전 설문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테마 프로젝트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는 '여성주의 경제교육 전문강사팀'을 구성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고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여성주의 경제교육의 내용을 생산하고자 한다. 강사팀과 더불어 <소녀, 마술경제학교에 가다>을 보다 널리 보급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기관에서 취지에 맞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니터링팀과 연계된 기관들과 저소득층 10대 청소년 경제교육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프로그램 활성화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대상기관을 섭외하는데 있어, 서울여성의 전화에서는 프로그램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기대하나 대안학교에서는 단순히 방문교육을 위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관섭외 외에 마술경제캠프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모니터링팀에서도 테마프로젝트 기관방문을 통해 실무자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를 권해보기로 하였다.

또한 움직이는 경제학교 프로그램(강좌, 워크샵)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매월 실시되는 테마프로젝트 기관 모임(간담회)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설종사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또 여러 기관을 모이게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므로 한 기관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방법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② 사진전시회 평가 방법

사진 공모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대효과도 큰 만큼 홍보와 평가가 중요하다. 모니터링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전시회 관람자로부터의 소감글(전시회 벽에 종이를 부착, 자유롭게 소감을 남기도록 함)이나 사진에 첨부되는 에세이에서 평가 자료를 뽑아내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2)총평

① 차별화되고 전문성이 부각된 프로그램

기관의 특성상 성인지적 관점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실무자가 테마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신뢰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 경제를 주제로 한 교육이나 경제캠프는 차별화되고 전문성이 부각된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겠다. 프로그램의 확대와 지속성이 필요하며 타 기관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겠다.

② 확대사업으로서의 총량 부족

본 기관의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월 1회 모임, 여름 경제 캠프, 사진전시회 등으로 짜여져 있는데 확대사업으로서의 프로그램 총량이 부족하게 보인다.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된 인터뷰 공모전에서는 10대 여성의 참여가 적었고 전시회 규모나 내용면에서 미흡했다고 본다. 확대사업의 핵심 특성을 살려 좀 더 많은 시설과 기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4. 상담센터 빵과 영혼

1) 기관소개

상담센터 빵과 영혼은 빈곤 가족을 위한 가족 중심적 실천을 지향, 빈곤 가족들의 삶과 영성 회복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가족의 중요성과 큰 힘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01년 서울 봉천동에 개소하였고, 이를 위해 빈곤가족과 함께 일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상담센터 빵과 영혼의 사업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상담센터 빵과 영혼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역경극복능력 강화)
목적 및 목표	- 목적: 본 사업은 십대 여성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자립을 지원, 십대여성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

	<p>는 목적을 가진다.</p> <p>- 목표: 십대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십대여성 관련 기관 실무자들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한다. 새로운 십대여성 관련 기관 network를 확대한다. 십대여성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p>
기간	2006년 2월 1일 ~ 12월 31일
대상 및 인원	십대 여성관련 기관 15곳, 731명
예산 및 결산	26,140,000원/26,140,00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상담센터 빵과 영혼의 사업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상담센터 빵과 영혼 사업 개요

내용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기획	1)담당자선정 2)기획회의 3)메뉴얼준비												
사업 홍보	1)기존사업대상 2)새로운 network 구축												
사업 수행	1)실무자워크샵 2)메뉴얼개발 3)프로그램진행												
사업 평가	1) 수량평가 2) 질적평가												
사업 종결	평가서제출												

(2) 사업결과

상담센터 빵과 영혼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상담센터 빵과 영혼 사업 결과

	계 획	실 행 결 과	계획과 실행비교
진행일정	- 1월: 사업공모 - 2월~: 사업홍보 - 2월~11월: 사업 진행 - 12월: 사업평가	o 1월: 사업공모 o 2월~: 사업홍보 o 2월~11월: 사업진행 o 12월: 사업평가	
프로그램 내용	1. 집단활동 2. 실무자 워크숍 3. 매뉴얼 개발	1. 집단활동: 강점개발/원예치료/LIFE-PLAN 을 통한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2. 실무자 워크숍: 실무자 레질리언스 강화 워크숍" 이라는 주제로 십대여 성, 사회복지, 정신보건 관련실무자 및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총 37명이 참가함. 3. 매뉴얼 개발: 6회 기획회의	
총진행회기	- 각 기관 총 8회기	o 총 15기관 중에 13기관은8회기, 나머 지 3기관은 각각 4회기, 10회기, 11회 기로 진행함.	* 각 기관의 상황과 욕구 가 반영됨.
참여기관수	- 총 15기관	o 집단활동: 15기관 총 746명 (개별상담 15명 포함)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본 프로그램은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192부의 설문지가 수
거되었고, 그 중 사전 검사에는 94명이, 사후 검사에는 98명이 참여하였다.

자립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만족한다'가 59.2%, '조금 만족한다'가 36.7%로 전체의 95.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92.9%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 척도개발 및 타당화 :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조운경, 2002에서 나의식 척도중 성취지향성, 관계성, 자기수용성 척도와 서봉연이 1975년에 Dignan의 Ego Identity Scale을 한국학생에 맞게 번안해서 제작한 자아정체감 척도에서 자기주장성 척도를 인용하여 4개 하위항목별로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성취지향성은 목표지향성, 성취동기, 의미추구성, 가치지향성, 능력, 효능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프로그램 전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에 평균 점수가 3.24에서 3.36으로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관계성은 상호작용성, 사회 최소 구성단위, 전체 속의 부분, 유사성, 가족관계 속의 나, 관계나 집단속의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3.26에서 3.40으로 향상되었으나 유의미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

자기주장성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인식하고, 개인에 대해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의 변화가 없었다. 자기수용성 자기의식, 자기탐색, 자기가치감, 자기수용, 자기성장 및 실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3.15에서 3.36으로 프로그램 실시이후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10대가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점수 차가 가장 커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4개의 하위항목을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향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실시전보다 실시 후에 모든 연령대에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실무자워크샵에 따른 평가는 워크샵 평가 설문지를 통해 5점 척도로 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내용에 대한 평가로 강의내용 1부(레질리언스 개념에 대한 이론적 소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가 22%, '조금 만족한다'가 42%로 전체의 64%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강의내용 2부(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소개&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레질리언스)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가 52%, '조금 만족한다'가 48%로 참여자의 100%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여 본 워크샵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배운 내용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는 '매우 만족한다'가 40%, '조금 만족한다'가 54%로 전체의 94%가 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여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4) 기관자체 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① 집단활동 프로그램

서울시내 기존의 십대여성 네트워크기관을 확대하여 탈북관련, 빈곤지역의 공부방, 대안학교 등을 포함한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하여 목표된 15개 기관을 달성하였다. 홍보는 인터넷 홍보와 팩스 및 전화 홍보로 이루어졌고 내부기관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기관이나 탈북기관과는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각 기관의 욕구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낮 시간과 저녁 시간을 병행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그 중 취업자가 많은 상록여자자립생활관의 경우 저녁 9시부터 진행되기도 하였다. 총 121회기 동안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총인원은 731명이며 사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총 15회기의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회기 수는 총 8회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참여자와 기관의 욕구나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회기수를 조정하여 진행하였다.

② 실무자 워크숍

실무자 워크숍은 “실무자 레질리언스 강화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십대여성, 사회복지, 정신보건 관련실무자 및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총 37명이 참가하였다. 1부에서는 배민진 강사의 “레질리언스 개념의 이론적 소개” 강의로 진행이 되었다. 2부에서는 본 사업담당자인 오수진의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참여자들의 영상을 보며 프로그램의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고, 배영미 강사의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천적 레질리언스” 강의가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실무자간의 분임토의 시간도 주어져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무자 자신의 레질리언스를 강화시키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③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을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와 함께 레질리언스 관련 자료 논문과 도서를 검토하고 진행상의 피이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총 6차례의 기획회의를 실시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리고 레질리언스 관점에 따라 매뉴얼을 정리하였다.

(2) 그 이외의 평가 (참여자 평가, 서술평가 등)

집단활동 참여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꿈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성취감과 목표감이 생기고 어떻게 문제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 방석집에서 일하면서 업주와 다른 언니들의 학대, 어둠 속에서의 감금.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

한 믿음이였다

-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 수첩만으로 모자랄 만큼 내가 할 일이 정말 많다. 정말 이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열심히 해나가야겠다. 내 미래를 위해.

-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어서 좋았다
- 나의 직업이나 장래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좋겠다.
- 개인의 특성에 맞게 자립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3) 향후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응과 더욱 심화된 교육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실무자들의 욕구에 따라 더욱 개별화된 레질리언스 강화 매뉴얼과 심화된 실무자교육이 실시되어지기를 기대해 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체계가 열악한 기관이나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탈북관련 기관에도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기를 바란다.

5) 모니터링 내용과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강사관리

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 대상기관으로 탈학교를 포함했으나 기관의 폐쇄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레질리언스 강화프로그램을 강사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의 모니터링이 계

속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2) 총평

① 다양한 매개체 활용 필요성

집단상담의 형태 외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시청각 교재의 활용, 활동성을 감안한 여행이나 기관 방문, 연화나 연극 관람 등과 같은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 레질리언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신선하고 흥미로운 매개체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한 척도사용

사례수가 많고 집단프로그램이 대부분 8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검증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2개의 척도 하위영역에서 4개를 임의로 사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하였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 수는 없으나 보다 설득력 있게 평가하려는 노력이 높이 살만하다.

③ 확대사업으로서의 총량 부족

몇 년간 확대사업을 시행해 온 경험이 있는 기관이므로 테마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였으며 프로그램의 기록도 잘 비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핵심 프로그램인 레질리언스 강화 프로그램이 전문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확대사업으로서의 총량이 부족해 보인다. 전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겠다.

5. 언니네

1) 기관소개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과 성인지적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캠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친화적 환경 구축과 여성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사업실시 개요

언니네의 사업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13】 언니네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치유와 관계 맺기를 위한 십대 여성 문화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p>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통해 자기 치유의 힘을 기르는 한편,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2.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십대 여성의 정신적 자립과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 3. 적극적인 자기표현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십대 여성 문화 생산자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p>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음읽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십대 여성들이 타로카드를 매개로 자기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게 함으로 문화 생산에 참여하고, 문화생산자(tarot teller)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함. -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 타인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게 함. - 자신의 무의식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타로카드를 치유와 소통의 도

	<p>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학교나 쉼터 등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십대 여성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이나 상담의 도구로서 타로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함. <p>2. 춤세라피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십대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강한 셀프 이미지를 갖도록 함. - 몸을 통해 표현하기를 연습하면서 몸과 정신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신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접근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집단, 혹은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서로간의 표현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함.
기간	2006년 1월 ~ 12월
대상 및 인원	보호시설의 십대 여성 및 대안학교 학생 111명, 기관 실무자 13명
예산 및 결산	27,050,000원/23,796,610원

3) 사업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언니네의 사업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4-14】 언니네 사업진행 일정

월	마음읽기 프로젝트	춤세라피 프로젝트
1~2월	프로젝트 기획	
3~4월	프로젝트 홍보, 신청 예비 기관 접촉	
5월	<서울보호관찰소남부지소> 진행	
6월	실무자 교육 진행	<우리들쉼자리> 진행
7월	<성미산학교> 진행	<여울쉼터> 진행
8월	실무자 교육 진행	<안젤라의집> 진행
9월	<난나학교>, <여울쉼터> 진행	진행 기관 없음
10월	<대한성공회행복한우리집>, <도시속작은학교> 진행	<서울YMCA청소년쉼터> 진행
11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진행	<어울림쉼터>, <셋넷학교> 진행
12월	평가 및 보고	

(2) 사업결과

언니네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5】 언니네 사업 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 실행비교
마음 읽기 프로 젝트	십대 여성 프로 그램	십대여성 대상기관 10곳	십대여성 대상기관 7곳 40명	- 본래 10기관을 예상하였으나 이보다 적은 7기관 에서 실행. 타로카드 프로그램 신청 기관이 연말 에 편중되어 있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 진행초기에 홍보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 있음.
	기관 실무자 프로 그램	총 2회 실시	총 2회 실시 13명	- 예상했던 것보다 기관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많아 교육 참가자 수를 늘림.
춤세라피 프로젝트		십대여성대 상기관 6곳	십대여성대 상기관 7곳 72명	- 호응과 관심도가 높아 계획한 것보다 1기관 더 추가로 실행하였음.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진행한 기관들에 동봉하여 보낸 평가지에 의하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행자들을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르면 두 번째, 세 번째 회기에 가장 흥미를 보였으며 심층 프로그램을 어려워하고 이해가 용이한 프로그램들에 더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마음읽기 프로그램에 따른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각 회차의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일주일에 2회 정도로 해서 전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 참여자들의 고민을 진행자가 공유하는데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② 십대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매뉴얼의 추상적인 언어를 어려워했다. 해석이 용이한 십대용 매뉴얼이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십대여성의 연령대(13~16세, 17~19세)에 맞춰 두 가지 버전의 워크북을 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③ 십대 여성의 질문은 주로 연애나 진로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더 깊이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타로 프로그램에서 공유된 이야기들을 다른 방식으로 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④ 명상 프로그램 등을 융통성 있게 첨가하여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선생님들이 맡은 클래스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들을 접목시켜 진행한 것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⑤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빠듯한 일정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보다 알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⑥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참가자들의 열정이 때로는 소란스러운 잡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춤세라피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할 수 있는 주된 기법과 주제를 정해놓고 대상자를 만나가면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조정하다보니 진행자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었고, 매번 기관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던 탓에 다른 기법과 다

른 재료, 다른 음악을 개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진행이 참가자들의 특성과 직전 세션까지의 관찰 내용, 슈퍼비전 내용을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용하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

② 십대 여성에게 가장 관심사인 몸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션 중에 참가자의 몸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자기 몸에 대한 불만,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 신체 자각 거부 등이 많이 관찰되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의 경우도 있었으나 8회기라는 단기간에 그룹으로 선불리 다룰 수 없는 주제였으므로 폭넓은 의미에서의 신체와 자아에 대한 작업만 병행하였다. 희망자들에게는 장기 세션의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음악과 동작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주로 타인에 대한 시선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그룹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대상인 경우에 더 비정형적인 움직임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졌다.

④ 언어 대신에 신체의 표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자들끼리의 친근감이 더 빠르게 형성되었다. 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할 때보다 더 빨리 친해지고, 새롭게 관계를 재형성하게 되었다는 참가자의 자기 보고가 있었다.

⑤ 강요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접촉 경험이 지속됨에 따라 자기 가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나 자기 또래 그룹의 문화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등 대상자들의 자기 개방이 이루어졌다.

⑥ 기관마다 소외되거나 심하게 무시당하거나 거의 발언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대상이 한명 이상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평등한 관계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4) 기관 자체평가

(1) 사업담당자 평가

① 온라인상의 홍보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사업 후반부에 깨닫게 되어 아쉬웠다.

② 기관의 십대 여성들이 이미 짜여져 있는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마음읽기나 춤세라피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쉬웠다.

③ 중간 중간 진행자들과 만나 회의를 하면서 진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④ 작년에 비해 진행자가 늘고 다양해져 신청기관의 특이성을 이해하고 보다 적합한 진행자에게 프로그램을 맡길 수 있었다.

(2) 향후 계획

프로젝트가 참가한 십대여성들뿐 아니라 언니네에게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아왔다. 테마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십대여성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5) 모니터링 내용 및 총평

(1) 모니터링 내용

① 홍보 방안

춤세라피 프로그램은 대상기관이 정해졌으나 타로카드 프로그램은 테마프로젝트 기관을 비롯한 쉽터와 대안학교에 홍보를 했으나 별 반응이 없다고 하여 모니터링팀에서는 복지관과 연계하거나 청소년기관에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참여자들의 불만에 대한 대처

실무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하다고 호소하였다. 모니터링팀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심각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단 그 자리에서 수용하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며, 부담 갖지 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조언하였다.

(2) 총평

① 흥미로운 매개체 활용 및 프로그램의 탄력적 적용

내면을 치유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의 형태가 아니라, 십대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타로카드나 춤을 매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는 십대 청소년들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높이 살 만하다.

또한 춤세라피의 경우 주된 주제와 기법은 정해 놓고 세부 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가 더 컸다고 평가된다.

② 실무자의 역할의 중요성

직원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듯했으나, 다행히 전임자가 일을 잘 마무리하였고 후임자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 그러나 본 기관의 프로그램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실무자와 강사간의 사전 의사소통과 사후 평가작업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강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

③ 확대사업으로서의 역량강화 필요

좋은 프로그램에 비해 홍보전략이 약하다고 본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관련된 정보 및 네트워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타로카드의 경우 사회복지관에도 확대하여 실시하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V. 성과평가

1. 실무자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1) 조사방법

실무자들이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 조사와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를 활용한 양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 조사에서는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프로젝트 경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결평가 이후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에는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 중 십대 여성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꿈틀학교, 또하나의 집, 마자렐로센터, 서울 나자렛집, 서울 YMCA청소년쉼터,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애란세움터, 행복한 우리집 등 7개 단위사업 실시기관 기관장과 실무자 11명이 참여하였다. 효과적인 포커스 그룹 운용을 위하여 십대 여성과 직접 일상을 나누고 있는 단위사업 기관의 실무자로 참여를 제한하였다.

포커스그룹은 모니터링팀의 연구원 1명이 진행하였고, 모니터링팀 연구원 2명,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담당자 1명이 참관하였다. 포커스그룹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녹음하였고 추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5년 평가에서 활용한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Scale: FIDS)는 Worell과 Remer가 개발한 척도로, 2005년 테마프로젝트 모니터링 팀에서 우리 나라 실정에 맞추어 일부 수정·

번안한 척도이다(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5).

이 척도는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에 맞는 '수용', '눈뜸', '빠져있음', '헌신' 등의 4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지적 정체성이 발달할수록 '수용'과 '눈뜸'의 영역을 거쳐 '빠져있음', '헌신'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성인지적 정체성이 이와 같이 단선적으로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4개 하위범주는 발달함에 따라 거치는 단계라기 보다는 성인지적 정체성의 수준이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5).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는 리커트식 5점 척도이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척도의 신뢰도는 .9369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조사는 유사실험설계로 통제집단 없이 참여자 집단의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을 알아보았고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확대사업, 10개 단위사업의 실무자 중 사전조사에 응답한 실무자는 50명이었고, 사후검사에 응답한 실무자는 41명이었다. 이중 사전-사후 검사 모두에 응한 응답자는 27명이었다.

2) 실무자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분석 결과 : '관념'을 '일상'으로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경험은 관념에 머물러 있던 성인지적 관점을 일상 이야기로 실현해가는 경험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또는 성에 관한 본래의 인식을 통해 형성되어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로 머리 속을 떠돌던 성인지적

관점들이 테마프로젝트 실천으로 형성되는 일상의 구조와 내용 속에 제자리를 찾고 이야기로 표현되는 경험이었다. 실제로 성인지적 관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무자들의 표현은 관념적인 내용으로 표방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무자들의 표현은 앞서의 관념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주의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실제로 구호로서의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주의의 원리와, 일상에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주의의 방법적 적용과 맥을 같이 하였다.

일상에서 발휘되는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일방향” 소통을 양방향으로 변환시켰으며, 같지 않은 ‘다름’과도 화해하게 하였다. 언제나 성취하여야 한다고 여겼던 스스로 ‘혼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더욱 많은 것이 얻어졌다. 세상 곳곳을 살피면서 숨겨져 있는 성에 관한 숨은 그림들을 알아보고 찾는 “재미”도 있었으나, 역시 세상은 성별로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1) “일방향” 소통의 변환

실무자들은 성인지적 관점을 체화하여 실현할 때 경험하는 것은 특히 십대 여성들과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변화였다. 어쩌면 권력관계의 강약에 따라 일방으로 흐르던 소통이 양방향으로 공유되는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예전에는 실무자들의 “선으로 딱 잘라버려서” 십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우리 들어보자” 하니까 “대화의 꺼리가 되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TV를 보면서, 기관의 규칙을 정하면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면서, 일상 곳곳에서 이야기의 장이 펼쳐지고, 거기에 편안히 자리잡은 실무자들과 십대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물고 있던 십대들의 입이 열리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실무자 쪽으로만이 아니

라 서로 간에도 흘렸다.

때로 “한마디도 안지고” “논리를 가지고 와서 짝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하는” 십대들을 보면서, 권력관계의 추가 옮겨가는 것을 실감하기도 한다. 십대에 당연히 할 일이라 “공부해라” 하면 “왜 해야 하나요?” 하고 꼭 묻는 십대들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추운 날씨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변도 들어주어야 하기에 번잡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무자들은 군림하는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나가는 관계의 변화를 호ant하고 조금은 자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십대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실무자들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다. 예전에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교정하는데도 쓰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게도 하였으며,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통찰하게 된다. 이제 변화하고 있고 변화해야 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의 ‘대상’인 십대뿐이 아니었으며, 그들과 함께 실무자도 변화하고 있고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2) ‘다름’에 청하는 “화해”

성인지적 관점은 실무자들에게 불편하고 거북스러웠던 ‘다름’과의 “화해”를 가져왔다. 여성주의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구호가 일상에서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나서는 자세로 구현되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십대들의 다른 생각과 행위도 알고 보니 다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 실무자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열심히 변화하지 않는 십대들을 조바심내면서 다그치곤 하였지만, 이제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해” 하는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기대한 그대로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믿음을 가져”주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변화하고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기다림”과

“희망”을 함께 얻었다. 침대는 화장하면 안된다는 생각은 싹꺼풀을 붙이니 정말 “이쁘긴 이쁜” 얼굴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슬그머니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하는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옷차림도 이유를 들어보면 스스로 창안한 스타일을 살린 미적 감각의 표현임이 이해되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소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협을 본다.

남성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던 침대 여성들에 공감하면서 남성을 적으로 돌렸던 실무자들도, 여성과 다르지만 세상의 반을 점거하고 있는 남성과 자신이 화해하지 않으면 침대들도 과거 “상처 치유”가 더디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화해를 청하니 기꺼이 거기에 응하는 남성을 재발견한다.

같은 여성들 간에, 또 남성과 여성 간에 존재하는 ‘다름’은 이제 싸워서 격파해야 할 표적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더 넓혀주고 풍부하게 해주는 속성이 된다.

(3) ‘혼자’와 병행하는 ‘함께’

성인지적 관점은 실무자들에게 여성으로서 “내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잘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온전한 삶의 양식이라는 인식을 주었다. 특히 남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상을 창조하고 굳건하게 구조화한 사회 속에서, 성에 민감해진다는 것과 여성에게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간에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나 테마프로젝트를 통한 침대 여성들과의 실천 경험은 실무자들에게 일상은 ‘혼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득하게 해준다. 이야기하기도, 경험 나누기도, 화해하기도, 누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래서 이미 굳어져 버린 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혼자’들이 만나는 ‘함께’에로의 “어떤 초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서로 나눌 것이 없어 보이는 척박한 생활 경험을 하고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있고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단지 그것 하나로 위안을 받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십대 여성들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은 강화된다. 실무자가 많은 어려움으로 소진되었을 때 다른 “실무자 선생님들이 나의 역할을 중간 중간 감당해주시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끌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튼튼한 ‘혼자’들이 ‘함께’ 할 때 생겨나는 힘의 가치를 느낀다.

남성 본질적인 속성으로 ‘혼자’하는 것을 추앙해온 세상과는 다르게 ‘제 2의 성’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혼자’를 강조해왔던 실무자들은, 이제 ‘혼자’와 똑같은 무게 중심을 ‘함께’에 둔다.

(4) 성에 관한 숨은 그림 찾기

세상에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놓치는 성에 관한 숨은 그림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실무자들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성에 관한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재미”를 맛볼 수 있었다. 성인지적 관점을 공유한 실무자들과 십대들은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몰래 맛보는 공범의 친밀성을 경험한다.

매일 보던 TV 드라마 속에도 성에 관한 인식은 숨어 있어서, “황진이” 연속극을 보면서도 이면에 숨겨진 성에 관한 그림을 찾아서 “자기네들끼리” 속삭이는 장면을 흔히 본다. 예전에는 예사로이 봐 넘겼던 행동들이 “관심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재 남자애는 어쩔 저렇게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할까 한탄하기도 한다. “제주도로 여행 가면서도” 실무자들과 십대들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찾아낼 수 있는 역사적인 것, 생활양식에 관한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외투를 걸려고 보니 너무 높이 만들어진 옷장을 보고 “아, 이걸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옷장이 아니구나” 하고 웃는다.

세상에 널린 성에 관한 숨은 그림들은 실무자들끼리 혹은 침대들과 “캐치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꺼리”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데서 그 맛은 배가된다.

(5) 아직 성별로 구분된 세상

그러나 세상은 아직 성별로 구분되어 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무장시켜 침대 여성을 세상으로 내보내려 시도하는 실무자들은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는 침대 여성을 보면서, 실무자는 세상의 요구에 맞추어 외모를 변화시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세상에 맞서 싸우라고 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을 경험한다. 직업 현장에서 “워낙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따라서 “여학생이 더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도 남학생이 더 높이” 평가받는 것을 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좌절을 공유한다. 그래서 때로 “너무 또 여성주의 차원에서 계속하다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다른 성과 공존할 때 성인지적 관점은 퇴색해버린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침대 여성들은 지금도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 사회·경제적 계단을 단숨에 상승시키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잘난 척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던 침대 여성도 일단 남성과 “연애관계를 형성”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들을 다 말살시켜가면서 남자한테 딱 종속적”인 존재가 되어서 “어쭙지 않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려 한다.

스스로 세상을 바꾸기에 너무 미약한 힘을 가졌다고 느끼는 실무자들은 “아직 도 갈 길이” 먼 현실을 재인식한다.

3) 실무자의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평가

테마프로젝트 사업실시 기간 동안 실무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정도가 변화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5개 대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일반사항을 알아보면 조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확대사업 기관의 실무자가 39.1%, 단위사업 기관의 실무자가 60.9%였다. 확대사업 기관이 5개, 단위사업 기관이 10개임을 감안하여 볼 때, 확대사업 실무자들의 참여가 약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 중 단 2명만이 남성이었고 나머지는 여성 실무자들이었다. 테마프로젝트의 주제가 '십대 여성의 자립지원사업'이었으며 십대 여성들의 거주 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무자의 성별 편중 현상은 일견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십대 여성들이 자립 지원의 과정에서 여성 실무자들과의 상호작용에 국한되는 것은 경험의 편중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아 절반 이상인 5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가 34.4%, 40대 이상이 13.1%였다.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61.7%가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천주교가 10.0%, 불교가 6.6%로 뒤를 이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21.7%였다.

응답자들 중 대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6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응답자 17.2%, 전문대를 졸업한 응답자가 10.3%, 대학 재학중인 응답자가 3.4%였다. 모든 응답자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응답자는 16.9%로 나타났으며, 결혼하지 않은 응답자가 83.1%로 앞서

살펴본 실무자의 연령과 관련들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기관에서의 직책은 실무자가 71.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기관장과 강사가 각기 8.9%였다. 여성주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0.0%, 여성주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50.0%로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5-1】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검사 응답자 일반사항

		빈도	백분율
기관구분	거주시설	18	28.1
	대안학교	9	14.0
	청소년쉼터	12	18.8
	확대사업기관	25	39.1
성별	남성	4	6.6
	여성	57	93.4
연령	20대	32	52.5
	30대	21	34.4
	40대 이상	8	13.1
종교	기독교	37	61.7
	천주교	6	10.0
	불교	4	6.6
	종교 없음	13	21.7
최종학력	전문대졸	6	10.3
	대학졸업	40	69.0
	대학원졸업	10	17.2
	대학재학중	2	3.4
혼인형태	결혼	10	16.9
	미혼	49	83.1
현재직책	기관장	5	8.9
	간부	2	3.6
	실무자	40	71.4
	강사	5	8.9
	기타	4	7.1
여성주의교육경험 유무	있음	28	50.0
	없음	28	50.0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사전사후 평균 비교 분석 결과,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에 대한 실무자들의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사전사후 검사의 경과기간이 짧았던데 비하여,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표 5-2】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사전사후 평균 비교

문항	사전/사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성인지적 정체성	성인지전	22	3.6321	.46720	-.263
	성인지후	22	3.7145	.56112	

그러나 사전 검사에 비하여 사후 검사의 평균치가 약간량 증가하였으며, 사후 검사에서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평균은 3.7145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사전사후 평균 비교에서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용 하위 영역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 모두에서 4점을 상회하는 평균치를 나타냈고, 헌신 하위영역을 제외한 세 개의 하위영역에서 평균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3】 하위영역별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사전사후 평균 비교

구분	사전/사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하 위 영 역	수용	수용사전	25	4.1600	.47958	-1.576
		수용사후	25	4.1800	.55603	
	눈뜸	눈뜸사전	25	3.5371	.56886	-1.273
		눈뜸사후	25	3.7086	.64349	
	빠짐	빠짐사전	24	3.1726	.63606	-.603
		빠짐사후	24	3.3095	.67621	
	헌신	헌신사전	26	3.5481	.52552	-.954
		헌신사후	26	3.5010	.64809	

2006년말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평균치와 2007년말 평균치를 비교해 보면 헌신 영역을 제외하고 세 개 하위영역에서 평균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용 하위영역에서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응답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두 평균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교육 과 실천 행위 등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몸에 익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4】 하위영역별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2006년말/2007년말 평균 비교

구분	사전/사후	평균	
하 위 영 역	수용	2006년	3.2294
		2007년	4.1800
	눈뜸	2006년	3.5016
		2007년	3.7086
	빠짐	2006년	3.2011
		2007년	3.3095
	헌신	2006년	3.5730
		2007년	3.5010

질적, 양적 조사를 통해 알아본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양적 조사를 통해서 발달이 느리지만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질적 조사를 통해서 관념에 머무르고 있던 성인지적 관점을 일상적 실천행위에서 적용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무자들은 실천 현장에서 스스로 정의해낸 성인지적 관점을 통하여 실천행위와 십대 여성들과의 일상생활을 운용하고 있었다.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어휘가 주는 무거움을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고 재미있고 공유되는 그 무엇으로 녹여내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포커스그룹을 통해 드러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적용의 내용은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에서는 대부분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체득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천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또다른 대안적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 십대 여성의 자립 인식과 수준 평가

2006년 테마프로젝트의 주제는 성인지적 관점의 '십대 여성의 자립지원'이었다. 따라서 2006년 테마프로젝트 프로그램 효과는 십대 여성이 스스로 자립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십대 여성의 자립 정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조사방법

테마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자립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결평가 이후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에는 또하나의 집, 서울나자렛집,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등 3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십대 여성이 참여하였다. 테마프로젝트 모니터링팀의 연구원 1명이 진행하였고, 모니터링팀 연구원 2명,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담당자 2명이 참관하였다. 포커스그룹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녹음하였고 추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테마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십대 여성의 자립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ACLSA 4.0(Ansell Casey Life Skills Assessmen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자립생활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ACLSA척도는, 미국 Casey Family Programs에서 개발되어 미국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으며 수정·보완되고 있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직업 계획, 의사소통, 일상생활, 가정생활, 주거와 경제 관리, 자기 보호, 사회적 관계, 직업생활, 일과 학업의 기술 등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8~24세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라 개별화된 다섯 개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모니터링 팀이 실행한 효과성 평가에서는 ACLSA4.0척도의 축약본인 ACLSA Sho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3점 척도로 일상생활, 자기보호, 감정관리, 의사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일과 학업 관련 기술 등 5개 영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결과 신뢰도는 .8742로 나타났다.

조사설계는 유사실험설계로 통제집단 없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참여자 집단의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사전 조사에 87명이 응하였고, 사후 조사에 60명이 응하였다. 사전, 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는 51명이었다. 조사 대상은 비교적 장기간 프로그램에 노출된 단위사업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을 알아보았고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2) 자립 인식 조사 결과 : “먹고 사는” 능력을 부여할 자립

자료 분석 결과 십대 여성 참여자들은 자립을 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먹고 거주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자립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십대 여성들에게 자립이란 자신의 모든 생활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갖는 것과 동등한 것이었다.

십대 여성들은 자립을 독립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 차원에서 독립과 자립을 비교하면서 독립과 차별되는 자립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자신을 둘러싼 외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므로 십대 여성은 자신들이 어른이 되는 통과의례가 자립을 이루는 것일까 궁금해 하면서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당신들은 자립을 이루어 어른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십대 여성들은 또한 세상이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내적 성장을 위한 훈련과 사회기술, 적응기술 습득을 통해 자립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자립의 양태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그 공간과 공간 내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을 갖는 형태였다. 이처럼 자립과 함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힘이었으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면적 변화를 피하여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우회적인 개입이었다. 어쩌면 십대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십대 여성의 독특한 자립 인식은 자립을 보살핌 행위와 연결시키는 점에 있었다.

(1) 독립과 구분되는 자립

연구 참여자들은 실상 자립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생각해 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테마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지원 받으면서, 자립이라는 어휘를 한 번 생각해 본” 것이 자립에 대한 숙고의 전부였다. “독립”이라는 표현은 십대 여성들끼리의 이야기 속에, 혹은 십대 여성들의 사고 속에 자주 떠오르지만, 자립은 “뭔가 단정지을 수 없는” 어려운 개념으로 모호한 채 남아있다.

십대 여성들의 일상에서 그 누구도 자립이라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자립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가 자립인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 알 수 없는 자립은 또다른 형태로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부모나 보호제공자와 같은 주변 사람들은 “사람이 되라”라는 ‘도덕적’ 표현으로, “너는 졸업을 하면 뭘 할 것이냐, 만약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지 않느냐”는 우회적 표현으로 자립의 모호한 양태를 제시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자립이 무엇인가 알기 위하여 십대 여성들은 “외적인 것은 독립이고 내적인 것은 자립”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하면서, 독립은 “환경”의 정비가 따르는 것이고 자립은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기도 한다.

하지만 십대 여성들에게 아직도 자립은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게,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불편하게 만드는 개념이었다. 이루어야 하는 당위와 이루어진 모양이 어떤지 모르는 모호함 가운데서, 십대 여성들은 자립을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순간 복잡”해지도록 자신들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2) 어른들은 이루었는지 궁금한 자립

누구도 세심히 설명해주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가장 큰 과업으로 부과되는 자립을 생각하면서, 십대 여성들은 “어른이 되는 것”과 자립을 연결시켰다. 그래서 십대 여성들은 “자립이 안 되면 어른이 안되는 건지” 궁금해 하면서, 자립을 주변의 가장 가까운 어른인 “부모님과 좀 대등하게 돈을 같이 내고 핸드폰비도 같이 내고, 그럴 수 있는 게” 자립일까 궁리해 보기도 한다. 자립이 되면 “성인이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하”는 상태를 말할까 머리 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립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내가 지갑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되기도 한다.

자립과 “어른이 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십대 여성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뭔지, 왜 청소년에서 어른이 되기 전에 자립을 해야만 하는 건가?”, “우리는 자립이 안되어서 지금 어른이 아닌가?”하는 응답 없는 깊이 있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여러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립을 했는지도 알면, 아 나도 비슷하게 자립을 꿈 꿀 수 있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자립 여부를 어른들을 관찰하여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연 어른들은 다 자립을 이루었을까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립했다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를 그냥 봤을 때 자기는 자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남한테 니가 자립했구나 하기에겐 쉽지 않"을 것 같음을 느낀다.

(3) 진행형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자립

십대 여성들에게 자립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행동에서 지금 내가 주냐"라는 물음에 긍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으며,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행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하고 행동이 그 안에서 딱 합쳐져서 내가 행동하는" 상태로 이름할 수 있었다. "자기 마음가짐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자기 만족감이 얼마나 되는지"로 자립의 성공 여부는 가늠된다. 그렇지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므로 "타협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고, 배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속성이 필요해진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제 의견을 말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성격 같은 거, 기분조절이라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힘"도 길러야 하며 "항상 내 의견이 맞다고만" 생각했던 것도 바꾸어야 한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기분을 잘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덕성이다. 이렇게 십대 여성들에게 자립은 내 안의 많은 것들을 갈고 닦는 방법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일은 십대 여성들에게 일생을 통해 이루어갈 과업으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자립이 됐나요 라는 말보다는 자립하고 있나요 라는 말"이 더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상태로 보였다. 따라서 자립은 언제나 진행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때 난 한번 자립이었다 이것도 아니고.. 항상 그 시작점부터 계속 자립을 배워가는 게 진행되는 자립”이라고 말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설명이 된다.

테마프로젝트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십대 여성들에게 나를 갖고 닦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좀더 나은 인간형으로 변화하기를 부추기고 있었다.

(4) “방 한 칸”과 “할 일”로 함축되는 자립

자립은 자신의 내면적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정의하면서도 십대 여성들은 자립의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형태로 내가 살 수 있는 “방 한 칸”을 갖는 것과 돈도 벌고 남에게 인정받는 “할 일”을 갖는 것을 말하였다. 통념적으로 “내가 무엇을 익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사람으로 행위 할 것인가”와 같이 자립을 깊이 연결시키는 정의와는 다르게, 십대 여성들에게 자립은 물리적 공간과 직업으로 현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자신이 몸담을 물리적 공간에 대한 바람은 지금 현재의 생활상과 깊이 관련된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십대 여성들에게서 자립과 관련하여 “방 한 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반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십대 여성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자립의 가장 큰 필요조건으로 상정되고 있었다. “집 같은 거, 혼자 살 수 있는 집”은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이들에게 “할 일”은 차라리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힘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겨졌다. “할 일”이 자신에게 살 곳을 제공해주는가가 직업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사는 곳, 그곳에 사는 데에 있어서는 방세, 집값,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돈은 덜 쓰게” 해주는 직업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자립을 위한

준비는 “방 한 칸”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식사 같은 것도 일일이 사서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음식을 혼자 해먹고” “수도도 내가 설치하고 전기, 전화도 내가 막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들을 익히는 것으로 집약된다.

“할 일”은 “먹고 사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없을 때” 꼭 세워야 할 자립의 축이다. 자립은 보호가 없는 상태이며, 그래서 “자립할 때 딱 솔직히 보면 경제적인 것이 중요”해진다. 경제적 힘을 얻는 길은 대부분의 십대 여성에게 노동시장에 나가 유급 직업을 찾는 일로 통한다. 가끔 직업이란 “너 뭐하냐 하면 나 이거 하는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역시 직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보상은 경제적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직업을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이 가진 기술들을 다 익혀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남이 가지지 않은 기술까지 익혀야 한다고 십대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3이 되는 십대 여성은 목표를 “이제 막 찾은 거라서 되게 늦은 감이 많”다고 여긴다. “갈팡질팡하는 것 보다는 (...) 일단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무슨 방법”을 익혔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을까” 후회도 한다. 직업 목표를 찾아도 그 직업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하다. 직업 목표에 맞추어 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직업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사교육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론적으로 말고 내가 직접 나가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보면서 “내가 그 직업을 했을 때, 아~ 이때 이렇게 했었지 라는 조금이라도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줄 “직업체험”도 절실히 필요하다. 십대 여성들에게 직업 획득이라는 지점은 어떻게든 “거기를 향해 달려”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분투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한 곳이다.

(5) 보살핌 행위를 가능케 하는 자립

십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언제나 보살핌 행위가 끈이 닿아 있었다. 자립의 열매로 보살핌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자립의 종착점과도 같았다.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능력이고 속성인 보살핌 행위에 대한 열망은 십대 여성들이 말하는 자립의 배경 그림에도 뚜렷이 자리하고 있었다.

십대 여성들의 보살핌의 잠재적 대상은 대부분 부모님과 동생들이었다. 지금 현재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십대 여성의 경우에는, “놓아주시고 지금까지 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부모님은 자립과 함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대상이었다. 자립을 했다고 해서 “엄마가 엄마가 아닌 것도 아니고”, 자립을 하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일방적 보살핌을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쌍방향 보살핌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지 못한 십대 여성들은 결핍된 피보살핌 경험으로 인해 보살핌 행위에 부여하는 가치가 적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이들에게 있어 가족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립의 이정표와 같았다. 이들은 “부모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 자립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추정하며, 부모님과 떨어져 사회적 보살핌을 받는 현재도 “제가 가장”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동생을 엄마가 혼자 다 키우”고 있는 상태를 자신이 떠맡아야 할 보살핌을 엄마에게 혼자 떠넘기고 있는 상태라고 여기기도 하고, “안정이 되면” “동생이랑 엄마도 함께 살 예정”이어서 “세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과업이 가장 큰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들의 보살핌 이야기 속에 “엄마”와 “동생들”은 자주 등장하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성에서 여성으로 전수되어 온 인류의 보살핌 행위에 대한 유산은 이들의 어깨에도 지워져 있었다.

3) 십대 여성 자립 수준 조사 결과

십대 여성 자립생활 기술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단위사업 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십대 여성 85명이었다. 이들 응답자는 각 기관별로 5~21명이 분포되어 있었다. 십대 여성들이 비교적 단기간 거주하는 서울 YMCA쉼터 응답자가 21명, 21.9%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거주하는 십대 여성이 많은 마자렐로 센터가 14명으로 14.6%를 차지하였다. 또한 거주 십대 여성이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 나자렛집이 13명이었고, 대안학교인 꿈틀학교가 11명,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이 7명이었다.

응답자의 거주 상황을 살펴 보면, 십대 여성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가 37.6%로 가장 많았고, 쉼터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2.9%, 미혼모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11.8%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82.4%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등에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는 17.6%였다.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40.6%를 차지했으며, 대안학교에 다니는 응답자는 17.9%였다. 그 이외에 대학교, 기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응답자가 각각 2.4%, 3.6%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35.7%였으며, 이 응답자들은 미혼모보호시설이나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5-5】 자립 생활기술 검사 응답자 일반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기관별	구세군서울여자관	5	5.2
	꿈틀학교	11	11.5
	노원구청소년쉼터	7	7.3
	또하나의집	8	8.3

	마자렐로센터	14	14.6
	서울나자렛집	13	13.5
	서울YMCA청소년쉼터	21	21.9
	스스로넷 미디어스쿨	7	7.3
	애란세움터	5	5.2
	행복한우리집	5	5.2
거주상황	십대 여성 보호시설	32	37.6
	쉼터거주	28	32.9
	미혼모보호시설	10	11.8
	가족과 거주	15	17.6
재학학교	중학교	12	14.3
	인문계고등학교	3	3.6
	실업계고등학교	19	22.6
	대안학교	15	17.9
	대학교	2	2.4
	기타학교	3	3.6
	비해당	30	35.7

십대 여성의 자립 생활기술의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자립생활 전체 평균은 사전 사후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상 생활, 감정관린, 의사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하위영역에서 평균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5-6】 자립 생활기술 영역별 평균 비교

	사전평균	사후평균
일상생활	2.04	2.09
자기보호	2.25	2.23
감정관리	2.23	2.28
의사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2.30	2.33
일과 학업 관련 기술	2.13	2.07
자립생활 전체	2.17	2.18

본 조사에서 사용한 ACLSA Short 척도는 리커트식 3점 척도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자립 정도는 2.1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자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현재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척도는 거의 ACLSA 척도가 유일하므로, 테마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의 목표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ACLSA 척도의 문항 내용과는 괴리가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는 적당하지 않았다.

십대 여성은 거주지, 직업과 같이 유형의 것들을 획득하는 능력과 내적 성장을 통한 변화와 같이 무형의 것을 소유하는 능력을 자립의 큰 두 가지 줄기로 세우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각 기관의 사업 목표와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 부분 심리적 성장이나 사회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테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십대 여성들의 현재 상황은 자신들이 바라는 자립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자립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으

므로, 이러한 훈련을 통한 기술 획득이 최선의 접근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대 여성들이 원하는 자립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테마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들이 좀더 유형적이고 세상과 밀착된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VI. 결 론

1. 평가 요약

1)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평가

2005년도부터 테마프로젝트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자립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여 올해 2년째 되는 시점에 있다. 따라서 아직은 십대여성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2006년도 테마프로젝트 사업에서도 보면, 실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기관은 서울나자렛집, 행복한 우리집, 꿈틀학교, 서울여성의전화, 언니네 정도이다. 서울여성의 전화나 언니네의 경우 여성단체여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데 부담이 없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초기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립과 성인지적 관점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성인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혼란스러워 하였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만 언급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테마프로젝트 사업을 해 나가면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월별 간담회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실생활에서 구체화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무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나

가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됨에 따라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실무자들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거나 먼저 관심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무자가 의도를 갖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주입식으로 교육시키고 딱딱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도 실무자 대상의 성인지적 교육은 정기적으로 필요하리라 보며, 자립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자료가 많이 나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사업평가

프로그램 과정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월별 서비스 통계표 및 기관 최종보고서 점검, 기관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및 서류 검토, 간담회 참석, 프로그램 참관 등의 방법이 실시되었다.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무자, 효과성 및 만족도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노원구청소년쉼터는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교체가 발생하고 잦은 입·퇴소로 대상자가 없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고 축소되었다.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에서는 인도, 네팔의 악세서

리나 여성의류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초기 계획된 사업 아이템이었다. 그러나 사업 준비과정이 길어지면서 참여자들 간의 갈등 및 의욕저하가 발생하였고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아이템을 홍보영상제작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글로벌케어는 계획상의 진료,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핵심 프로그램이 기관의 욕구가 없어 실시되지 못하였고 기초건강 실태파악은 축소되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

이들 세 기관은 프로그램 기획시 참여자의 욕구조사, 프로그램 유경험자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정보파악, 기관의 상황 고려,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파악 등과 같은 사전 준비작업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목표 및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목표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비해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워 놓았다. 또한 목표간의 상관성은 떨어지면서 너무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비중이 약한 경우도 있었다. 몇 기관은 평가지표가 목표와 맞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목표달성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실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겠다.

행복한우리집, YMCA청소년쉼터, 서울여성의전화의 경우 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작년도 프로그램의 평가가 잘 반영되어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또한 꿈틀학교, 행복한우리집, YMCA청소년쉼터에서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기관내 프로그램이 많거나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여하기는 힘들 것이며 따라서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관별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마자렐로센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지원

을 특화하여 몇 년째 실시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 애란세움터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실시하고 있는데 멘토 연결에 대한 욕구가 100%라는 점은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만하다. 또한 YMCA 청소년 상담터와 서울여성의전화에서 실시한 경제관련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실제로 필요하면서도 기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겠다. 언니네의 경우 주된 주제와 기법은 정해 놓고 세부 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 돋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사업기관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네트워크 개발이나 형성, 자원제공자로서의 역할 면에서는 부족했다고 본다 .

(2) 실무자

프로젝트를 기획한 직원과 실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실무자가 많이 달랐다. 이는 초기 기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넘어갈 때 이루어지는 경우와 실행단계에서 입안자가 진행하다가 직원이동으로 교체되는 경우를 말하며, 총 8개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업무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졌거나 수퍼비전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기관의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나 실행이 늦어졌다.

대체로 직원교체는 기관의 인사이동이나 전담 직원채용 또는 직원 개인 사정상 이루어지는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직원교체나 이동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인력활용 면에서 보면, 확대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전담 직원을 뽑아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기관 자체인력이 프로젝트 사업을 맡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직접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나 프로젝트 이외의 주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프로그램 양은 실무자를 소진시키고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빵과 영혼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 프로그램이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전담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겠었다.

기관의 역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전문강사 활용에 어려움은 없었다. 행복한우리집의 경우 해외여행을 진행하면서 국내외 전문 인적 자원(일본어자원봉사자, 현지 코디네이터)을 잘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케어의 경우 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활용이 미비하였다. 담당의사가 그만 두면서 시간제 의사가 고용됨에 따라 중요한 인적 자원의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개방적인 자세와 배움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고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프로그램 효과성 및 만족도

기관 자체 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서술평가, 목표대비 달성률, 척도 분석 결과를 보면 대부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꿈틀학교의 경우 실제 진행을 하면서 심화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행한 것, 전문강사 섭외와 야외활동이 목표달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마자렐로센타에서는 검정고시 합격률이 1차 시험에서 과목합격을 포함하여 100%의 합격률을 보였고 2차 시험에서는 83%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나자렛집은 성인지적 자아정체성 회복을 목표로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으나 양성평등이나 젠더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

나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YMCA 청소년쉼터에서는 작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발성이 강조된 자기주도적인 체험식 프로그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스스로넷 미디어스쿨은 계획된 사업아이템을 중도에 그만두고 새로운 아이টে으로 방향 전환하여 실시하였는데 다행히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5곳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실무자들은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 주었다. 실무자들은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척도활용에 관심을 많이 보인 반면에, 결과에 대한 해석에 많은 부담감을 가졌다. 실제 척도를 사용한 3개 기관(빵과 영혼, 구세군서울여자관, 또 하나의 집)의 경우 대체로 사전에 비해 사후가 더 향상된 것으로 보여졌으나, 대부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적합한 척도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척도가 가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기관별로 인원과 프로그램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므로 개인별로 개별화된 척도를 사용해서 발달정도를 점검하거나 개인별 화일을 만들어 개인의 변화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활용하는 평가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3) 성과 평가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테마프로젝트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십대 여성의 자립을 기본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그 독특성과 사회적 함의라는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인지적 관점을 사회복지 실천행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십대 여성이 이루어야 하는 자립

은 어떠한 양태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 온 테마 프로젝트가 본연의 성과를 산출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6년 테마프로젝트는 15개 기관에서 각기 다른 목표와 내용으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 수행기관들은 성인지적 관점과 자립에 대하여 각기 다른 차원과 수준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넓은 스펙트럼의 성인지적 관점과 자립을 몇 가지의 척도나 평가 방법으로 포괄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6년 테마프로젝트의 포괄적인 성과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팀에서는 네 가지 평가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해 보았다.

첫째,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여 테마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경험한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척도를 활용한 평가가 보여줄 수 있는 범위 밖에 존재하는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인식과 변화를 포괄적이고도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프로그램 종결후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에는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 중 십대 여성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7개 단위사업 실시기관 기관장과 실무자 11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그룹은 모니터링 팀의 연구원 1명이 진행하였고, 모니터링팀 연구원 2명,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담당자 1명이 참관하였다. 포커스그룹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녹음하였고 추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변화 경험은 관념에 머물러 있던 성인지적 관점을 일상 이야기로 실현해가는 경험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 또는 성에 관한 본래의 인식을 통해 형성되어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로 머리 속을 떠돌던 성인지적 관점들이 테마프로젝트 실천으로 형성되는 일상의 구조와 내용 속에 제자리를 찾고 이야기로 표현되는 경험이었다. 실제로 성인지적 관점이 무엇인가 하

는 질문에 대한 실무자들의 표현은 관념적인 내용으로 표방되었으며, 이에 반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무자들의 표현은 앞서의 관념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주의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실제로 구호로서의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주의의 원리와, 일상에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주의의 방법적 적용과 맥을 같이 하였다.

일상에서 발휘되는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일방향” 소통을 양방향으로 변환시켰으며, 같지 않은 ‘다름’과도 화해하게 하였다. 언제나 성취하여야 한다고 여겼던 스스로 ‘혼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더욱 많은 것이 얻어졌다. 세상 곳곳을 살피면서 숨겨져 있는 성에 관한 숨은 그림들을 알아보고 찾는 “재미”도 있었으나, 역시 세상은 성별로 구분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를 활용하여 테마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정체성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는 리커트식 5점 척도이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척도의 신뢰도는 .9369로 나타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유사실험설계로 통제집단 없이 참여자 집단의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을 알아보았고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한 5개 확대사업, 10개 단위사업의 실무자 중 사전조사에 응답한 실무자는 50명이었고, 사후검사에 응답한 실무자는 41명이었다. 이중 사전-사후 검사 모두에 응한 응답자는 27명이었다. 분석결과 사전-사후 대응표본 T-test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평균치가 증가하였고 사후 조사 평균치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은 서서히 정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미 성인지적 관점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체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커스그룹을 통해 드러난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과 적용의 내용은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에서는 대부분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체득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천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또다른 대안적인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테마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자립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종결 평가 이후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 참여자는 단위사업 3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6명의 십대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테마프로젝트 모니터링팀의 연구원 1명이 진행하였고, 모니터링팀 연구원 2명,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담당자 2명이 참관하였다. 포커스그룹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수집된 자료는 녹음하였고 추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십대 여성 참여자들은 자립을 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먹고 거주하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자립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하고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십대 여성들에게 자립이란 자신의 모든 생활을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갖는 것과 동등한 것이었다.

십대 여성들은 자립을 독립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여러 차원에서 독립과 자립을 비교하면서 독립과 차별되는 자립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자신을 둘러싼 외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므로 십대 여성은 자신들이 어른이 되는 통과의례가 자립을 이루는 것일까 궁금해 하면서 그렇다면 어른들에게 당신들은 자립을 이루어 어른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었다. 십대 여성들은 또한 세상이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받아들여 여러 가지 내적 성장을 위

한 훈련과 사회기술, 적응기술 습득을 통해 자립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자립의 양태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그 공간과 공간 내에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을 갖는 형태였다. 이처럼 자립과 함께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힘이었으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면적 변화를 피하여 자립을 이루도록 하는 우회적인 개입이었다. 어쩌면 십대 남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십대 여성의 독특한 자립 인식은 자립을 보살핌 행위와 연결시키는 점에 있었다.

넷째, 십대 여성들의 자립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ACLSA4.0척도의 축약본인 ACLSA Short 척도를 사용한 평가를 하였다. 이 척도는 리커트식 3점 척도로 일상생활, 자기보호, 감정관리, 의사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일과 학업 관련 기술 등 5개 영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사결과 신뢰도는 .8742로 나타났다. 조사설계는 유사실험설계로 통제집단 없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참여자 집단의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사전 조사에 87명이 응하였고, 사후 조사에 60명이 응하였다. 사전, 사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는 51명이었다. 조사 대상은 비교적 장기간 프로그램에 노출된 단위사업 참여자로 한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율을 알아보고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십대 여성의 자립 생활기술의 사전사후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자립생활 전체 평균은 사전 사후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상생활, 감정관리, 의사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 하위영역에서 평균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 사용한 ACLSA Short 척도는 리커트식 3점 척도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본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들의 자립 정도는 2.18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의 목표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ACLSA 척도의 문항 내용과는 괴리가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는 적당하지 않았다.

십대 여성은 거주지, 직업과 같이 유형의 것들을 획득하는 능력과 내적 성장을 통한 변화와 같이 무형의 것을 소유하는 능력을 자립의 큰 두 가지 줄기로 세우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각 기관의 사업 목표와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 부분 심리적 성장이나 사회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테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십대 여성들의 현재 상황은 자신들이 바라는 자립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자립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훈련을 통한 기술 획득이 최선의 접근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십대 여성들이 원하는 자립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테마 프로젝트의 사업 내용들이 좀더 유형적이고 세상과 밀착된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2.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2006년도 모니터링 연구팀은 모니터링 사업을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하나는, 모니터링 그 자체이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각 기관들이 계획한 바대로 십대여성의 성인지적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언을 주고 지원한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립의 개념적 틀에 대한 고민이었다. 현재 십대여성의 자립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개념적 틀과 패러다임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의 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자립 논의 및 자립 실행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한계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모니터링 연구팀의 지난 1년간의 작업을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해 보기로 한다. 제안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십대여성의 자립과 관련된 서울시의 자립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테마프로젝트에 대한 제언, 자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각 개별 기관과 관련된 제언이 그것이다.

1) 서울시의 십대여성 자립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

(1) 청소년정책과 차별되는 성(gender)에 민감한 십대여성 정책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여자청소년을 청소년정책으로 묶어버리면 젠더의 문제가 사문화되어 버린다. 그런데 젠더는 여자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토대이자 현실이다. 여자청소년 그것도 “특수한” 여자청소년의 삶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보면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에서부터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의식 내면에 서조차 젠더의 문제가 작동된다. 그것은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다르며 따라서 그들의 삶은 다르게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늘푸른여성지원센터가 이들 여자청소년을 “십대여성”으로 이슈화하고 이를 통해 여자청소년을 청소년이라는 정체성 외에 여성으로써의 정체성을 가진 고유한 인간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의의가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자청소년을 십대여성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받은 실무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전 보다 더 많은 성취와 십대여성의 성장을 경험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경험은 실무자에게서 만이 아니라 십대여성 당사자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청소년기를 학

교와 놀이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이동하는 기간으로 본다면 십대여성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처한 이들 십대여성이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있어 세계가 어떻게 성(gender)에 의해 차이가 형성되고 차별화되는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일의 세계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힘을 기르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여자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십대여성”으로 표현되는 젠더에 민감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강화되어야 한다.

(2) 십대여성 자립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십대여성에게 실질적 자립은 절실하다. 이들의 자립은 단순히 심리적 차원의 자립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자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은 이들 십대여성의 자립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이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관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시적인 사업이 될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 십대여성이 퇴소하게 되는 경우 퇴소 후에 대한 지원이 없어 자립이 위기에 처하는 실정이다. 퇴소 후 오 갈데없는 십대여성은 가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간의 자립 노력은 효과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퇴소 후 이들 십대여성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금에 대한 지원과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십대여성의 자립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십대여성의 자립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고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십대여성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구체적인 직업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사실상 경제적 자립에 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자립은 노동시장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 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십대여성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달성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지원 기간의 한계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 기관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십대여성이 속한 청소년기는 학교와 놀이의 세계에서 일의 세계로 나아가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들 십대여성의 자립에는 구체적인 직업경험이 중요하고 이 경험을 통해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 맞설 수 있는 자립적 힘을 키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를 갖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할 수 있는 직업에의 접근성을 높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십대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현장의 일개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십대여성들의 직업 경험과 일 찾기에서 이들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늘푸른여성지원센터의 테마프로젝트에 대한 제언

(1) 확대사업은 없애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확대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확대사업이 연결과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공동참여를 위한 시간내기가 어려워 사업의 효과가 적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그 기관의 주력사업이 아니어서 파급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

나지 않았다. 여기에 기관의 프로그램이 주로 단기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어서 십대여성의 자립에 미치는 효과도 의문시 되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토대로 해 보건데 테마프로젝트의 한 축인 확대사업을 지양하고 이를 단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테마프로젝트의 잠재적 시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인생에서 십대는 특히, “특수한” 십대는 일의 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십대의 여성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사회 내의 다양한 곳에서 제공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직접 이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이들을 테마프로젝트 시장의 경계로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가출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십대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자면 십대여성과 관련된 기관을 더 발굴하고 이들을 테마프로젝트의 잠재적 시장으로 포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실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는 개별 기관들이 십대여성의 자립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성인지 교육은 실무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고, 아울러 십대여성들을 돕는데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모호한 관념에 머무르고 있던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일상적 삶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들여다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구

체적 일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성인지적 관점을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이 때 특히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천과 연관하여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실무자들간의 월레모임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실무자들의 월레모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우선,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실무자들이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의 사업진행상 어려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수퍼비전을 제공하는데도 효과적이었다. 이는 개별 기관을 방문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병행하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월레모임을 지속적으로 갖을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보다 더 강제성을 부여해 되도록이면 월레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실무자들의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토로하고 상호 피드백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자립과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을 사전 교육한다.

2006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수사상으로는 “자립”과 “성인지”를 표방했지만 실제적인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자립”과 “성인지 관점”이 별반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자립과 성인지 관점을 고민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립과 성인지 관점에 대한 고민을 개별 기관에 맡기는 것 보다는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이를 기획하여 이들 개별 기관에서 이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경험을 공동으로 갖게 하는 것은 자립 프로그램의 성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테마사업에 공모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교육하고 이어 사업실시가 확정된 다음에 공동으로 프로그램의 과정관리를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십대여성의 자립을 고민하는 실무자들간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현장을 중심으로 십대여성의 자립을 고민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적인 자립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다.

(6) 성인지적 자립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양적방법의 대표적 방법은 척도를 적용해 성과를 수치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현재 자립척도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심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립을 지나치게 기술의 습득과 개인화되고 심리학화된 자립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을 측정하는 척도 또한 성인 위주로 되어 있고 성인지 관점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테마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가 “십대여성”, “자립”, “성인지적 관점”이라면 이들을 반영하여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척도는 특히, 과학적인 평가방법에 익숙하지 않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성인지적 자립 개념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3) 자립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각 개별 기관과 관련된 제언

(1)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십대여성의 자립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인식향상이나 교육의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혹은 이해의 향상이나 교육은 체험을 중심으로 한 경험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하다.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의 강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십대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한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따라서 인식과 이해 그리고 교육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2) 프로그램 평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사업에 대한 평가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는 양적평가와 질적평가 모두에서 그런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사업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조언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늘푸른여성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3)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상당수의 기관이 목표를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에 대

한 충분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4) 담당 실무자의 변경을 자제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중의 하나는 실무자의 교체로 인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것이었다. 사업의 추진에서 실무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실무자의 마인드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또 한 가지는 실무자에 대한 교육(예:성인지 관점 교육)을 통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부여받았던 것이 실무자의 교체로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실무자의 내부 이동을 물론이고 실무자의 교체를 자제하는 기관의 의지가 필요하다.

(5) 반드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한다

프로그램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프로그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면 상당수의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방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반드시 프로그램 실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VII. 참고자료

- 강철희(2001), 시설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5회 학술대회.
- 고명희(2001), 사회복지사의 여성주의 의식 연구, 가톨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여성학.
- 김복규(2002),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평가 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 김옥순(2006),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적 관점은 유효한가, 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 센터주최 청소년 성평등정책 포럼.
- 김인숙(2000),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의 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 김현우(2004), 여성주의 생애 접근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 김희성(2004),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제 15회 학술대회.
- 노 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 청소년학연구.
- 박미석 외 (2004),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대한가정학회지.
- 변혜정(2006), 10대 여성의 삶 읽기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 서울시 늘푸른 여성지원센터 청소년 성평등정책 포럼.
- 송인자(2003), 성인지적 관점과 교육복지 제도화, 교육학연구.
- 신혜령 외(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원미혜(2006), 십대/여성 정책의 도전과 과제, 인천발전연구원 여성개발센터
여성의제 토론회.

윤철경(2006), 성인지적 청소년 정책의 비전과 과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
원센터주최 청소년 성평등정책 포럼.

이상화(2005), 리더십과 권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개념화, 여성학논집.

이영자(2003), 여성주의 정치학, 한국여성학회 제 19차 추계학술대회.

차인순(2001), 법의 중립성과 성인지적 관점, 한국여성학.

허경미(2005),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여성개발원(2001), 정책의 성분석 모형개발, 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James, Jacquelyn B.(1997), What are the Social Issues involved in
focusing on difference in the study of gender?, Journal of Social Issues.

Hewer, John C. (1993),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A case study of
a program for Ontario youth in transi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Lee, Mo-Yee (1996),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The Help-Seeking
Process of Clients, Clinical Social Work.

Sands, Roberta G. (1996), The elusiveness of Identity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Women, Clinical Social Work

Casey Family Programs

<http://WWW.caseylifeskills.org>

〈부록 1〉 기관용 최종보고서

2006년 테마프로젝트 기관용 최종보고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전송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프로그램명			
사업수행기간	2006년 월 일 ~ 월 일		
작성자			

I. 2006년 사업 요약 및 실시현황

II. 사업 실시 개요

1. 프로그램의 목적
2. 프로그램의 목표
3. 프로그램 기간
4. 프로그램 대상

III. 사업 결과 및 평가

1. 사업진행 일정
2. 사업 결과

프로그램명	계획	실행결과	계획과실행비교

3.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평가
4. 사업 담당자의 평가
5. 그이외의 평가(참여자의 평가, 서술적 평가 등)

IV. 예산대비 결산

항목	예산	결산
총계		

V. 테마프로젝트 사업의 향후 계획

〈부록 2〉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06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 모니터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연구팀입니다.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는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와 함께 테마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느라 더운 날씨에 많은 노고가 있으실 줄 압니다. 모니터링 중 필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셔서 동봉한 봉투에 넣어 반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봉하는 설문지는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립척도”와 실무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검사”입니다. 청소년 자립척도는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작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검사는 테마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기관 내 실무자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이 보장된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질문 내용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평소에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 청소년들에게도 이 점을 알려 주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인 십대여성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십대여성 자립지원사업

모니터링 팀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검사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녀평등 관련법(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잘 지내고 있다.					
2	나는 성차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다.					
3	나는 지금 나와 같은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4	나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5	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내와 엄마의 존재로서 가장 충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6	나는 남자들이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최근 들어 생각한다.					
7	여성주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					

	은 나에게 중요하다.					
8.	어떤 면에서 내가 참여한 대부분의 활동 동기는 평등세계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9.	나는 이 사회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거나 염려한 적이 없다.					
10.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 핵전쟁, 공해, 차별 등 - 을 생각할 때 나는 그 문제의 대부분이 남성들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본다.					
11.	나는 요즘 주로 동성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지만 소수의 이성들과도 우정을 나누며 즐기고 있다.					
12.	나는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적 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다.					
13.	만약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다른 도시에 직장을 갖게 된다면 남편을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14.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불공평하게 대접받았는지 생각하면 나는 기분이 언짢아진다.					
15.	나는 사회생활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주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한다.					
16.	나는 여성운동을 하는 일에서 나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다.					
17.	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8.	나는 최근에 남녀차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경험, 또는 그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					
19.	특pecially 요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여성들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느낀다.					
20.	나는 어떤 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					
21.	나는 기혼 여성들이 가사 일을 돌보고 남편들을 내조하던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을 대하는 방식을 볼 때 분노를 일으킨다.					
23.	내가 만약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쓴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성이나 여성의 문제에 대한 것일 것이다.					
24.	나는 내가 매우 영향력 있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25.	나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의문을 갖지 않는다.					
26.	나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용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27.	특pecially 요즘, 나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28.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것에 매우 헌신하고 있다.					
29.	나는 “여성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받아왔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					
30.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고, 평화로운 곳인 남녀차별이 없는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어떤 희생을 하겠다.					
31.	나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대체로 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32.	나는 강간이 때때로 여성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사항

1. 성별 ①남성_____ ②여성_____
2. 연령 (만 _____)세
3. 종교 ①기독교_____ ②불교_____ ③유교_____ ④무종교_____ ⑤
기타_____
4. 최종학력 ①전문대졸_____ ②대학졸업_____ ③대학원 졸업_____
5. 전공 ①사회복지학_____ ②심리학_____ ③간호학_____ ④의학_____
⑤기타_____(구체적으로 _____)
6. 혼인형태 ①결혼_____ ②동거_____ ③이혼_____ ④별거_____
⑤사별_____ ⑥미혼_____
7. 기관유형 ①단기쉼터_____ ②장기쉼터_____ ③상담센터_____
④의료기관_____ ⑤기타_____(구체적으로 _____)
8. 현재직책 ①기관장_____ ②간부_____ ③실무자_____
④강사_____ ⑤기타_____(구체적으로 _____)
9. 총 실무경력 _____년 _____개월
10. 자격증 ①사회복지사_____ ②상담심리사_____ ③간호사_____
④의사_____ ⑤기타_____(구체적으로 _____)
11. 여성주의(성인지적 관점)에 관한 실무자 교육 참여 경험
①있음_____ ②없음_____

〈부록 3〉 ACLSA Short 척도 (청소년 자립 생활기술)

아래의 질문은 여러분의 자립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답은 앞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며,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현재 거주 상황은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쉼터에서 살고 있다
 - ② 쉼터 이외의 시설(예, 자립시설, 그룹홈 등의 생활 시설)에서 살고 있다
 - ③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 ④ 혼자 살고 있다
 - ⑤ 기타 _____

3. 2번과 같은 상황은 언제부터입니까? _____ 년 _____ 개월

4. 귀하는 현재 학교에 다닙니까?
 - ① 예 (☞ 5번으로 가십시오)
 - ② 아니오(☞ 6번으로 가십시오)

5. (현재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귀하는 현재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중학교

- ② 인문계 고등학교
- ③ 실업계 고등학교
- ④ 대학교
- ⑤ 기타 학교 _____

6.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초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 ② 중학교 중퇴 혹은 졸업
- ③ 고등학교 중퇴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기타 _____

7. 귀하는 현재 직장에 다닙니까?

- ①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 ② 전일제로 근무한다
- ③ 시간제(아르바이트 포함)로 근무한다
- ④ 기타 _____

8. 다음 문항들이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판단해서,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나의 모습 과 같음	어느 정도 나의 모습 과 같음	나의 모습 과는 다름
1	나는 전화,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2	나는 집을 구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맺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나는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임대보증금, 임대료, 가구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다.			
4.	나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5.	나는 에이즈나 매독과 같이 성관계를 통해 옮겨지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다.			
6.	나는 어떤 사람이 담배나 술, 불법 약물을 사용할 때 그 사람 신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다.			
7.	나는 화가 나거나, 행복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우울한 것과 같은 내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			
8.	나는 내 감정으로 힘들 때 도움을 구한다.			
9.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한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바르다.			
1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준 물건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소중히 여긴다.			
13.	나는 시간에 맞추어 일을 마친다.			
14.	나는 학교나 직장에 시간을 맞추어 간다.			
15.	나는 시험이나 발표를 위해 준비한다.			
16.	나는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의 물건을 사용한다.			
17.	나는 나를 위한 식사를 나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다.			
18.	나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부록 4〉 실무자 포커스 그룹 질문지

테마프로젝트 실무자 포커스 그룹

1. 일 시 : 2007년 1월 5일
2. 장 소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3. 참 석 자 : 테마프로젝트 참여기관 실무자 7-8명
4. 진 행 자 : 김인숙, 장혜경, 김남욱

5. 인사말

이렇게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커스 그룹은 십대 여성의 성인지적 자립에 대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느낌이나 경험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지적 자립이 무엇이다라는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들 간의 토의를 통하여 실천현장에서 성인지적 자립은 무엇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6.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질문

모니터링 팀에서는 작년부터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 척도”를 사용하여 선생님들의 성인지적 정체성 발달의 변화를 추적하여 왔습니다. 2006년 말 선생님들의 성인지적 정체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하여 성인지적 관점에 익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행위의 변화는 어떤 것들입니까?

2)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할 때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자립에 관한 질문

저희 테마프로젝트의 목적은 십대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1) 그렇다면 십대 여성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자립했다고 보십니까?
- 2) 어떻게 하면 십대 여성들의 자립을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록 5〉 참여자 포커스 그룹 질문지

테마프로젝트 십대여성 포커스 그룹

1. 일 시 : 2007년 1월 19일
2. 장 소 : 늘푸른여성지원센터
3. 참 석 자 : 테마프로젝트 참여기관 십대여성 6-7명
4. 진 행 자 : 김인숙, 장혜경, 김남욱

5. 인사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2006년 늘푸른 여성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테마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십대 여성들이 “자립”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자립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희 같은 성인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립이 무엇이냐 라는 함의를 도출해 내려는 것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실제로 십대 여성들은 자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6. 자립에 관한 질문

저희 테마프로젝트의 목적은 십대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1) 자립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 2)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자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어떻게 하면 십대 여성들의 자립을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